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허장 · 전형진 · 김상현 · 이효정 · 이병훈 · 이대섭 · 이수환 · 최정만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허장 · 전형진 · 김상현 · 이효정 · 이병훈 · 이대섭 · 이수환 · 최정만

세계지역전략연구 19-10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4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9010-2 94320  
978-89-322-9000-3 (세트)



## 국문요약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對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고, 우리나라로부터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는 전 세계 1위이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과 보고서 이외에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 DB를 활용하였다. 하노이, 호치민 시, 람동성과 달랏시의 공공기관, 민간업체

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2019. 7. 24)에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8%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개혁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 농산물유통 자유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있다. 그 효과로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베트남 식품과 식품유통 부문은 세계에서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에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는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이거나 가격,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저해요소로 꼽힌다.

주력수출품목과 수출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 등 다양한 지수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스턴트커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

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동기간 8%에서 17%로 상승하였지만 2017년 유상원조의 비중이 83%로 나타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원 건수는 교육·훈련, 농업개발, 농촌개발, 축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았다. 2019년도 베트남 지원 예산은 1,703억 원이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례로는 농식품부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과 KOICA의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개발협력 추세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가공식품 산업, 운송부문 중 저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서의 의견이다.

한국의 민간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누계 투자 6,883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농업 진출기업 신고 자료를 통해 보면,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딸기 등이 생산, 유통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된 적이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 생산관련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세 가지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우선,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 협력분야가 연계될 수 있다.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원료농산물 공급 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이다. 유통,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ODA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과 함께 세 가지의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



책을 통해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둘째,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지대(가령, 사이공하이텍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체계 개선 ODA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개도국 동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역관 등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제도가 필요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의 ICT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가. 필요성 ..... 22

        나. 목적 ..... 25

    2. 선행연구의 검토 ..... 26

        가. 선행연구 ..... 26

        나. 연구 차별성 ..... 29

    3. 연구내용과 방법 ..... 31

        가. 내용 ..... 31

        나. 방법 ..... 32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3

**제2장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 35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 36

        가. 일반 현황 ..... 36

        나. 경제 현황 ..... 39

        다. 농업 현황 ..... 43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 50

        가. 경제체제 개혁·개방 과정 개관 ..... 50

        나. 농업개혁 과정 개관 ..... 57

    3. 국가경제발전 정책 ..... 62

        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 62

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63
다. 농업 재구조화 정책과 마스터플랜 .....	64
라. 농업재건프로그램 .....	65
마.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 .....	66
바. 지속가능한 빈곤 경감 프로그램 .....	67
<b>제3장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b>	<b>69</b>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	70
가. FTA 주요 내용 .....	70
나. 주요 농축산물 교역 현황 .....	73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	84
가. 수출시장 진출여건 .....	84
나. 농식품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	98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	119
가.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제분업 .....	119
나. 농식품 부문 GVC 현황 .....	121
다. GVC 참여와 역내 분업구조 사례분석 .....	124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	129
가. 수출증대 저해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 .....	129
나. 베트남 비관세장벽 현황 .....	129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	135
가. 민간업체의 베트남 진출 .....	135
나. 해외농업자원개발 현황 .....	140
다. 신남방정책 .....	143

**제4장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 147**

-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 148
  - 가. SDGs 달성 현황 ..... 148
  - 나.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개발협력 정책 ..... 150
  - 다. 개발협력 분야 생태계 분석 ..... 159
-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 164
  - 가.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 164
  - 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 현황 ..... 166
  - 다. 농업분야 ODA 주요 성과와 성공 사례 ..... 172
-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 178
  - 가. 국제사회의 AfT 지원 동향 ..... 178
  - 나. AfT 지원 현황 ..... 180
  - 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AfT 지원 방향 ..... 181

**제5장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 183**

-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 184
  - 가.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84
  - 나.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89
-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 193
  - 가.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연계 ..... 194
  - 나. 경제개발전략을 뒷받침하는 협력과제의 추진 ..... 195
- 3. 협력 모델 ..... 196
  - 가.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 지원을 통한 연계 ..... 197
  - 나. 원료농산물 공급능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 ..... 198

다. 물류·운송체계의 투자,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 .....	200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	200
가.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 .....	201
나.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 .....	206
다.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 .....	212
<b>제6장 요약 및 결론 .....</b>	<b>221</b>
<b>참고문헌 .....</b>	<b>224</b>
<b>부 록 .....</b>	<b>235</b>
<b>Executive Summary .....</b>	<b>264</b>



## 표 차례

표 2-1. 베트남의 지역별 토지이용 .....	37
표 2-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40
표 2-3. 시기별 베트남여성연맹 명칭의 변화 .....	42
표 2-4. 작물별 재배면적 .....	44
표 2-5.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2018) .....	45
표 2-6. 베트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생산 현황(2018) .....	46
표 2-7. 베트남의 농수산물 교역 동향 .....	46
표 2-8. 베트남의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	47
표 2-9. 베트남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 변화 .....	48
표 2-10. 베트남의 주요 농산물 수입 동향 .....	49
표 2-11. 베트남 농업 종사자 수 및 생산성 현황 .....	50
표 2-12. 베트남의 주요 경제체제 개혁·개방 조치 .....	54
표 2-13. 베트남의 식량생산량(벼 환산량) 변화 추이(1979~1988) .....	59
표 2-14. 베트남의 식량생산량(벼 환산량) 변화 추이(1986~1993) .....	61
표 2-15.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 2010~2020) .....	66
표 2-16. 베트남 신농촌프로그램 사업내용과 기준 .....	67
표 3-1. 한-베트남 FTA 농산물 양허 협상결과 .....	72
표 3-2.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	74
표 3-3.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	75
표 3-4. 베트남 주요 가공식품 수입액 동향 .....	76
표 3-5. 베트남 주요 곡물,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수입액 동향 .....	78
표 3-6. 베트남 주요 임산물 수입액 동향 .....	79
표 3-7. 對 베트남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 동향 .....	80
표 3-8. 對 베트남 주요 과실류, 채소류, 임산물, 축산물 수출액 동향 .....	81

표 3-9. 베트남 농업단계별 기계화율 목표 설정(%) .....	88
표 3-10. 베트남 농기계 상위 20대 수입현황 .....	90
표 3-11. 베트남 주요 대기업들의 하이텍 농업 투자 현황 .....	95
표 3-12. 베트남 비료 주요 수입국 현황 .....	96
표 3-13. 베트남 농약 주요 수입국 현황 .....	98
표 3-14. HS코드 6단위 별 주력수출품목 .....	100
표 3-15. HS코드 6단위 별 수출성장품목 .....	101
표 3-16.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690) .....	105
표 3-17.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90230) .....	106
표 3-18.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260) .....	107
표 3-19.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90110) .....	108
표 3-20.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490) .....	109
표 3-21.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500) .....	110
표 3-22.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080830) .....	111
표 3-23.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00599) .....	112
표 3-24.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290) .....	114
표 3-25.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111) .....	115
표 3-26.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070110) .....	117
표 3-27.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20991) .....	118
표 3-28. 베트남의 WTO SPS/TBT 조치 통보건수 .....	130
표 3-29. 베트남의 WTO SPS 조치 특정무역현안 참여 현황 .....	131
표 3-30. 베트남의 WTO TBT 조치 특정무역현안 제기 받은 사안 .....	133
표 3-31. 베트남의 NTM .....	134
표 3-32. 베트남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	136
표 3-33. 동남아 진출기업 해외농업 개발 실적 .....	142

표 3-34. 신남방정책 추진과제 및 농업관련 과제의 세부내용 .....	144
표 4-1. 국제기구별 베트남 지원 사업 분야 및 주요 사업 .....	157
표 4-2.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 현황 .....	165
표 4-3. 국제사회의 베트남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 .....	165
표 4-4. 주요 공여국별 베트남 ODA 지원 현황 .....	166
표 4-5.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현황 .....	167
표 4-6. 우리나라의 베트남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 .....	167
표 4-7. 베트남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 사업 현황(2019) .....	168
표 4-8. 개발도상국 무역다변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180
표 4-9. 베트남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	181
표 5-1. 베트남의 현지 식품제조업체의 원자재 주요 조달국(2015년) ...	186
표 5-2. 콜드체인 시스템 물류기지 운영 지역 .....	209
부표 2-1. 신농촌개발 프로그램의 19개 기준과 성과 지표 .....	245
부표 3-1. 국내외 對 베트남 ODA 지원 현황 .....	249
부표 4-1. 주요 공여국별 對 베트남 농업분야 지원 현황 (2010~2017 총액) .....	251
부표 5-1. 對 베트남 세부농업분야 지원 변화 추이(2010~2017) .....	252
부표 6-1.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ODA 사업지원 현황(2013~2019) .....	253
부표 7-1. 체제변화의 베트남·중국·구소련 모델 비교 .....	260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34
그림 2-1. 베트남 지도 .....	36
그림 2-2. 베트남의 평균 기온과 총 강우량(2018) .....	38
그림 2-3. 베트남과 한국의 연령별 인구비중(2018 기준) .....	39
그림 2-4.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신규 기업 수 추이 .....	41
그림 2-5. 베트남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 .....	41
그림 2-6. 농업부문 GDP 비중 .....	43
그림 2-7.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변화 추이 (1985~2018) .....	51
그림 2-8. 베트남과 중국의 재정 수지 및 물가 상승률 추이 .....	53
그림 2-9.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사회경제경제개발계획 개요도 .....	64
그림 3-1.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 .....	82
그림 3-2.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 .....	83
그림 3-3. 국제 분업 관계도 예시 .....	119
그림 3-4. 국가별 전후방 GVC 현황 .....	120
그림 3-5. 국가별 식품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	121
그림 3-6. 국가별 농업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	122
그림 3-7. 국가별 식품 산업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	123
그림 3-8. 국가별 농업 관련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	123
그림 3-9. 한국-베트남 GVC 예시 .....	125
그림 3-10. 베트남 내 인스턴트커피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	127
그림 3-11. GVC 활용한 인스턴트커피의 역내분업 구조 .....	128
그림 3-12.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	138
그림 4-1. 베트남의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조직 .....	149
그림 4-2. USAID의 베트남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	152

그림 4-3.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속가능한 농업전환 프로젝트 수행체계도 .....	155
그림 4-4. ADB 베트남 국가 파트너십 전략 2016-2020 개요 .....	156
그림 4-5. 베트남 정부부처별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구조도 .....	160
그림 4-6.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조직도 .....	162
그림 4-7. 베트남의 중·대규모 인프라 사업 기획 절차 .....	163
그림 4-8. ODA 사업 기획, 선정 및 승인의 일반적 절차 .....	164
그림 4-9. 사업 참여 기관간의 협력체계 .....	173
그림 4-10. 베트남 사업추진 절차 .....	176
그림 4-11.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성과 프레임워크 .....	179
그림 4-12. 對 베트남 무역을 위한 원조(AfT) 분야별 지원액 변화 추이 ..	181
그림 5-1. 가치사슬 내 해외농업개발과 ODA 연계 추진 .....	198
그림 5-2.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연계 방안 .....	199
그림 5-3. 디지털 농업을 위한 한-베트남 협력 방향 .....	205
그림 5-4. 베트남 GVC 농식품 생산 입지에 따른 판매 진출 가능지역 ...	207
그림 5-5. 베트남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체계(하노이 지역 예) .....	209
그림 5-6. 일본 글로벌 푸드 벨류체인의 구축 .....	211
그림 5-7.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의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 .....	215
그림 5-8. 스리랑카 농산물 수출입 검역시스템 개선사업 목표체계 .....	216
그림 5-9.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 지원 .....	217
부도 1-1. 베트남 내 캔디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	236
부도 1-2. GVC 활용한 캔디류의 역내분업 구조 .....	237
부도 1-3. 베트남 내 빙과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	238
부도 1-4. GVC 활용한 빙과류의 역내분업 구조 .....	239
부도 1-5. 베트남 내 라면(스프 제외)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	240

부도 1-6. GVC 활용한 라면의 역내분업 구조 .....	241
부도 1-7. 베트남 내 비스킷 및 과자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	242
부도 1-8. GVC 활용한 비스킷 및 과자류의 역내분업 구조 .....	243



## 약어표

AFT	Aid for Trade	무역을 위한 원조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CAC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국별 비교우위지수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HS	Harmonized System	통합품목분류체계
IPSARD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개발정책전략연구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센터
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개발부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계획투자부
MRLs	Maximum Residue Levels	최대잔류허용한도
MSI	Market Share Index	시장점유율지수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IAPP	National Institute on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국립농업계획전략연구원
NTP-NRD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신농촌개발 프로그램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현시비교우위지수
RTA	Region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사회경제개발계획
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사회경제개발전략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
STCs	Specific Trade Concerns	특정무역현안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VAS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베트남 사회과학원
WB	World Bank	세계은행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제1장

K

PMW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가. 필요성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001년 8월 르엉(Luong) 주석이 방한하면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한 번 이상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최근에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아세안(ASEAN) 국가와의 협력강화 정책은 베트남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2016년 1,188억 4,000만 달러인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 가운데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되었다.<sup>1)</sup> 아세안 국가이면서 메콩유역에 속한 베트남은 신남방정책과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대상 국가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한-베트남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농업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95억 1,900만 달러(2009)에서 682억 6,500만 달러(2018)로 7.2배 증가하였다. 2018년 무역수지는 289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sup>2)</sup> 또한 2000~2017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의 4.5%가 베트남을 향해

---

1) 2019년 11월 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됨.

2) KOTRA,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및 교역동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6376>(검색일 : 2019.12.22.).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경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sup>3)</sup>

농업분야의 교역도 마찬가지로여서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억 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억 6,000만 달러,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6.7%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개발협력의 규모 역시 크게 팽창하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의 하나로서,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08년 5,861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9,545만 달러로 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외 무상원조 수원규모를 보면 베트남이 2018년 462억 9,600만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지원대상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이는 2위인 필리핀과 비교하여도 1.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건수 기준으로도 11건의 프로젝트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필리핀, 에티오피아와 함께 사업 수가 가장 많다.<sup>4)</sup> 농업분야 ODA 사업으로는 팥찌성과 라오카이성 등에 대한 KOICA의 '행복프로그램'과 같은 새마을운동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우수농산물 저장유통센터 지원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베트남 농업분야 협력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농정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베트남의 국가 특성을 반영한 농산물 수출전략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

3) 이홍식 외(2018). p. 59.

4) 한국국제협력단(2019a).

다.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이를 유지,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對 베트남 ODA전략서인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는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가 중점지원 분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베트남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양국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체계적인 중장기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은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발전 상황을 기반으로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을 통합한 전략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對 아세안 협력전략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인구가 약 9,30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음으로 많다. 아직은 GDP 총액이 아세안 국가 전체 GDP의 8.1%로 6위에 머물고 있고(이홍식 외, 2018: 29), 1인당 GDP 2,343 달러(2017, 명목)로 하위 중간소득 국가에 속하나, 2014~2017년에 6.0%, 6.7%, 6.2%, 6.8% 등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신흥 개도국에 속한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열대과일, 커피 등이며 합판 등 임산물 이외에 커피, 바나나·망고 등 과실, 캐슈넛 등을 수출하는데, 이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다른 국가의 생산, 수출 품목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은 아세안과의 협력의 핵심이자 기반이 된다. 가령 농업분야 개발협력 분야에서 베트남 농업발전을 위해 배추, 고추 등 농산물의 현지 구매와 가공 및 수출(가령 김치), 농기계, 농산물 가공설비, 시설농업 설비 등 국산 농자재의 진출이 증가하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도 유사한 협력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Doi Moi’)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이 추구한 경제정책을 향후 남북한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관계수립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북한이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은 국가로,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이 진행된 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를 향후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한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가 남북한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베트남 농업의 발전과정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베트남과의 경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시사점 발굴을 위해 중장기 한-베트남 농업 분야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 나. 목적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베트남과의 통상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이를 뒷받침하는 ODA, 즉 개발협력 개선방안과 연계되어 통합적인 협력전략이 수립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주요 협력 추진분야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 가. 선행연구

베트남 혹은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 동남아 권역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이한우(1998)는 탈집단화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75~1993 기간의 베트남 농업개혁 과정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베트남 통일 이전 북부 및 남부 지역 농촌의 사회경제적 유산을 토대로 통일 이후 두 지역의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개괄한데 이어 도이머이(Doi Moi) 이전(1979~1988)과 이후(1988~1993)의 탈집단화 농업개혁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중국의 탈집단화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 모델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sup>5)</sup>

김미정(2002)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통일 후 발전전략의 실패에서 찾고 개혁·개방 추진 과정을 정치부문과 경제부문(금융, 재정, 국유기업, 농업)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정치적 안정, 높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안정, 농업생산 증가, 재정구조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로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sup>6)</sup>

김태윤 외(2012)는 메콩 유역국과 지역협의체의 개발협력사업 현황과 중점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를 검토하고, 베트남 등 5개국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수자원개발과 농업, 농촌개발 연계 및 인적 자원개발의 연계 등 한강선언(2011.10)에서 제시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6개 개발협력 우선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였다.<sup>7)</sup>

---

5) 이한우(1998).

6) 김미정(2002).

김한성 외(2015)는 수원국(베트남 등)과 공여국 간의 무역활성화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통하여 무역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확대 측면에서 AFT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법론상으로 이 연구는 국가간 교역량의 무역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인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AFT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1995~2013 수원국의 수출량 기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sup>8)</sup>

김경필 외(2017)는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 특성 및 구입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현지시장 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공급상 애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정책에서 개선할 사항과 수출촉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의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 바이어 및 소비자의 소비 특성을 감안한 수출증대 추진 등을 과제로 제안하였다.<sup>9)</sup>

이상민(2013)은 현시비교우위(RCA)지수, 시장별 비교우위(MCA)지수, 무역특화지수(TSI) 등 지수를 적용하여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 동향 및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베트남 FTA에서의 임산물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임산물의 경쟁력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임산물 가운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3개 품목이며, 베트남은 11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교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 결과를 보면, 현행 관세율을 고려할 경우 제재목과 합판 등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관세인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

7) 김태운 외(2012).

8) 김한성 외(2015).

9) 김경필 외(2017).

한다고 제안하였다.<sup>10)</sup>

한편, 김상현 외(2018)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산 농식품 구입의향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평균 수입식품 소비액,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도, 가격대비 품질 등이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sup>11)</sup>

지성태 외(2015)는 무역특화지수(TSI), 시장비교우위지수(MCA), G-L지수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농산물 교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對 아세안 농산물 수출과 수입특화 품목 수가 FTA 발효 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산 농산물 품목 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 발효 전 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지수 분석 결과 각 국가 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산업 간 무역이 FTA 발효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홍식 외(2018)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 등 신남방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ODA가 경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베트남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와의 교역, 개발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 중국의 ODA 정책을 살펴본 뒤, GVC와 ODA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ODA가 GVC 확대에 기여하며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같이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대시킨다는 점을 밝혔다.<sup>13)</sup>

---

10) 이상민(2013).

11) 김상현 외(2018).

12) 지성태 외(2015).

13) 이홍식 외(2018).

OECD·WTO(2013)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고용 및 빈곤감소를 위해 가치사슬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개발,’ ‘지역내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무역 비용 감소’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AfT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쟁력 강화,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 많은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가계와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는 향후 AfT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화와 구조 변화가 국가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15)</sup>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시장의 안정화·자유화·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여 무역 자유화의 성공 모델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sup>16)</sup> 그러나 Magrini et al.(2018)이 수행한 가계 단위의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단위에서는 무역 확대에 따른 위험(가격 불안정)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저축과 신용, 보험 등의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액금융을 통해 저축과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 기반의 위험 공유, 신용 접근성 개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 나. 연구 차별성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내용상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

14) OECD·WTO(2013).

15) OECD·WTO(2019).

16) Heo and Doanh(2009).

17) Magrini et al.(2018).

기존의 한-아세안 혹은 한-베트남 교역 연구는 교역현황 자료 혹은 소비현황 자료 등 통계,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통계분석 등 현황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중장기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하는데 부족하였다.

둘째, 베트남에 대한 원조 전략, 즉 국가협력전략(CPS)은 인프라, IT 등 위주로 중점분야가 제시되어 있어서, 베트남 농업, 농촌개발을 위한 ODA 성과 평가, 베트남 농정당국의 개발전략에 대한 평가와 검토에 입각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다.

셋째,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체제개혁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부문의 시장화 및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이 연구는 농업부문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對 베트남 경제 및 개발 협력 정책을 중장기 전략 아래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정책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농축산물 수출을 포함하여 FTA 등 농업부문에서의 통상과 교역 문제와 농업 및 농촌개발 ODA의 과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연계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최신자료에 의한 통계분석 이외에도 베트남 농정담당자와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주 베트남 한국 공공기관(KOICA, KOPIA 등)과 베트남 진출 민간업체 등과의 면담으로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도록 한다.

셋째, 연구결과에 대한 베트남 공공기관 및 국가, 분야 전문가로부터의 피드백을 전략수립에 반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전략수립을 지향한다.

요컨대, 한-베트남 관계가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농업부문에서의 협력을 교역과 원조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한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과의 농업협력 정책간의 연

계를 통한 효과적, 효율적 전략을 도출하여 제안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 3. 연구내용과 방법

#### 가.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들을 소개한다. 특히 1970년대 통일 이후 각종 경제정책과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뒤의 농업분야 관련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발전전략 등 주요 국내정책들이 목표 등을 정리, 소개한다.

제3장은 경제협력의 동향과 과제를 통상과 글로벌 가치사슬, 민간업체의 진출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우선 한-베트남 FTA 체결과 교역의 현황을 소개하고 베트남에 대한 농식품 수출시장을 진출여건, 품목별·국가별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한국과 베트남, 나아가 아세안 역내에서의 국제분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에서의 쟁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아울러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 민간업체의 베트남 진출 현황과 신남방정책 등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제4장은 개발협력에 관한 부분이다.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협력 전략을 살펴보고, 개발협력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사업추진 절차 등 여건을 파

악한다. 아울러 ODA 수원현황과 주요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하여 농업분야 지원이 베트남 무역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우리나라, 베트남 양국의 교류 협력 현황으로부터 향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과 민간의 해외농업자원개발, ODA 등의 방향을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포함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세부 협력 추진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소개한다.

끝으로 제6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등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 나. 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문헌을 수집하고 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련 통계와 북한관련 통계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발간자료와 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 FAO의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등의 DB를 활용하였다. ODA 통계는 OECD의 OECD.Stat DB와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하노이 시(7.23~26, 10.23~24), 호치민 시 및 인근 람동성과 달랏시(10.21~22)에 있는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공기관으로는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국립농업계획전망연구원(National Institute on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과 산하의 베트남 경제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VIE) 등이며, aT의 베트남 지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한



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사무소 등 주 베트남 한국 공공기관도 방문하였다. 민간업체로는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워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CJ와 KBIL Vina 등 우리나라의 농식품 관련 생산·가공업체, 그리고 베트남 안다오(Anh Dao) 협동조합 농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원내의 보고회를 통한 자료 및 의견 수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과제관리 시스템에 따른 검토위원으로부터의 자문의견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연구기간 중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sup>18)</sup>에서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확대를 위한 분야를 발굴, 제시한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인 베트남으로의 수출 유지와 촉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부와 aT의 농식품 수출촉진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농업개발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가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 원조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증대하고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의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 개혁·개방 농정으로부터 남북한 농업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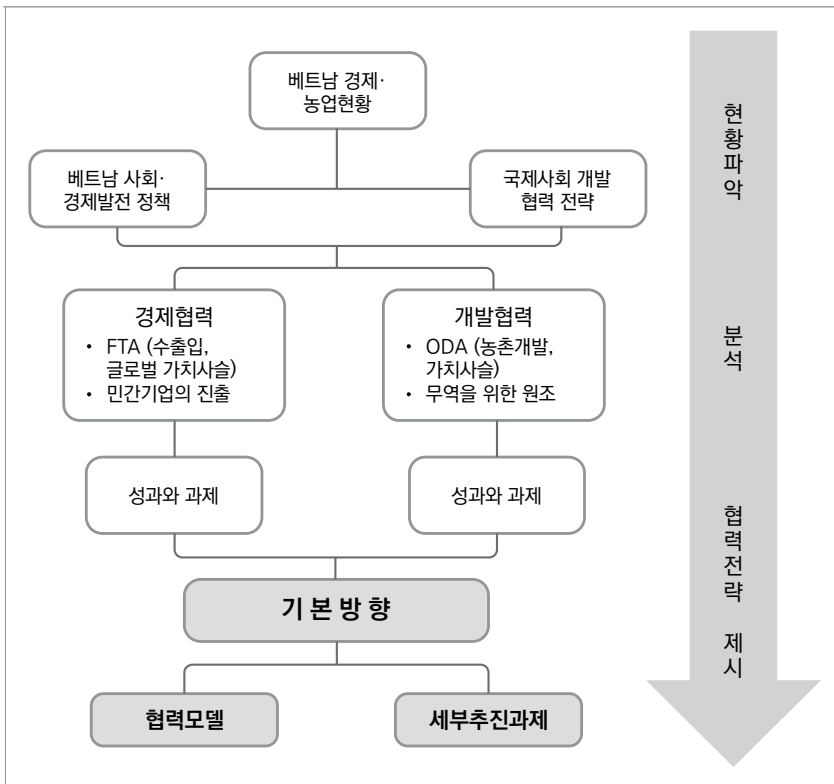
---

18) 2019. 7.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베트남외교부국경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수 기관에서 참여함.

출하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의 농업분야 남북협력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신남방정책, 한-아세안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등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별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2019년 11월에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한-메콩정상회의 등의 후속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 제2장

K

#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3. 국가경제발전 정책



#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 가. 일반 현황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통킹만,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남서쪽으로 타이만과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접해있다.

그림 2-1. 베트남 지도



자료: Lonely Planet, <https://www.lonelyplanet.com/maps/asia/vietnam/>(검색일: 2019.12.20.).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S자 모양으로 뻗어 있으며, 국토 면적은 33,124km<sup>2</sup>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5배 수준이다. 베트남의 남북 총 길이는 약

1,750km로 길게 뻗어있는 반면, 동서의 길이는 가운데 가장 좁은 지역이 약 50km에 불과할 정도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베트남 북부지역은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남부지역은 열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베트남 동북부 지역은 대부분 산지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45.0%는 임야가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농경지 면적은 34.7%이다. 특히, 홍강 삼각주, 메콩강 삼각주, 남동부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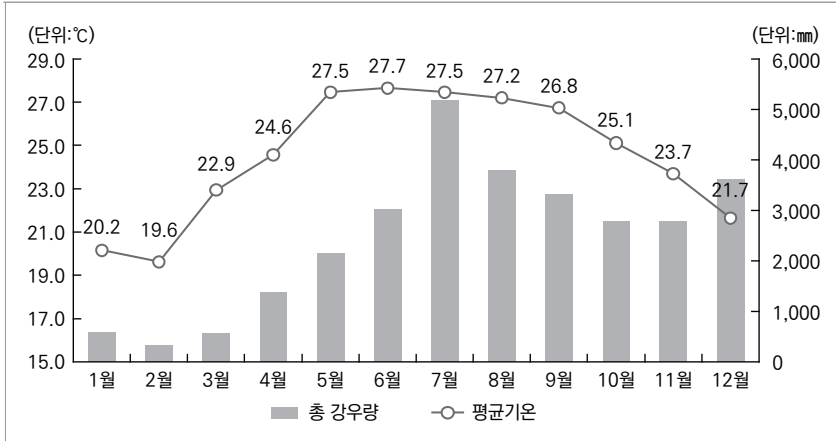
표 2-1. 베트남의 지역별 토지이용

단위: 천 ha					
구 분	전체 면적	농경지	임야	특수목적 토지	주택부지
전체	33,123.6	11,508.0	14,910.5	1,874.3	714.9
	100.0%	34.7%	45.0%	5.7%	2.2%
홍강 삼각주지역	2,125.5	791.7	493.7	320.7	145.9
	6.4%	37.2%	23.2%	15.1%	6.9%
북부 산악지역	9,520.3	2,121.0	5,396.7	329.5	112.0
	28.7%	22.3%	56.7%	3.5%	1.2%
북부·중부 해안지역	9,565.5	2,195.0	5,750.8	559.8	187.8
	28.9%	22.9%	60.1%	5.9%	2.0%
중앙 산악지역	5,450.9	2,421.3	2,489.5	194.9	59.7
	16.5%	44.4%	45.7%	3.6%	1.1%
남동부지역	2,352.0	1,359.8	502.7	223.9	82.3
	7.1%	57.8%	21.4%	9.5%	3.5%
메콩강삼각주지역	4,081.4	2,618.1	253.6	245.4	127.2
	12.3%	64.1%	6.2%	6.0%	3.1%
기타	28.0	1.1	23.5	0.1	-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18).

베트남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고 평야 및 고원지대가 혼재되어 있어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 등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는 아열대성 기후로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며,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과 메콩 삼각주 지역은 열대성 기후여서 평균기온이 27.7℃로 계절의 구분이 없고, 우기(5~11월)와 건기(12~4월)로 나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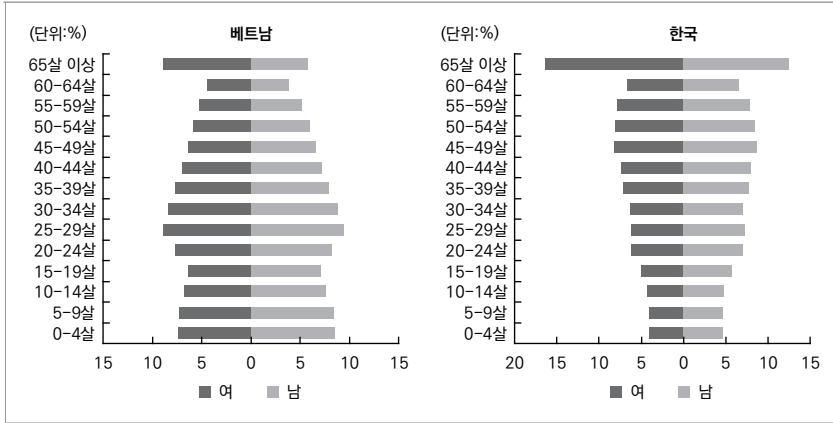
그림 2-2. 베트남의 평균 기온과 총 강우량(2018)



주: 평균기온은 15개 지역의 평균 기온을 평균한 수치이며, 총 강우량은 15개 지역의 강우량을 합한 수치임.  
 자료: General Statistics of Vietnam(2018).

베트남 전체 인구는 2018년에 9,554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으며, 우리나라의 약 1.8배 수준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text{km}^2$  당 308명으로 한국(530명)에 비해 낮다.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20~3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한국(27.7%)보다 약 6.0%p 높으며, 인구 구조는 전형적인 도시 형태로서 청소년과 노년인구에 비해 생산가능 인구가 더 많다. 베트남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5-29세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 60-64세는 4.2%로 가장 낮다.

그림 2-3. 베트남과 한국의 연령별 인구비중(2018 기준)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2019). DB(검색일: 2019. 8.11).

## 나. 경제 현황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다소 위축되었던 적이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산업 고도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인한 교역 확대 등과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점차 회복되면서 2018년에는 7.1%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베트남의 실질 GDP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4%씩 증가하여 2018년에 1,87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GDP의 13.5% 수준이다.

표 2-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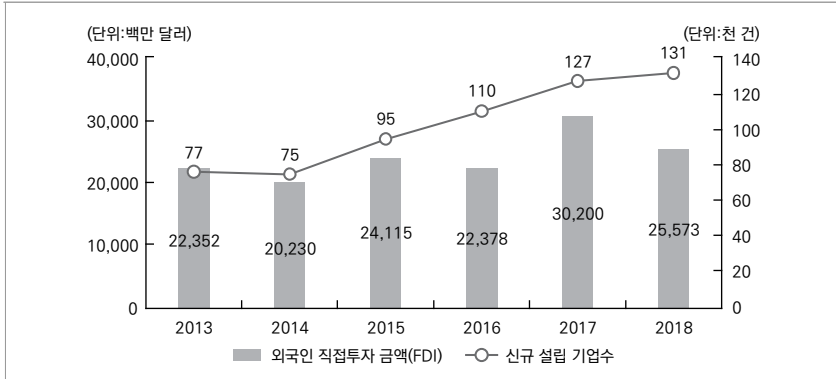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천명	89,802	90,753	91,715	92,677	93,639	94,597	95,540
명목 GDP	억 달러	1,558	1,712	1,862	1,932	2,053	2,238	2,449
실질 GDP	억 달러	1,296	1,367	1,448	1,545	1,641	1,753	1,877
GDP 성장률	%	5.2	5.4	6.0	6.7	6.2	6.8	7.1
1인당 명목 GDP	달러	1,443	1,506	1,579	1,667	1,753	1,853	1,964
1인당 실질 GDP	달러	19	18	18	17	16	15	15
수출액	억 달러	1,247	1,432	1,609	1,735	1,922	2,273	2,337
수입액	억 달러	1,192	1,395	1,548	1,720	1,869	2,211	2,257

주: 각 연도별 실질 GDP는 20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값이며, 총 수출입액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액을 나타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2019). DB(검색일: 2019. 8. 11).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23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56억 달러로 약 33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FDI를 통한 신규 설립 기업 수도 2013년 7만 7,000 건에서 2018년 13만 1,000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제정비,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4.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신규 기업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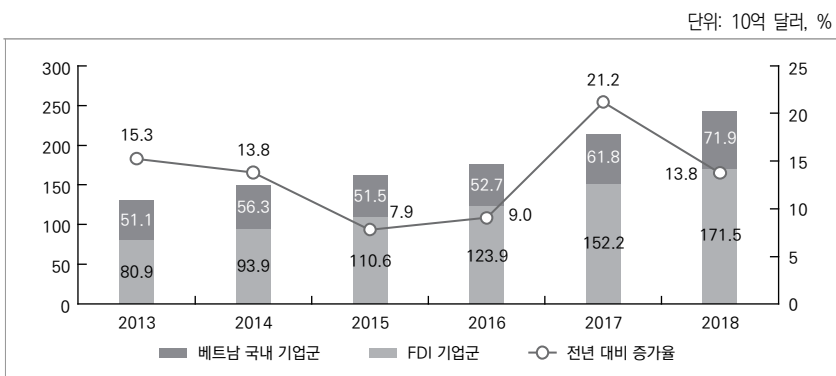


주: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베트남 통계청 추정치임.

자료: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검색일 2019.10.20.~23)

특히 2018년도 베트남의 수출액은 FDI 기업군이 1,7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베트남 총 수출액의 73%를 차지해, 베트남의 수출 증대에 FDI 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 국내 기업의 총 수출액은 622억 달러로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2-5. 베트남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



자료: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검색일 2019.10.20.~23).

2018년 베트남 산업부문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상품·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서비스 시장 소매 매출액은 약 1,6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이 늘고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식·여행 수요도 늘어난 결과이다.<sup>19)</sup>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GDP 성장 기여도는 0.36%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베트남 산업별 경제 동향(2018)

단위: %

구분	GDP 성장률	GDP 성장 기여도
1차 산업	3.76	-
농업	2.89	0.36
임업	6.01	0.05
수산업	6.46	0.22
2차 산업	8.85	-
공업	8.79	2.85
제조·가공업	12.98	2.55
광공업	-3.11	-0.23
건설업	9.16	0.65
3차 산업	7.03	-
도·소매업	8.51	0.92
재무·금융·보험업	8.21	0.53
숙박·외식업	6.78	0.29
부동산업	4.33	0.24

주: 베트남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4.6%, 2차 산업 34.3%, 3차 산업 41.2%, 상품·서비스 수입 10%로 구성  
 자료: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검색일 2019.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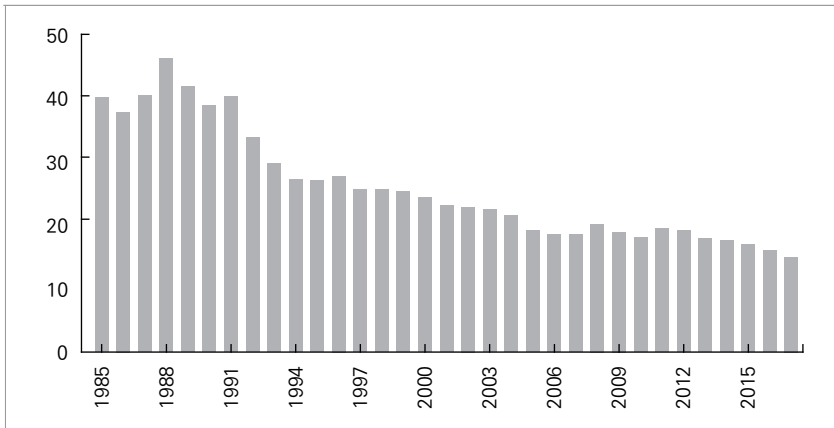
19) 본 내용은 Kotra 해외시장 뉴스의 베트남, 2018년 결산 및 2019 경제전망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 다. 농업 현황

### 1) 농업 GDP

베트남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0.0%에서 2017년 14.8%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베트남 경제구조는 농업에서 서비스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임업과 어업 포함) 평균 부가가치는 1985~2017 기간에 베트남 전체 GDP의 26.1%를 차지하였으며, 농업 분야의 평균 GDP는 2006~2017 기간에 해마다 2.9%씩 증가하였다.<sup>20)</sup>

그림 2-6. 농업부문 GDP 비중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2019). DB(검색일: 2019. 8. 11).

### 2) 농산물 생산

농작물 재배면적은 2005년 1,329만 ha에서 2018년에는 1,502만 ha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중 곡물 재배면적은 861만 ha로 농작물 총 재배

<sup>20)</sup> The World Bank DataBank(2019). DB(검색일: 2019. 8. 11).

면적의 57.3%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다년생 작물(14.8%), 과일(6.6%), 단년생 경제작물(3.9%) 순이다.

표 2-4. 작물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구 분	합계	단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곡물	단년생 경제작물	다년생 경제작물	과일
2005	13,287	8,383	862	1,634	767
2010	14,061	8,616	798	2,011	780
2011	14,364	8,778	788	2,080	773
2012	14,636	8,919	730	2,223	766
2013	14,793	9,074	731	2,111	707
2014	14,809	8,996	710	2,134	799
2015	14,945	9,009	677	2,155	824
2016	15,112	8,891	633	2,346	869
2017	14,902	8,807	612	2,220	928
2018	15,024	8,611	582	2,228	989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9).

베트남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벼는 1년에 3기작(봄, 가을, 겨울)이 가능하며, 품종은 주로 인디카 벼를 재배하나 자포니카 벼도 전체 재배면적의 10~15%를 차지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2018년에 757만 ha로 2016년에 비해 3.0% 감소했으나,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4,400만 톤, 비율로는 0.8% 증가하였다.

옥수수 생산량은 2000년에 200만 톤에서 최근에는 500만 톤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고품질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은 옥수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카사바는 재배기간이 10~12개월로 길어 1년에 1기작 재배를 하고 있고, 2000년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낮은 가격으로 인해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채소류와 과실류는 재배면적

이 2018년에 각각 96만 ha와 95만 ha이고 여기에서 1,710만 톤과 880만 톤이 생산되었다.

표 2-5.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2018)

	재배면적 (백만 ha)	재배면적 증감률(%) (2016년 대비)	단수 (톤/ha)	단수 증감률 (2016년 대비)	생산량 (백만 톤)	생산량 증감률 (2016년 대비)
벼	7.57	-2.95	5.81	3.75	44.00	0.77
옥수수	1.09	-5.22	4.71	4.67	5.13	-1.35
카사바	0.53	-7.02	19.55	2.89	10.36	4.95
채소	0.96	5.49	-	-	17.10	6.88
과수	0.95	-	-	-	8.80	-

자료: KOPIA 베트남 센터(2019).

베트남은 연간 16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는 동남아 최대 커피 생산국가임과 동시에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커피 수출국이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대부분은 타이응옌(Thai Nguyen) 성과 닥락(Dak Lak) 성에서 생산된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Robusta) 커피를 재배하고 있으며, 아라비카(Arabica) 커피는 북서부 선라(Son La) 성 등 고지대에서 소량 재배되고 있다. 캐슈넛은 연간 26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세계 1위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내 원료 캐슈넛 부족으로 오히려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출액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 고무는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수출량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베트남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고무 공급 비중은 크지 않지만, 경작지 확대와 고무가가치 제품 기술개발 등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 밖에도 차와 후추는 2018년에 각각 98만 톤과 25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표 2-6. 베트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생산 현황(2018)

단위: 백만 ha, 백만 톤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차	0.123	0.987
커피	0.688	1.620
고무	0.965	1.140
후추	0.149	0.255
캐슈넛	0.302	0.261

자료: KOPIA 베트남 센터(2019).

### 3) 농산물 교역

베트남의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고, 지난 10년 동안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2-7. 베트남의 농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10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1~11월
농·임·수산물 수출액	주요 농산품	13.7	15	13.1	14.5	14	15.1	19	18.1
	수산물	6.1	6.2	6.7	7.9	6.5	7	8.3	8.1
	임산물	4.1	4.9	5.7	6.5	7.1	7.2	8	8.6
	기타 농산물	1.1	1.5	2.0	1.9	2.6	2.8	1.1	1.5
	소계	25	27.5	27.5	30.9	30.1	32.1	36.4	36.3
농·임·수산물 수입액		15.9	16.9	18.8	21.8	23.1	24.5	27.8	28.8
무역 수지		9.1	10.6	8.6	9	7.1	7.6	8.6	7.5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9).

베트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363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2018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총 10개이며, 3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5개(새우, 과일·야채, 캐슈넛, 커피, 목재와 목재 제품)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18년 베트남의 어업 규정 위반에 따른 EC (European Commission)의 ‘옐로카드(생산규정 미준수, 보고서 누락 및 권리 미흡)’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sup>21)</sup>를 달성하였다.<sup>22)</sup>

표 2-8. 베트남의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10억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1~11월
쌀	3.2	3.7	3.7	3	3.0	2.9	2.2	2.7	2.9
커피	1.7	2.7	3.7	2.8	3.6	2.6	3.4	3.2	3.3
고무	2.3	3.3	2.9	2.5	1.8	1.5	1.7	2.3	1.9
녹차	0.2	0.2	0.2	0.2	0.2	0.2	0.2	0.2	0.2
캐슈넛	1.1	1.5	1.5	1.6	2	2.4	2.8	3.5	3.1
후추	0.4	0.7	0.8	0.9	1.2	1.3	1.4	1.1	0.7
목재와 목재로 만든 제품	3.4	3.9	4.7	5.4	6.2	6.8	6.9	7.6	8.2
수산물	4.9	6.1	6.2	6.7	7.9	6.5	7	8.3	8.1
과일·채소								3.5	3.5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1.4	1.1	1.1	1.3	1	1.0	0.9
총계	17.3	22.1	25	24.2	27.1	25.4	26.6	33.4	32.8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9).

2018년에는 베트남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미얀마, 미국과 뉴질랜드 등으로 신규 농산물을 수출하였다. 중국에는 돼지고기, 우유, 쌀, 수산물, 말레이시아에는 쇠고기, 싱가포르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을 신규로 수출하였다. 또한, 일본에는 닭고기, 미얀마에는 냉동 돼지고기, 미국에는 카이니토 과일, 뉴질랜드에는 란부탄, 유럽에는 패션프루트 등을 수출하였다.<sup>23)</sup>

21) 2018년 수산물 연간수출액은 베트남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https://www.dag.vn/article/xuat-khau-nong-san-2019-lap-ky-luc-voi-nhung-quot;ngoi-saoquot;-ty-do-118-653795-2.da>(검색일: 2019. 09. 24).

22) 미국은 2018년 하반기에 새우 및 메콩메기에 대한 덤핑 관세를 낮추어 이 두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높은 국가(지역)는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한국 등인데, 그 중에 중국의 수출액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국, 아세안 순으로 높다. 2018년 1~11월 기간 동안 5개국(지역)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219억 2,000만 달러로 베트남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월 14일 CPTPP가 발효되면서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베트남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 변화

시장	2018년 1~11월 수출액(10억 US 달러)	2017년 대비 변화율(%)
아세안	3.5	34.1
한국	2.3	26.4
중국	7.4	3.6
미국	5.8	9.4
일본	3.0	7.1
총계	21.9	80.6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9).

주요 수입 농산물은 사료, 사료 원자재, 캐슈넛, 목재, 목재제품, 과일, 채소, 옥수수, 고무, 비료, 밀, 농약, 농약 원자재, 메주콩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들의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3)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동향(이현근 외 2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2-10. 베트남의 주요 농산물 수입 동향

단위: 10억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1~11월
비료	1.3	1.8	1.7	1.7	1.3	1.4	1.1	1.3	1.1
농약품 및 원자재	0.5	0.6	0.7	0.8	0.8	0.7	0.7	1	0.9
목재 및 목재 제품	1.1	1.3	1.4	1.7	2.2	2.1	1.8	2.2	2.1
밀	0.6	0.8	0.7	0.6	0.6	0.6	1.0	1	1.2
사료 및 원자재	2.2	2.3	2.5	3	3.2	3.4	3.4	3.2	3.6
고무			0.8	0.7	0.7	0.6	0.7	1.1	1.0
수산물			0.7	0.7	1.1	1.1	1.1	1.5	1.6
과일 및 채소								1.6	1.6
캐슈넛			0.4	0.6	0.7	1.1	1.6	2.5	2.3
메주콩			0.8	0.8	0.9	0.8	0.7	0.8	0.7
옥수수				0.7	1.2	1.6	1.6	1.5	2
소계	5.7	6.8	9.7	11.2	12.6	13.4	13.8	17.6	17.8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9).

#### 4) 농업, 농촌 인구

베트남의 농업 종사자 수는 2005년에 2,356만 명, 2010년에는 2,428만 명, 2017년에는 2,157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2000년대 이후 농업 인구의 노동 생산성이 비록 타 부문에 비해 낮은 하지만 2005~2017년 기간에 연평균 3.7%씩 증가하였다. 농업 노동력 1인당 연간 생산성은 2005년 1,455만 동(VND)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679만 동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237만 동까지 늘었다.<sup>24)</sup>

24)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표 2-11. 베트남 농업 종사자 수 및 생산성 현황

연도	농업 종사자 수(천명)	생산성(백만 동)
2005	23,563	14.55
2010	24,279	16.79
2011	24,363	17.41
2012	24,357	17.88
2013	24,440	18.29
2014	24,409	18.51
2015	23,259	19.88
2017	21,565	22.37
연평균 증감률(%)	-0.74	3.65

자료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베트남 농촌 인구는 2018년에 약 6,084만 명으로 베트남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하면 약 40만 명이 감소하였다. 베트남 농촌지역 가운데, 베트남 북부, 중부 및 중앙 해안지역에 1,428만 명(23.5%)이 거주하고 있으며,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는 1,325만 명(21.9%), 홍강 삼각주 지역에는 1,285만 명(21.1%)이 거주하고 있다.<sup>25)</sup>

##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 가. 경제체제 개혁·개방 과정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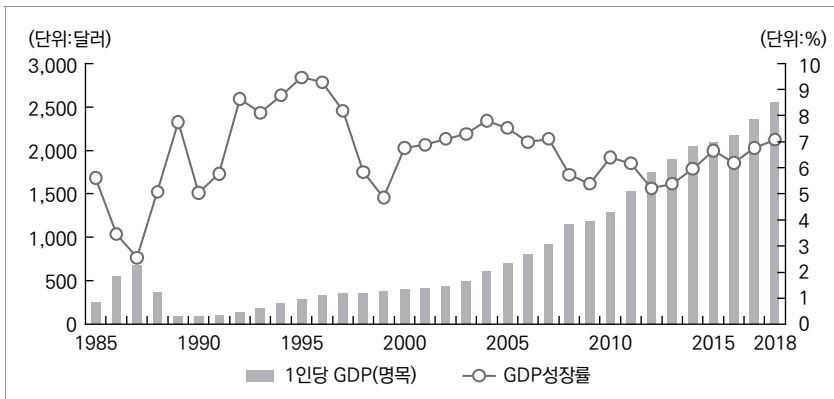
#### 1) ‘도이머이’의 도입 배경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개혁

2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하고 대외 개방을 과감히 추진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sup>26)</sup> IMF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경제체제 개혁·개방 이후 1986~2018 동안 연평균 6.6%의 고속 성장을 구가했으며, 2021년에는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7.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변화 추이(1985~2018)



자료: IMF DB,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VNM?zoom=VNM&highlight=VNM](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VNM?zoom=VNM&highlight=VNM), 검색일: 2019. 10. 27)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은 베트남 공산당이 1986년 12월 개최된 「제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제6차 당대회’)에서 ‘쇄신’이라는 의미의 ‘도이머이(Doi Moi)’ 방침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이머이 이전에도 1979년부터 ‘신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생산청부제, 국유기업 경영자우권 확대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이 추진되기는 했다. 다만 이는 체제내 개혁이었고 도이머이 방침을 계기로 시장지향적 개혁과 대외 개방을 본격화했다.

26) 최근 북미 관계의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부록 7]에서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함.

베트남이 1986년에 본격적인 경제체제 개혁·개방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와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중단감소와 교역 축소 등이 베트남 경제의 발전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었다. 장기(1955~1975)에 걸친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은 사회주의 통일국가인 베트남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상품, 용역 및 기술의 거래나 교류를 금지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했던 구소련이 1985년에 개혁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구소련을 포함한 코메콘(COMECON, 공산권경제 상호원조회의) 국가들의 원조와 교역이 축소되면서 베트남의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베트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구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 40%에 달했다. 1973~1978년 동안 약 9억 달러를 원조했던 중국도 베트남 통일 이후 양국 간 영토문제가 불거지면서 1978년 중반 이후 원조를 중단했다.<sup>27)</sup>

다음으로 대내적인 요인을 보면 미국-베트남전에 이어 1978년에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1979년에는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비 지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베트남 통일 직후인 1976년부터 실시한 제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미진하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79년부터 '신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

'신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수매량을 5년(1981~1985) 동안 고정시키는 한편 개별농가(또는 분조)와 생산량을 계약하는 방식의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했다. 공업분야에서는 국영기업에게 생산·경영주도권과 재정자주권을 부여해 생산·경영자율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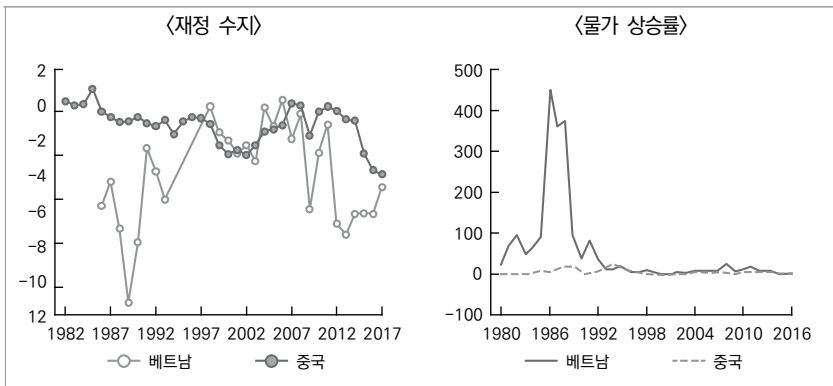
---

27) 이한우(1998). p. 81.

확대하고, 임금제도 개선(청부임금제, 생산량 연동 임금제, 인센티브 지급 등) 조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1985년에는 가격·임금 인상 및 통화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신경제정책’의 실시로 농업분야에서는 증산 효과가 나타나 농산물 생산량이 1979년 1,173만 톤에서 1985년 1,646만 톤으로 연평균 5.8% 증가했다.<sup>28)</sup> 그러나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up>29)</sup>하에서 국영기업의 만성 적자가 심화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폭등하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그림 2-8. 베트남과 중국의 재정 수지 및 물가 상승률 추이



주: 재정 수지는 GDP 대비 비중(%),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기준임.  
 자료: 원지환 외(2018), p. 9.

28) FAO DB, <http://www.fao.org/faostat/en/#data/QC>(검색일: 2019. 10. 27).

29)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야노스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영기업의 비효율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지만 동유럽과 아시아 등 체제전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음. 이 개념의 주요 골자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 조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제약 하에서 비용극소화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예산제약이 연성화되면 의사 결정이나 자원 배분에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Kornai et al., 2003). 체제전환국인 베트남도 국영기업에게 경영자우월권을 확대해주었지만 연성예산 제약하에서 적자가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한 적자 보전으로 재정 수지도 악화되었음.

## 2) 개혁·개방의 진행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은 1986년 도이머이 방침 채택을 시작점,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수립과 2007년 WTO 가입을 전환점으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지환 외(2018)는 각 단계를 도입기, 전환기, 정착기, 이해정 외(2018)은 각각 도입기, 발전기, 개방체제 확장기로 명명했다.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2〉 참조).

표 2-12. 베트남의 주요 경제체제 개혁·개방 조치

구분	연도	주요 조치	주요내용
도 입 기	1986	<b>도이 머이(Doi Moi) 방침 채택</b>	5대 원칙 - 생산효율성의 제고, 장기적 경제정책의 수립, 시장경제와의 조화, 개방정책의 추진, 자주적 독립 경제 구축
	1987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법 제정 외국투자법 제정 가격자유화 실시	국영기업 경영자율성 확대 외자 전액출자의 인정, 외국기업 자산의 국유화 금지 1989년까지 추진(전력, 석유, 철강, 운송 등은 제외)
	1988	토지법 공포 수출입관세법 제정 각종 규제 완화	농가의 토지사용기간 연장(5년→15년) 관세 도입 민간기업 규모제한 철폐, 고용 자유 허용
	1989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설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제 확립 국유부문의 보조금 전면 철폐	외국인 투자 감독관청 쌀 배급제 폐지 등
	1990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민영기업법 제정	투자자, 조세감면기준 등 기존법규 보완 민영기업 공식 인정
	1991	수출가공지역(EPZ)의 설치 법안을 마련	호치민, 하이퐁
	1992	개정헌법 승인 외국투자법 2차 개정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 외자기업 존속기간 연장(20년→50년)
	1993	농지이용법 제정과 토지법의 개정	개인에게 양도·상속·담보의 권리 이관, 토지 보유기간은 상향조정(15년→20-50년)
	1994	국영총공사 설립 노동법 제정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국영기업의 대형화, 민영화 추진 피고용인, 고용인 권한 보호, 사회보험제도 제재 전면해제 발표

표 2-12. 계속

구분	연도	주요 조치	주요내용
전환기	1995	<b>미-베트남 국교 수립</b> , 아세안 가입 新국영기업법 제정	무역협정 체결 추후 진행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로의 추진
	1996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	투자절차 간소화, 수출활성화 정책 강화
	1998	APEC 가입	러시아, 페루 등과 같은 시기에 가입 (총 21개국)
	1999	기업법 제정(민영기업법과 회사법 통합)	신생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등록제)
	2000	미국과 베트남의 상호무역협정(BTA) 체결 외국인투자법 4차 개정	2001년 12월부터 발효 부가가치세 유예 및 면제, 토지담보권 제공
	2005	투자법, 통합기업법 제정	국영, 민영, 외자기업에 포괄적 적용
	2006	미 의회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승인 아세안-중국 FTA 발효	미 의회 NTR 심사 소멸
정착기	2007	<b>WTO 가입</b>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아세안-한국 FTA 발효	150번째 가입국가, 무역자유화 2008~09년중 비상임이사국(총 5개)으로 활동
	2008	아세안-일본 FTA 발효 베트남-일본 FTA 발효	2010년 6월부터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상 개시 2010년 10월부터 발효
	2010	아세안-인도 FTA 발효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 발효	2010년 1월부터 발효
	2014	기업법, 투자법 개정 베트남-칠레 FTA 발효	외국인 투자 절차의 간소화
	2015	베트남-한국 FTA 발효, 베트남-EU FTA 체결	EU와 FTA 체결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
	2016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FTA 발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2019	CPTPP 발효	2019년 1월부터 발효

자료: 원지환 외(2018). pp. 6-8을 참고하여 재정리.

### 가) 도입기(1986~1994)

먼저 도입기는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농업분야의 주요 개혁 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농가계약제; 1988년), 농산물유통 자유화(1988년),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개혁에 이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는 거래상품에 대한 가격자유화(1989년), 민영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영기업법 개정(1990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명시한 개정헌법이 통과(1992년)됨으로써 시장경제의 지위를 법률적·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1987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는 수입 원료를 임가공해 전량 수출하는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EPZ)를 설립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경제의 커다란 성장 제약요인의 하나였던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상품 교역과 투자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경제 개발과 성장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 나) 전환기·발전기(1995~2006)

전환기에는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 미국과 1995년에 국교를 수립하고 2000년에는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995년과 1999년에는 각각 아세안과 APEC에 가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주요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폐합을 단행하고 18개 부문의 기업집단인 국영총공사를 설립했다(1994~1996). 1995년에는 새로운 국영기업법을 제정해 국영



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 다) 정착기·개방체제 확장기(2007~현재)

2007년 WTO 가입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정착기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국내의 산업 및 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FTA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영토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9년 11월 기준 칠레(2014.1.1.), 한국(2015.12.20.),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6.10.5.), 일본(2018.10.1.), CPTTP(2018.12.30.) 등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이며, EU(2015.12.1.)와는 FTA 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베트남은 2014년 자국 교역 및 투자 여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법과 투자법을 개정했다.

## 나. 농업개혁 과정 개관

### 1) ‘신경제정책’하의 농업개혁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개방의 단초는 농업개혁이었다. 도이머이 방침이 채택되기 이전 체제내 개혁의 성격을 지닌 ‘신경제정책’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핵심이었다. 농업분야에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안된 인센티브는 정부의 농산물 구매가격 인상과 구매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탈집단화의 단초가 된 농업생산책임제(생산량도급)의 도입이었다.

농산물 구매가격의 인상과 구매방식의 다양화가 개혁 조치로 등장한 배경은 베트남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에서 나타난 한계 때문이다. 195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사회주의체제가 된 북부지역은 여느 사회주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초급합작사와 고급합작사를 통해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이후 노동의 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정체, 관리조직의 비

대화와 부패, 공동자산의 관리 소홀, 사경제 영역의 확대, 불법적 농업생산책임 제 시행 등 집단농업의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sup>30)</sup>

한편 통일 이후 사회주의체제가 된 남부지역은 농민들의 저항으로 1978년부터 추진된 농업집단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1986년에 이르러서도 초급합작사 가입률이 58%에 달하고 고급합작사 가입률은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sup>31)</sup>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가입하고 실질적으로는 개별경영을 유지하거나, 실제로 가입했다라도 자신의 토지에서 자의적으로 생산·경영하는 농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2)</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 이후 베트남 정부는 식량생산 감소와 남부 농민들의 저항 등으로 농산물 공공배급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인 정부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 조치가 바로 농산물 구매가격 인상과 구매방식 다양화였다. 1980년 이후 농산물 구매가는 평균 5배 인상되었고, 구매방식은 의무구매량을 과거 5년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5년간 고정하고, 자유시장 가격에 연동하는 협의가격 구매 및 계약구매 방식이 추가되었다.

농산물 구매가격의 인상과 구매방식의 다양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식량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 증산을 유인할 목적으로 1981년 도입한 것이 집단농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별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생산책임제이다. 합작사-생산대-농가의 생산조직체계 내에서 생산대가 농가(또는 분조)에 토지를 배분하고 다양한 계약방식을 통해 생산량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량은 수확 후 생산대에 납부하여 노동점수를 받아 생산물로 분배받고, 계약량 초과분은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국이 농업개혁 초기 도입했던 포산도호(包产到户) 또는 포산도조(包

---

30) 이한우(1998). pp. 45~53.

31) 이한우(1998). p. 66.

32) 이한우(1998). pp. 66~67.

产到组) 방식과 유사하다.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생산책임제 실시 이후 식량증산 효과는 주로 북부지역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쳤다. 남부가 북부에 비해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남부지역이 농업집 단화에 대한 저항으로 농가경영 방식이 광범위하게 잔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생산책임제의 인센티브 효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수매정책 및 유통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sup>33)</sup> 농산물 수매 유인 조치와 농업생산 책임제의 실시가 맞물려 정부의 식량 수매도 1980년 198만 톤에서 1983년 373만 톤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또다시 수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집단농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던 북부지역의 식량 생산 둔화가 주요 원인이었다.<sup>34)</sup>

표 2-13. 베트남의 식량생산량(벼 환산량) 변화 추이(1979~1988)

연도	식량 생산량(천 톤)			전년 대비 증가율(%)		
	북부	남부	전국	북부	남부	전국
1979	6,290	7,694	13,984	0.8	27.7	14.0
1980	5,997	8,409	14,406	-4.7	9.3	3.0
1981	7,038	7,967	15,005	17.4	-5.3	4.2
1982	7,715	9,114	16,829	9.6	14.4	12.2
1983	7,450	9,536	16,986	-3.4	4.6	0.9
1984	7,475	10,326	17,801	0.3	8.3	4.8
1985	7,593	10,607	18,200	1.6	2.7	2.2
1986	7,988	10,692	18,680	5.2	0.8	2.6
1987	7,620	9,943	17,563	-4.6	-7.0	-6.0
1988	8,369	11,214	19,583	9.8	12.8	11.5

자료: 이한우(2018), p. 106.

33) 이한우(1998), pp. 105~106.

34) 이한우(1998), pp. 107~108.

## 2) 도이머이 정책에서의 농업개혁

베트남 공산당이 1986년 12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 방침을 채택한 이후 농업분야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조치는 농업경영책임제(경영도급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제6차 당대회에서 농업집단화에 저항이 심했고 집단화 실적도 저조했던 남부지역의 농업집단화 중지를 결정한데 이어 1988년 4월 당 정치국 10호 결의(농업경제 관리의 쇄신에 관한 정치국 결의)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경영책임제는 집단조직(합작사 등)이 먼저 농가에게 가족 수에 비례해 농지를 배분한 뒤 나머지는 자금동원력이 있는 농민들이나 농업경영 유경험자들이 영농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찰에 의해 배분하고 15년 사용을 보장했다. 토지사용권 보장 기간은 1993년 제정된 신토지법에서 1년생 작물 경작지의 경우 20년, 다년생 작물 경작지의 경우 5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권리 행사 범위도 교환, 이전, 임대, 상속, 저당 등 5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1994년에는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발급해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법률·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했다. 농업경영책임제에서 집단조직과 농가간 도급계약 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농가가 생산량의 40% 이상 분배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sup>35)</sup>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89년부터 이증가격제를 폐지하고 상품 유통의 자유화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주의 분배체계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산물 의무수매도 폐지되었다.<sup>36)</sup>

개별농가에 농업경영 전반을 도급 주는 농업경영책임제는 생산량을 도급 주는 농업생산책임제에 비해 인센티브가 더욱 강력한 전면적인 탈집단화 조치로 중국의 포간도호(包干到户)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책임제의 도입은 개별농가가

35) 이한우(1998). pp. 107~108.

36) 이한우(1998). p. 125.

독립적인 생산·회계단위로 자리매김되어 농업생산·경영제도가 집단경영제에서 개별농가경영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합작사 등 농업 집단화 조직은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의 농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포산도호(包产到户)·포산도조(包产到组) → 포간도호(包干到户) → 인민공사 해체(1984년)의 탈집단화 경로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베트남의 농업경영책임제는 1988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1989년까지 북부와 중부의 집단농장 중 95%가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남부에서는 통일 이후 농업의 집단화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왔던 개별농가경영이 공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sup>37)</sup>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제도 전환의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14. 베트남의 식량생산량(벼 환산량) 변화 추이(1986~1993)

연 도	식량 생산량(천 톤)			전년 대비 증가율(%)		
	북부	남부	전국	북부	남부	전국
1986	7,988	10,692	18,680	5.2	0.8	2.6
1987	7,620	9,943	17,563	-4.6	-7.0	-6.0
1988	8,369	11,214	19,583	9.8	12.8	11.5
1989	8955	12561	21516	7.0	12.0	9.9
1990	8449	13040	21489	-5.7	3.8	-0.1
1991	7835	14155	21990	-7.3	8.5	2.3
1992	9701	14513	24215	23.8	2.5	10.1
1993	10798	14704	25502	11.3	1.3	5.3
1987	7,620	9,943	17,563	-4.6	-7.0	-6.0
1988	8,369	11,214	19,583	9.8	12.8	11.5

자료: 이한우(2018: p. 125).

37) 이한우(1998), p. 123.

이상 197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 본격 추진된 베트남의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 모델이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 베트남의 농업 개혁 과정도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개혁 과정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록 7〉참조).

### 3. 국가경제발전 정책

#### 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sup>38)</sup>

베트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개발전략인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수립하고, 현대화된 사업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둘째, 고급인력 육성, 셋째, 인프라 확충 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사회경제개발전략은 사회·경제의 개발 분야에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빠른 발전, 2) 부국강병, 민주주의 평등의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베트남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및 정치의 포괄적인 개혁, 3) 민주주의 실현 및 인간 중심의 개발 목표 설정, 4)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력 강화, 5)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통합에 맞서 자주적이고 자제력 있는 국가 경제 건설 등 5개의 중점 발전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개발 전략목표는 생산과 관련된 노동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기반의 시장경제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 효율성과 품질 향

---

38) Vietnam Government(N.d.).

상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모델 도입, 2)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환, 3) 기업과 시장경제의 재구조화 등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및 베트남 기업의 생산과 상품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증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SEDS를 통해 202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평균 7~8%씩 GDP 성장, 2010년 대비 GDP 2.2배 증가(PPP 기준), 1인당 평균 GDP 3,200달러 달성 등의 세부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 변환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농업의 경우, 농업·농촌 노동인구의 비중이 30~35%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도시화율은 45% 이상이 되고 신농촌기준(New Rural Standard)을 만족하는 농촌 면(commune)은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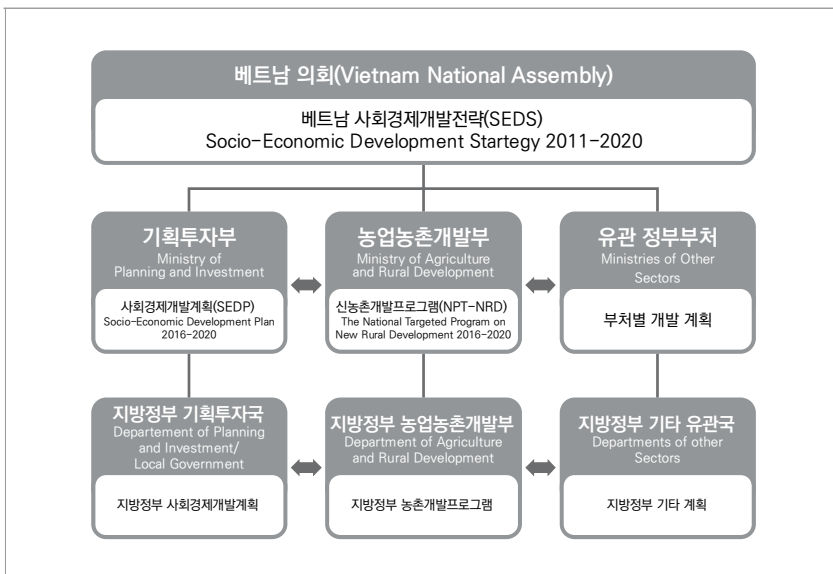
또한, 2020년까지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을 45%까지 넓히고 모든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수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0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친환경 기술 혹은 환경오염을 줄여주거나 폐수를 처리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수상승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나.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16-2020)」은 SEDS의 하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각각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개발 목표로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3,200~3,500달러,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 6.5~7.0%를 설정했으며, 국가 전체 GDP 중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비중을 85%까지 높이고, 사회부문 투자를 GDP의 32~34%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개발 목표로 총 노동 인구 중 농업노동 비중을 2020년까지 40%로 낮추고 도시 실업률은 4%대로 유지,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를 최소 9~10명 확보하고 인구의 80%가 건강보험을 혜택을 누리며, 빈곤률을 1.0~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개발 목표는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을 도시지역에서 95%, 농촌지역에서는 90%까지 확대하고,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면적을 42%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2-9.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사회경제경제개발계획 개요도



자료: 저자 작성.

## 다. 농업 재구조화 정책과 마스터플랜

베트남이 2013년 총리령(899/QD-TTg)으로 발표한 전략서 「부가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 재구조화(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는 향



후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2011~2015 기간에는 농업 성장률 2.6~3.0%, 2016~2020 기간에는 3.5~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 가구소득은 2008년 수준의 2.5배로 증가시킨다.<sup>39)</sup>

베트남은 10년마다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2년에 세워진 마스터플랜은 2011~2020 기간 및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목표치를 거시지표와 작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4.3~4.7%, 농지 1ha당 생산액은 평균 7,000만 VND로 설정되었다.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라. 농업재건프로그램

베트남 「농업재건 프로그램(Agriculture Restructuring Program)」은 2020년까지 농업부문 GDP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각 지역의 비교우위 및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목표치는 1) 농업부문 평균 노동생산성 매년 3.5% 증가, 2) 농업부문 종사인구비율 40% 이하, 3) 전체 농업인의 22%를 대상으로 농업훈련 실시, 4) 농가 소득수준 1.8배 상승, 5) 전체 면(commune)의 50% 이상 신농촌화, 6) 15,000개의 농업협동조합 및 농민그룹 운영, 7) 축산부문 4.5~5% 성장률 달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1)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 2) 국제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도축시설 개선, 3) 가축 약물 및 첨가물 투입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4) 가축

---

39)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no-899-qd-ttg-agricultural-restructuring-towards-raising-added-values>(검색일: 2019. 08. 20).

질병관리 효율성 증진, 5) 가치사슬개발 및 브랜딩 전략 지원, 6) 작물품질개선, 7) 유기농작물 및 기후변화적응작물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마.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정하여 실시되고 있는 「신농촌개발 프로그램(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for 2010~2020, NTP-NRD)」은, 2010년 6월 제정된 총리령(Decision No.800/QD-TTg)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1차 2010~2015년, 2차 2016~2020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표 2-15.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 2010~2020)

1단계(2010~2015)	2단계(2016~2020)
전체 면의 20%에서 국가 설정 기준 충족 • 계획 수립 완료 • 국가 설정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의 촉진 • 지방 공무원 100%가 NRD에 대한 훈련 이수 • 농촌주민 소득 1.5배 증대 • 빈곤가구 8% 이하로 감소	전체 면의 50%에서 국가 설정 기준 충족 • 국가 설정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완료 • 농촌주민 소득 2.5배 증대를 통한 삶의 조건 개선 • 빈곤가구 3% 이하로 감소

자료: 정기환 외(2015).

NTP-NRD는 현대적인 사회경제 인프라, 적절한 경제 구조, 성장산업 및 서비스와 연계된 농업의 발전, 풍요로운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유한 안정적인 농촌사회, 주민의 지식과 정보의 개선, 생태적 환경 보전, 당 이념 아래 정치체계가 강화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아래의 11개 사업내

용을 포함하는 종합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5개 영역 19개 기준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다(〈부록 2〉).

표 2-16. 베트남 신농촌프로그램 사업내용과 기준

사업내용	19개 기준	
- 새 농촌발전 계획	- 계획	- 빈곤가구
-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 교통	- 노동구조
- 농촌경제개발 및 소득증대	- 관개	- 생산조직
- 빈곤감소와 사회적 보호	- 전기	- 교육
- 생산조직의 개혁과 개발	- 학교	- 의료보장
- 교육과 훈련개발	- 문화시설	- 문화적 삶
- 의료보장	- 시장	- 환경
- 농촌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 우체국	- 정치사회체계
- 깨끗한 식수와 농촌 환경	- 주택	- 치안 및 사회질서
- 지방의 당과 정부체계 운영개선	- 소득	
- 농촌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		

자료: 정기환 외(2015).

## 바. 지속가능한 빈곤 경감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빈곤 경감(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프로그램」은 신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열악한 해안지역 94개의 군과 310개의 면(commune)에서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가축, 기본 서비스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1) 연평균 빈곤율을 1.5%씩 낮추며, 2) 2015년 대비 빈곤가정의 1인당 소득을 1.5배 확대하여 빈곤층의 삶의 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3) 빈곤층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빈곤 경감 체계 및 정책

을 이행하는 한편, 4) 신농촌개발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빈곤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 진행에는 Irish Aid, UNDP, OXFAM, CARE, SDC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노동상이군인사회복지부(MOLISA),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소수민족 위원회(CEMA)가 조직한 소수민족빈곤협업조직(EMWG)을 결성하고 베트남 개발파트너십포럼(VDPF)을 열어 2016~2020에 새롭게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작업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 농촌개발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FAO 및 IFAD에서도 신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생산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 제3장

K

PMW

#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 가. FTA 주요 내용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낮은 베트남 자유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베트남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FTA를 이용한 수출 활용률은 한-베트남 FTA 체결 전인 2014년에 37.5%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체결 FTA 평균 수출 활용률(69.2%)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후발 참여국인 CLMV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속해 있어 기존 한-아세안 FTA 참여국(6개국)에 비해 관세인하 기간이 상당히 유예된 상황이었다. 또한, 베트남은 이미 2007년에 일본과 FTA(EPA)를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의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속도가 한-아세안 FTA보다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베트남과 단독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민감·초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를 달성하였고, 위생검역(SPS)과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등 베트남과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농업부문 주요 FTA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한-베트남 FTA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체결하였던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축산물 525개 세번을 대상으로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쌀과 쌀 관련 제품 16개 세번에 대해서는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 협상 품목에서 완전 제외하는 것으로

보호 수준을 높였으며, 그 외 민감 품목 88개와 초민감 품목 34개 등 122개 세 번은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추가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표 3-1).

한-베트남 FTA의 주요 품목별 양허내용은 식량작물의 경우 고구마(385%), 대두(487%)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팥(건조/기타, 420.8%)은 15년 이후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닭간(냉동) 및 기타 설육(냉동, 20%)과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등은 한-베트남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18%), 치즈(커드), 조란(기타 신선란) 등은 3년 철폐, 냉동 삼겹살과 돼지고기는 10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천연꿀(243%)의 경우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한-아세안 FTA의 양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은 관세를 10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파인애플 주스(20%)는 5년 철폐, 과실 혼합물(45~50%)은 10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채소·특작류 중에는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건조 생강(377.3%)과 냉동(27%)·건조(360%) 마늘은 10년 뒤 관세가 완전 철폐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삼(수삼/홍삼/백삼, 222.8%, 754.3%)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들깨(20%)는 3년 철폐로 협상하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김치(20%), 혼합조미료(45%)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식품용 대두유(5%)는 5년 후 관세가 철폐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고구마 전분(241.2%)은 15년 철폐, 간장(8%), 춘장(8%), 위스키(20%), 포도증류주(15%) 등은 5년 후 관세가 철폐가 되도록 합의하였다.

표 3-1. 한-베트남 FTA 농산물 양허 협상결과

구분	양허유형	주요품목	세번수
식량작물	5년철폐	고구마(냉동), 곡물배아(쌀의 것)	2
	15년철폐	팥(건조/기타)	1
		소계	3
축산물	즉시철폐	닭간(냉동), 닭 기타 설육(냉동),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등	4
	3년철폐	치즈(커드), 조란(기타 신선란), 소식용설육(신선/냉장) 등	13
	10년철폐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돼지고기(냉동/기타)	2
	15년철폐	천연꿀	1
		소계	20
과실류	10년철폐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파파야, 두리언 등	10
		소계	10
채소·특작	즉시철폐	양송이버섯	1
	3년철폐	들깨	1
	5년철폐	표고버섯(건조), 파(건조), 호박(건조) 등	5
	10년철폐	생강(파쇄 또는 분쇄/신선·냉장), 생강(건조, 기타), 마늘(냉동, 건조) 등	7
		소계	14
가공식품	즉시철폐	국수, 맥아당, 캐러멜당, 곡류조제식료품(기타) 등	6
	3년철폐	기타당, 유아용조제식료품, 라이스페이퍼 등	9
	5년철폐	대두유(정제유/식품용), 간장, 춘장, 두부, 꼬나 등	29
	10년철폐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과실혼합물 등	5
	15년철폐	고구마전분	1
		소계	50
기타	3년철폐	미강유와 그 분획물	1
	5년철폐	암(냉동), 캐슈넛, 절화(기타/신선), 기타사료 등	18
	10년철폐	국화, 장미, 심비디움, 호도(탈각), 보조사료(기타) 등	6
		소계	25
총계			1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베트남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인용. <http://www.mafra.go.kr/bbs/mafra/68/311888/artclView> (검색일: 2019.10.28.).

베트남측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서 전체 농축산물 1,282개 세번 가운데 92.6%(1,187개)의 관세를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인 유아용 조제식료품(20%)은 5년 철폐로 양허를 개선



하였다. 그 밖에 수출 유망 농축산물 10개 세번에 대해서는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85개 세번은 초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관세 부분감축 및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주요 농축산물 교역 현황

###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교역 현황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전 세계로부터 총 353억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하였으며, 그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03억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86.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중국, EU, 아세안, 호주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는 2018년에 1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5번째(수입 점유율 3.5%)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한국은 관세철폐율(또는 자유화율)이 수입액 기준 91.7%에서 94.7%로 3.0%포인트, 베트남은 86.3%에서 92.4%로 6.1%포인트 증가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 자유화율이 높아진 뒤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표 3-2.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18년 평균수입점유율(%)
총계	30,407	32,132	30,535	29,962	32,246	35,302	100.0
FTA 미체결국	6,104 (20.1)	5,079 (15.8)	5,328 (17.4)	5,143 (17.2)	4,902 (15.2)	4,927 (14)	15.4
FTA 체결국	24,303 (79.9)	27,053 (84.2)	25,207 (82.6)	24,819 (82.8)	27,344 (84.8)	30,375 (86)	84.6
미국	5,952	7,861	7,046	6,891	7,829	9,373	24.6
중국	4,714	4,834	4,437	4,424	4,439	4,603	13.9
EU	3,220	3,484	3,651	3,601	4,230	4,580	12.7
아세안	4,079	4,611	4,251	4,069	4,535	5,435	14.3
호주	2,348	2,481	2,421	2,594	2,818	2,552	8.2
베트남	641	875	831	914	1,097	1,464	3.5
캐나다	960	1,045	880	904	1,006	1,045	3.0
뉴질랜드	943	934	817	847	920	1,016	2.9
칠레	782	805	868	723	762	826	2.4
인도	1,019	700	521	441	376	462	1.3
페루	60	79	94	91	143	179	0.4
싱가포르	142	147	137	132	139	153	0.4
콜롬비아	75	99	104	103	129	116	0.4
EFTA	88	70	64	74	92	112	0.3
터키	63	51	51	57	66	76	0.2

주 1) 괄호 안은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그룹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FTA 체결국에서 아세안에 포함되는 싱가포르산과 베트남산 수입액은 제외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 08. 14).

한편,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 현황을 보면, 2018년 69억 5,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였으며, 그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총 40억 달러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57.9%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가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대상국 가운데에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이 수출하

고 있다. 베트남은 4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대상국으로서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와 베트남 현지에서의 한류 열풍 등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평균 7.3%씩 증가하였다.

표 3-3.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18년 평균수출점유율(%)
총계	5,806	6,170	6,096	6,459	6,820	6,946	100.0
FTA 미체결국	2,746 (47.3)	2,911 (47.2)	2,676 (43.9)	2,766 (42.8)	3,052 (44.8)	2,923 (42.1)	43.2
FTA 체결국	3,060 (52.7)	3,259 (52.8)	3,419 (56.1)	3,693 (57.2)	3,768 (55.2)	4,023 (57.9)	56.8
중국	967	987	1,047	1,097	986	1,111	15.8
미국	527	593	627	716	746	802	11.2
아세안	1,000	1,052	1,026	1,107	1,208	1,327	18.0
베트남	353	357	371	403	374	464	6.1
EU	302	322	336	423	461	414	6.4
호주	97	108	152	157	171	148	2.4
싱가포르	113	108	110	106	111	115	1.6
캐나다	62	83	110	69	71	87	1.1
인도	36	41	43	46	42	48	0.7
뉴질랜드	35	34	39	32	34	37	0.5
터키	16	16	12	11	18	18	0.2
칠레	5	7	8	9	11	13	0.2
EFTA	5	6	7	15	11	11	0.2
콜롬비아	6	6	8	7	7	5	0.1
페루	2	4	5	5	3	3	0.1

주 1) 괄호 안은 농축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해당 그룹으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FTA 체결국에서 아세안에 포함되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수출액은 제외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 08. 14).

## 2)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농축산물 품목별 교역 현황

### 가) 베트남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현황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은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개년(2016~2018) 연평균 1억 8,000만 달러로 베트남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15.4%를 차지하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전 3개년(2013~2015) 대비 12.3% 감소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은 커피, 대두유, 캔디, 기타 베이커리제품, 커피 조제품, 배합사료, 기타 파스타, 빵 등이 있으며, 가공식품 가운데 수입이 많은 커피(6,200만 달러)와 대두유(1,800만 달러)의 경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각각 4.5%와 64.4% 감소하였다. 캔디(1,800만 달러)와 기타 베이커리제품(1,000만 달러) 등은 4.5%와 27.6% 증가하였다.

표 3-4. 베트남 주요 가공식품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2015년	2016~2018년	증감률
가공식품	204	179	-12.3
커피	65	62	-4.5
대두유	51	18	-64.4
캔디	17	17	4.5
기타베이커리제품	8	10	27.6
커피조제품	4	9	150.7
배합사료	7	6	-14.4
기타파스타	4	6	56.2
빵	0	5	1,325.1
계피	4	5	12.9
기타사료	3	4	67.4
혼합조제식료품	3	3	21.3
에틸알코올	13	3	-73.1
건사	6	3	-40.9
국수	1	3	176.9
야자유	0	2	1,128.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베트남산 곡물 수입액은 2016~2018년에 연평균 7,900만 달러로 베트남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6.8%를 차지하여 많지는 않으나,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21.6%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곡물로는 쌀(4,500만 달러)과 타피오카(2,300만 달러) 등이 있는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쌀 수입액은 236% 증가한 반면, 타피오카 수입액은 51.3% 감소하였다.

베트남산 과실류 수입액은 가공 과일과 신선 과일을 모두 합하면 2016~2018년 연평균 1억 800만 달러로 베트남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9.4%를 차지하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수입액이 168% 증가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실류 가운데 가공 과일은 기타 과실(5,400만 달러)과 캐슈넛(2,700만 달러)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각각 82.3%와 692% 증가하였다. 또한, 신선 과일류 중에는 캐슈넛(1,800만 달러), 바나나(300만 달러), 기타 과일(200만 달러)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 또한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산 채소 수입액은 2016~2018년 연평균 5,200만 달러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4.5%를 차지하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에는 13.3% 증가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채소 품목은 후추(2,800만 달러), 고추(1,100만 달러), 오이(500만 달러), 당근(300만 달러) 등이 있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후추 수입액은 5.2% 감소한 반면, 고추, 오이, 당근 수입액은 각각 21.3%, 51.4%와 69.5% 증가하였다.

베트남산 축산물 수입액은 2016~2018년 연평균 2,600만 달러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2.3%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전 보다 이후 수입액이 79.8%로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축산물은 기타 양모·조수모(2,000만 달러)와 우지(200만 달러) 등이 있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각각 134%와 563% 증가하였다.

표 3-5. 베트남 주요 곡물,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2015년	2016~2018년	증감률
<b>곡류</b>	65	79	21.6
쌀	13	45	236.4
타피오카	47	23	-51.3
<b>가공 과일</b>	36	91	152.7
기타과실	30	54	82.3
캐슈넛	3	27	692.3
기타감귤류	0	4	35,920.9
자몽	0	2	7,157.6
<b>신선 과일</b>	5	18	291.2
캐슈넛	2	11	338.4
바나나	0	3	2,503.3
기타과실	1	2	34.2
<b>채소</b>	46	52	13.3
후추	29	28	-5.2
고추	9	11	21.3
오이	3	5	51.4
당근	1	3	69.5
<b>축산물</b>	15	26	79.8
기타 양모, 조수모 등	8	20	134.2
우지	0	2	563.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베트남산 임산물 수입액은 2016~2018년 연평균 7억 1,000만 달러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61.1%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에도 수입액은 73.1% 증가하였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임산물은 톱밥, 합판, 칩, 기타 가구, 목탄, 식탁, 침대, 열대산 제재목, 기타 임산물, 수지류 등이 있으며, 임산물 중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톱밥(2억 3,400만 달러)과 합판(1억 7,400만 달러)은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수입액이 각각 112%와 197% 증가한 반면 칩(6,600만 달러)은 17.0% 감소하였다.

표 3-6. 베트남 주요 임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2015년	2016~2018년	증감률
임산물	412	714	73.1
톱밥	110	234	112.8
합판	59	174	197.3
칩	79	66	-17.0
기타 가구	37	46	25.4
목탄	8	29	249.9
식탁	18	29	56.6
침대	19	25	31.6
열대산제재목	10	21	98.3
기타임산물	12	13	6.8
수지류	8	12	56.9
기타 목재식탁용품	5	9	71.2
목모와 목분	9	8	-6.9
기타석제품	4	8	82.7
성형목재	2	6	291.3
건축용목제품	2	6	184.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 나) 베트남으로의 농축산물 수출 현황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 가운데에는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축산물 15.0%, 임산물 13.0%, 과일류 4.5%, 곡물 3.5% 채소 1.9% 순이다. 수출액은 2016~2018년까지 연평균 2억 5,600만 달러로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9.6%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수출 품목으로는 켈런, 혼합조제식료품, 기타 사료용 조제품, 기타 음료, 라면, 과당, 홍삼 조제품, 커피 조제품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혼합 조제식료품(7,300만 달러), 기타 사료용 조제품 (1,900만 달러), 기타 음료(1,900만 달러), 라면(1,200만 달러), 과당(1,100만 달러) 등은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7. 對 베트남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2015년	2016~2018년	증감률
가공식품	184	256	39.6
결련	71	73	3.5
혼합조제식료품	19	30	58.3
기타사료용조제품	15	19	28.2
기타음료	4	19	407.9
라면	3	12	238.4
과당	7	11	56.6
홍삼조제품	4	6	61.5
커피조제품	6	6	-6.5
캔디	3	5	77.8
아이스크림	2	4	90.4
소주	2	4	106.1
면	2	4	62.5
자당	5	4	-21.7
기타 소스제품	2	3	93.8
야자유	0	2	1,128.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또한, 가공식품 수출 이외에도 과실류 중에는 신선 배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1,000만 달러씩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비중이 가장 높고, 신선 포도, 신선 사과, 단일과실 조제품, 기타 과실 등도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축산물 수출액은 2016~2018년까지 연평균 6,200만 달러로 가공식품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부류이며, 한-베트남 FTA 발효 전 대비 수출액은 11.1% 감소하였다. 주요 축산물 수출 품목에는 닭고기, 가축, 조제분유 등이 있으며, 최근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병원성 AI 여파로 닭고기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임산물 수출액은 2016~2018년까지 연평균 5,400만 달러로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9.6%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기타 임산물, 판지, 펄프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수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지



만, 채소류 중에는 딸기, 채소종자, 팽이버섯, 고추, 기타 채소, 김치, 곡물 중에는 대두박, 전분박, 옥수수 전분 등이 베트남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표 3-8. 對 베트남 주요 과실류, 채소류, 임산물, 축산물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2015년	2016~2018년	증감률
가공 과일	2	5	157.4
단일과실조제품	1	2	240.9
기타과실	0	2	392.1
신선 과일	2	14	602.0
배	1	10	694.8
포도	0	2	1,845.0
사과	0	1	266.3
임산물	89	54	-39.6
기타임산물	75	25	-67.1
편지	3	13	394.7
펄프	0	5	46,774.1
채소	6	8	36.9
딸기	0	2	13,430.5
채소종자	1	1	71.7
팽이버섯	3	1	-65.6
고추	0	1	27.0
기타채소	0	1	163.4
김치	0	1	70.7
축산물	70	62	-11.1
닭고기	26	17	-33.4
가족	13	11	-16.5
조제분유	9	8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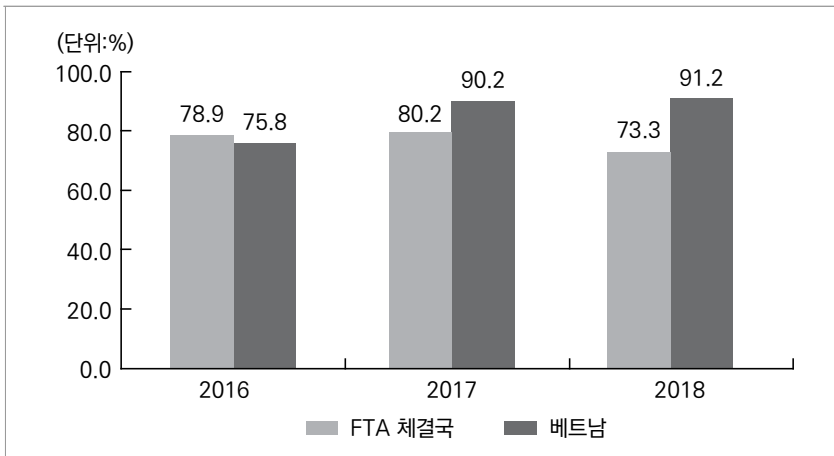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gtis.com/gta/\(DB](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 3)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현황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베트남산 농축산물 가운데 원

산지가 증명되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 비중은 2016년 75.8%에서 2018년에는 91.2%로, FTA 이행 연차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베트남 FTA 이행 초기인 2016년에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 평균 수입특혜 관세 활용률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2017년부터는 FTA 체결국 평균치 이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 2018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 가운데 수입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이상인 품목은 대두(100.0%), 커피(98.6%), 대두박(100.0%), 빵(99.3%), 캐슈넛(99.6%), 바나나(98.7%), 캔디(99.9%), 코코넛(99.6%), 당근(91.8%) 등이다.<sup>40)</sup>

그림 3-1.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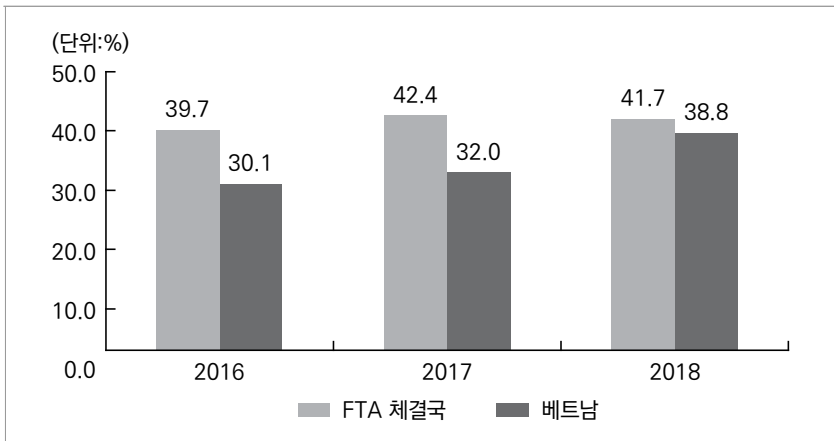
자료: Kim et al.(2019).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중,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한 품목 비중은 2016년 30.1%에서 2018년 38.8%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

40) 송우진 외(2018).

직까지도 우리나라 FTA 체결국 수출 특혜관세 평균 활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은 사후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베트남으로부터의 증명 이 미흡하며, 베트남의 행정·전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주요 수출 농축 산물 가운데 기타음료와 배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8년에 63.5%와 58.1%로 2017년 대비 각각 12.2%와 18.8% 상승한 반면, 조제분유와 라면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87.5%와 58.1%로 2017년 대비 각각 5.0%와 9.3% 하락하였다(송우진 외 2018). 특히, 조제분유와 라면의 경우 수입 원료의 비중 이 높아 원산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sup>41)</sup>

그림 3-2. 對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



자료: Kim et al.(2019).

41) Kotra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FTA 활용기업이 ① 베트남 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이외에 출력 및 발급까지 시스템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구축, ② 수출업체의 원산지 입증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제도 정비, ③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가, ④ FTA 사후적용 절차 간소화 등을 FTA 활용 개선 사항으로 지적함(Kotra 2017).

##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 가. 수출시장 진출여건

#### 1) 식품시장 여건

베트남의 식품산업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① 육류 가공 및 관련 제품의 보관, ② 수산물 가공 및 관련 제품의 보관, ③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관련 제품의 보관, ④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의 가공 및 관련 제품의 보관, ⑤ 우유 및 유제품 생산, ⑥ 곡물류의 분말 생산, ⑦ 기타 음식물 생산, ⑧ 알코올 함유 및 무알코올 성 음료 생산 등과 같이 사업의 제조와 가공업으로 구분된다. 베트남 산업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지는 부문은 식품의 가공 및 제조업이며,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액은 약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sup>42)</sup>.

베트남 식품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이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인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6년 베트남 인구의 식품 지출액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3)</sup>.

베트남 식품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식품유통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현재 전통시장 9,000개, 대형 슈퍼마켓 750개, 쇼핑센터 130개가 영업활동 중이며,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도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

42) aT 유통연구소(2017).

43)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인기식품과 최신 식품 소비 트렌트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1611>(검색일: 2019. 9. 2).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적극 투자 및 진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는 주로 생필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가 예상된다.<sup>44)</sup>

실례로 최근 들어 베트남 소비자들은 고품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생 및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는 빠르고 다양하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하여 앞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sup>45)</sup>

## 2) 식품 소비현황<sup>46)</sup>

2015년 베트남의 개인과 가정의 소비 규모는 약 1,28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식료품 소비액은 약 550억 달러로 총 소비액의 43%를 차지하여 건설(10.2%), 오락과 교육(9.4%), 교통 통신(9.2%) 등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특히, 식품과 음료 소비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음료, 담배 소비증가율은 2013년 0.8%, 2014년 2.1%, 2015년 3.8%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6~2020년의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소비 상승률은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베트남의 식품과 음료 소비액은 8조 2,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 소비액은 약 4조 7,000억 원으로 66.7%에 해당하며, 알콜성 음료는 1조 6,000억 원(19.7%), 알콜 음료는 6,000억 원(8.2%), 홍차, 커피 등 기타 음료는 4,000억 원(5.4%)이치가 소비되었다.

---

44) aT 유통연구소(2017).

45) aT 유통연구소(2017).

46) aT 유통연구소(2017).

### 3) 식품시장 성장 가능성<sup>47)</sup>

베트남에서 가장 큰 가계 지출은 식료품으로서 대부분의 가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 전체 식품 소비량은 280억 달러에서 2019년 6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 지출의 비중은 전체 소매 매출의 70~75%, 소매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건강 및 웰빙 식품과 음료의 판매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특히 건강 및 기능성 식품의 소비증가율은 1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해외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회요인과 저해요인이 공존한다. 기회요인은 우선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들 수 있다. aT유통연구소(2017)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중국, 태국 등 주변국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일본, EU, 미국 제품과 비슷한 품질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행태를 분석한 김경필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산 농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전체의 66.1%) 가운데 92.8%가 한국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런 의향은 일본산(93.7%)보다 다소 낮지만, 중국산(11.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 6%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세 미만 청년층 형성 등 식품시장 확대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에 따른 관세인하 및 철폐 등도 좋은 기회요인이다.

반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의 저가 마케팅으로 인해 초래되는 가격 측면에서의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sup>48)</sup>과

---

47) aT 유통연구소(2017).

48) 김경필 외(2017)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격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1%, 30.1%로 나타

베트남의 농식품 보호 정책 강화, 저온저장시설 부족,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베트남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 확대 또는 신규 진출을 고려중인 한국 농식품 수출업자들은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사 제품 사전조사, 시장분석, 현지 유통채널 진출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BOX : 신선농산물 및 부가가치 높은 가공식품 수출로 현지 시장 확대**

- 2015년 딸기 검역 해제를 시작으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고품질 신선 농산물(딸기, 배, 포도, 사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지 마트체인인 Bic C 마트에서는 달랏 지역에서 재배된 한국 품종의 딸기를 판매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대개 현지 생산물량임. 향후 이를 반영하여 김치를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안보다는 부피 단위당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예: 장류)을 수출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2019.7.23. aT 하노이지사장 등 인터뷰

#### 4) 후방 연관산업 시장 여건

농식품 전방산업은 농식품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식품 및 가공 산업을 말하며, 후방산업은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산업, 가령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산업을 의미한다(엄석진 외, 2011).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주요 후방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주요 농기자재 산업의 시장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해외정보공유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농기자재수출정보에서 발췌한 내용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sup>49)</sup>

나 매장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4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해외정보공유서비스. 농기자재수출정보 사이트, <https://www.maps.or.kr/ameMaInfo.do/>(검색일: 2019. 08. 01).

### 가) 농기계<sup>50)</sup>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 국가이며 세계 최대 쌀 생산국가이다. 농업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17년 14.8%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의 기여도는 아직 큰 편이다. 반면, 영세 농가가 많아 농기계화 비율이 아직 저조하고 이에 따라 베트남 농기계 시장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베트남 정부고시(Decision 1342/QD-TTg)에 따르면, 농업단계별로 토양 준비작업 기계화율(70%)을 제외하면 경작 및 시비 단계, 수확 및 가공 단계의 기계화율은 30%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농업단계별 기계화율을 70~95%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표 2-9). 또한 베트남의 정부와 기업들은 스마트 농업과 하이텍 농장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농기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9. 베트남 농업단계별 기계화율 목표 설정(%)

농업단계별 구분	2010년	2020년
토양준비	70	95
경작 및 시비	25	70
수확	30	70
가공	30	80

자료: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4609/>(검색일: 2019.08.2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농기계 산업은 아직까지 생산규모가 적어 시장점유율이 낮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신규투자 여

50)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4609/>(검색일: 2019. 08. 22).



력도 없어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베트남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sup>51)</sup>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되는 농기계의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 베트남 국내산 농기계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 정도는 수입산 농기계가 차지하고 있다.<sup>52)</sup>

베트남으로 농기계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EU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농기계는 일본과 유럽산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인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간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6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산 농기계의 경우 품질과 내구성이 좋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 많은 베트남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일본 농기계 기업들은 공장건립, 유통망 확충, 애프터 서비스의 실시 등 비즈니스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중고 농기계는 사후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품질도 높아 인기가 높다. 더욱이 일본 중고 농기계는 수리 후 베트남 시장을 거점으로 미국,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 농기계는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높고, 특히 현지 바이어로부터 여타 선진 농기계 수출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산 농기계가 베트남 시장내 포지셔닝이 명확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가 부재한 실정인어서 농용트랙터, 로우더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반면 고가고품질이라는 인식이 높은 일본산 농기계와 저가중품질이라는 중국산 농기계는 한국산에 비해 시장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3)</sup>

---

51) 베트남의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의 빔(Vietnam Engine and Agriculture Machinery Corp., VEAM)이 있으며, 빔은 2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규모 국영기업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임.

52)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농기계 시장현황과 진출 시 유의할 점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4609>; 검색일: 2019.08.24.). 재인용.

53) EC21. n.d.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농기계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베트남이 수입하는 주요 농기계는 농용트랙터, 로우더, 사료절단기, 콤바인, 사료분쇄기·조제기 등에 집중되어 있다<표 3-10>. 베트남의 상위 20대 수입 농기계 가운데 14개 품목에서 중국산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 태국, 미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0. 베트남 농기계 상위 20대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15	2016	2017	2015-2017 평균	2015-2017 평균 기준 상위 수출국 비중(%)
8701	농용트랙터	919.3	351.2	261.6	510.7	중국(38.6), 멕시코(19.4), 한국(18.6), 미국(9.87), 일본(7.61)
842959	스키드스티어로우더	234.8	241.6	198.0	224.8	일본(70.9), 한국(15.2), 미국(4.00), 영국(2.56), 중국(2.24)
842952	백호우로우더	121.4	142.4	117.1	126.9	일본(47.7), 한국(36.3), 태국(5.38), 중국(2.93), 영국(2.00)
8436	사료절단기	51.1	108.5	102.7	87.4	중국(47.1), 네덜란드(13.6), 말레이시아(7.12), 기타아시아(4.52), 미국(3.87), 한국(0.43)
843351	콤바인	84.2	80.0	75.8	80.0	태국(70.9), 중국(24.1), 캄보디아(2.55), 일본(1.86), 인도(0.22), 한국(0.09)
842951	프론트 앤드 로우더	53.7	57.0	56.2	55.7	중국(62.2), 일본(24.5), 독일(3.90), 영국(2.65), 한국(2.36)
843610	사료분쇄기, 사료배합기, 기타사료조제기	26.4	61.5	43.4	43.8	중국(54.4), 네덜란드(17.1), 프랑스(6.04), 기타아시아(5.05), 미국(2.95), 한국(0.56)

재정리.

표 3-10. 계속

HS CODE	품목명	2015	2016	2017	2015~2017 평균	2015~2017 평균 기준 상위 수출국 비중(%)
842481	자주식방제기 및 기타 방제기	32.9	29.7	26.9	29.8	중국(68.6), 이스라엘(8.81), 태국(4.71), 미국(4.42), 기타아시아(2.81), 한국(1.17)
843710	기타세정/선별기	20.2	23.2	22.6	22.0	중국(84.7), 영국(4.24), 인도(1.96), 한국(1.65), 일본(0.90)
843680	기타가금/양봉기계	8.2	23.0	21.9	17.7	중국(45.3), 네덜란드(14.9), 덴마크(9.10), 미국(6.02), 기타아시아(5.52), 한국(0.52)
843629	가금 사육용기계	6.2	13.1	21.0	13.4	말레이시아(44.0), 중국(25.0), 터키(14.0), 네덜란드(4.12), 이탈리아(3.93)
843780	제분업용기계, 곡물채두류가공기계	8.7	6.6	17.3	10.9	중국(72.8), 태국(8.06), 네덜란드(3.46), 인도(3.13), 프랑스(2.23), 한국(1.25)
841931	농산물건조기	9.2	11.1	10.9	10.4	중국(41.6), 독일(11.9), 태국(11.3), 기타아시아(9.53), 일본(7.46), 한국(4.76)
843699	기타 양육기 부분품	7.0	9.2	10.9	9.0	중국(56.8), 독일(12.1), 네덜란드(11.2), 기타아시아(7.13), 미국(1.69), 한국(0.36)
843320	예취기	3.3	4.2	11.3	6.3	중국(72.0), 일본(8.77), 미국(6.80), 영국(5.53), 기타아시아(2.48), 한국(0.05)
843319	기타예취기	5.7	6.1	6.9	6.2	중국(40.3), 일본(20.2), 미국(20.2), 태국(13.4), 독일(1.98), 한국(0.00)

표 3-10. 계속

HS CODE	품목명	2015	2016	2017	2015~2017 평균	2015~2017 평균 기준 상위 수출국 비중(%)
843210	플라우(쟁기)	7.8	6.9	1.2	5.3	일본(55.1), 중국(31.7), 태국(8.65), 미국(2.44), 한국(0.60)
843229	스카리파이어, 제초기, 기타경작용기계	3.9	5.2	4.8	4.7	중국(47.3), 일본(25.6), 태국(21.9), 미국(3.31), 네덜란드(0.43), 한국(0.14)
843311	동력예취기(수평회전)	3.5	4.9	3.7	4.0	중국(51.8), 일본(25.6), 미국(18.7), 태국(1.84), 기타아시아(0.97), 한국(0.20)
843359	기타수확기	2.3	5.2	4.4	4.0	미국(41.6), 브라질(26.7), 중국(8.58), 인도(6.08), 일본(5.87), 한국(0.57)

주 1) HS CODE는 「농기자재별 핵심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을 참고하여 베트남의 6단위 세번으로 정리하여 2015~17년 평균 기준 상위 20개 수입액 기준으로 분류함.

2) 품목명은 베트남 세번에 해당하는 한국 세번을 매칭하여 정리하였음.

3) HS CODE 871620의 경우 2017년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5~2016 2개 년도만을 평균으로 계산함.

4) 농용트랙터(8701)은 보행용 농용트랙터(870110, 870120, 870130)과 농용트랙터(870190)의 수입액임.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8.24.) 자료를 활용하여 HS 6단위 세번 기준으로 저자작성.

베트남에서 농업 기계화율이 저조한 것은 경작 가능 지역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농업 종사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할인하며, 농업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농업 기계화율을 높인다면 단순 노동과 자연여건에 의존하는 전통 농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농업인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도 농업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 정책,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 농기계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매시 농기계의 품질, 부품 비용과 조달의 용이성, 사후 서비스 등을 주요 구매 요소로 인식

한다는 것은 베트남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기업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베트남 현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첨단농업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 등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나) 스마트팜

이를 반영하여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농업(Digital Agriculture) 혹은 IT를 활용한 고수준 기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54)</sup> 201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팜 등 IT를 활용하는 농기업과 농업협동조합 육성에 힘을 쏟고 전국에 하이텍 농업(Hi-Tech Agriculture) 지역들을 조성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도입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sup>55)</sup> 먼저, 최첨단(high-tech) 농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①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물질기술, 자동화기술 등 최첨단 기술 적용 기업, ② 최첨단 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60% 이상의 수입을 얻는 기업, ③ 총 수입의 0.5%를 R&D에 배분하고, R&D에 참여하는 고학력자가 총 고용인원의 2.5%를 차지하는 기업, ④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업 등은 최첨단 농기업인증을 받게 된다.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40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재배업(12개 기업), 수산업(19개), 축산업(9개) 부문에서는 40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sup>56)</sup>

아울러 현재 베트남에는 35곳의 하이텍 농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8

---

54) Dzung(2019).

55) Dzung(2019).

56)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담당자 인터뷰(2019. 7. 25).

곳이 개발 중이다(총리령 575/2015/QD-TTg).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12,000개의 농업 협동조합(cooperatives) 가운데 193개는 고수준 농업기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57)</sup>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에서는 2020년까지 고수준 기술을 채택한 협동조합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기서의 농작물 생산액을 다섯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메콩델타, 홍강델타, 중부 고원지대와 같은 주산지에 위치할 전망이다.<sup>58)</sup>

지방정부도 스마트 농업, 하이텍 농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베트남 중부 닥락성, 남부 하우장성은 투자유치를 위한 세미나,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고, 북부 하남성 역시 빈룩구와 리년구에 하이텍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전기, 교통 등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중남부 푸옌성은 2017년 2월 베트남 총리로부터 460ha에 이르는 하이텍 농업단지 개발 계획을 승인받았다. Vingroup 계열사인 VinEco, Vinamilk, TH 그룹 등 베트남 주요 대기업들도 하이텍 농업에 투자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sup>59)</sup>

---

57) Dzung(2019).

58) Dzung(2019).

59)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7795>(검색일 2019. 10. 24.).

표 3-11. 베트남 주요 대기업들의 하이텍 농업 투자 현황

회사명	주요 투자 내용
VinEco (Vingroup 계열사)	베트남 북부 하남성 빈에코 농장은 3,000억 동(약 1,324만 달러)이 투자됐으며, 총 면적 180ha 규모임. 이스라엘(TAP, NETAFIM), 일본(KUBOTA)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기술자문 등의 도움을 받으며,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우수농산물품질인증(VietGAP, GlobalGAP)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임.
Vinamilk	비나밀크는 베트남 중부 달랏(Da Lat)시에 베트남 최초의 유럽기준 유기농 우유농장을 오픈함. 프리미엄 식품의 발전 추세에 따라 비나밀크는 달랏시 유기농 우유농장에 2,000억 동을 투자했으며, 네덜란드의 유럽유기농검사기관(Control Union)으로부터 '베트남 첫번째 유기농 낙농장' 인증을 받음.
TH group	베트남 2위 유제품 기업인 TH group은 북부 타이빈성에 하이테크 농업 투자를 위해 1억 3640만 달러(3,000ha 규모)를 투자함. 유기농 과일·채소 및 고품질 쌀이 생산되며, 모든 제품은 미국·유럽의 유기농 인증 및 Global GAP 인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3. 2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7795>(검색일: 2019.10.24).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스마트 농업의 현실적 수준은 아직 초보적이다. 쌀 생산, 축산 부문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운영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수준 및 인프라가 여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지 대부분의 농장이 작은 토지 구획과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스마트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IT 활용 영농은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 등 그 장비와 콘텐츠가 초보적 수준이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며, 많은 투자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시장도 불안정하여 현재로서는 일부 선진농가와 농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sup>60)</sup>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정부의 하이텍 농업 발전과 관련된 토지이용 제도에서의 규제완화, 정보 수집과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sup>61)</sup>

60) Dzung(2019).

#### 다) 비료 및 농약

베트남의 최대 비료 수입대상국은 중국으로 2015년 6억 8,088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한국은 러시아, 벨라루스에 이어 4위의 수입대상국으로 2015년 7,554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정부차원의 친환경 비료의 생산을 장려하면서 향후 베트남 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나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비료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경쟁국이다. 러시아의 경우 무기질 비료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 비료를 주요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3-12. 베트남 비료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879,035	848,928	850,220	636,158	680,885
러시아	75,326	87,366	122,323	138,335	156,830
벨라루스	175,372	155,611	127,895	77,407	92,651
한국	33,375	22,066	50,457	59,711	75,542
인도네시아	28,854	954	14,536	10,005	66,290
캐나다	92,855	96,123	93,097	55,937	55,187
라오스	1,407	15,773	26,893	27,280	41,370
일본	55,079	74,491	53,931	39,486	38,265
이스라엘	105,970	81,805	99,596	59,102	26,710
말레이시아	15,137	7,429	8,860	5,485	25,851

자료: EC21. n.d. 농기자재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친환경농자재편) 자료를 재인용.

2013년 베트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양한 종류의 비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기 비료는 5~8%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sup>62)</sup> 베트남 내 유기 비료를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에

61)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62) EC. n.d. 시장분석보고서(베트남)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친환경농자재편)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의하면 수입 유기 비료의 대부분이 과일나무나 꽃을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현지 제품들은 대부분 식용 농작물과 공업용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985년 이후 베트남은 농약사용이 대중화하는 가운데, 최근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축분뇨 등 친환경 비료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Mordor Intelligence의 분석<sup>63)</sup>에 따르면, 베트남의 친환경 비료 시장의 가치는 2017년 9억 3,554만 달러에 달하며, 2022년까지 연평균 11%씩 성장하여 15억 6,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미생물 기반 친환경 비료의 경우 농작물 생산에서 활용도가 높아 친환경 비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이다. 베트남 자국 비료회사와 외국계 비료회사들이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지 친환경 비료 제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베트남의 최대 농약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7년 2억 3,221만 달러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인도, 태국, 한국이 차지한다. 규모면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7년 6,573만 달러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28% 수준이다. 한국은 농약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농약 원료 시장 수요의 10%를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은 농약원료의 90%를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의존도가 높다. 최근 국가차원에서 생물 농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생물 농약 성장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생물 농약시장이 2017~2022년 연평균 16.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쌀을 포함한 농작물이 병해충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1년까지 사용이 허용된 농약을 30%까

---

63) Mordor Intelligence.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vietnam-organic-fertilizers-market>/검색일: 2019. 08. 22).

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전 및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표 3-13. 베트남 농약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388,484	423,456	387,519	363,831	232,213
인도	46,069	49,988	52,799	54,327	77,777
태국	40,217	49,193	40,791	40,216	77,590
한국	27,593	38,387	46,113	36,652	65,728
독일	45,519	49,997	40,509	53,226	49,108
싱가포르	64,165	51,288	58,296	56,763	36,305
일본	32,758	32,360	38,729	39,056	33,225
인도네시아	15,438	28,012	19,310	25,829	22,689
프랑스	21,163	12,362	15,807	24,788	20,719
말레이시아	7,362	11,586	20,018	18,904	16,242

자료: EC21. n.d. 농기자재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친환경농자재편) 자료를 재인용

## 나. 농식품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침투력을 의미한다. 즉,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가지는 추가적인 시장 확보능력과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sup>64)</sup>

베트남은 일본과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 수출액 규모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 다변화 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은 2018년 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꾸준히 견인하고 베트남 현지시장

64) 최창열·정한경(2007).

에서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수출경쟁력지수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베트남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1) 분석대상 품목 선정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출경쟁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HS 6단위 코드 내에서 주력수출품목 20개와 수출성장품목 21개를 선정하였다.

주력수출품목은 기준연도인 2011~2013년도와 2016~2018년도 수출액이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이고 양(+)의 성장률을 보이는 품목 혹은 음(-)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다. 수출성장품목은 기준연도인 2011~2013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100만 달러 미만인 품목 중 2016~2018년도 수출성장률이 기타 품목보다 월등히 높은 품목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는 주력수출품목에는 HS 코드 240220에 해당하는 ‘필터담배’, HS 코드 210690에 해당하는 ‘커피크리머 및 백삼조제품, 홍삼조제품 등’, 그리고 ‘라면과 인스턴트면, 과당시럽’, ‘소주 등 기타주류’, ‘된장과 춘장 같은 장류’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 농식품 중에서 가장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녹용제제, 인삼제제, 로열젤리 제제 등’으로서 2016~2018년 평균 수출액은 8,845만 달러이다. 그 다음으로 ‘필터담배’ 수출액이 7,347만 달러로 두 번째 많은 수출 규모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1~2013년도 수출액 대비 2016~2018년도 수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군으로는 HS 코드 170490에 해당하는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 자류’(321.74%)이다. HS 코드 050510에 해당하는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은 수출액이 2011~2013년도 6,620만 달러에서 2016~2018년도 2,382만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표 3-14. HS코드 6단위 별 주력수출품목

HS코드	설명	'11-'13년 수출액(\$)	'16-'18년 수출액(\$)
240220	필터담배	57,532,337	73,470,404
300490	녹용제제, 인삼제제, 로열젤리 제제 등	89,069,373	88,451,325
210690	커피크리머, 백삼조제품(인삼차 등), 홍삼조제품(홍삼차 등), 음료베이스, 당시럽, 음료조제품 조제품, 향미용 조제품, 알로에조제품, 기타 축산조제품,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도토리분, 조제김	12,413,023	28,124,630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66,206,343	23,822,657
230990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12,431,681	23,733,225
190230	라면, 인스턴트면, 파스타	6,622,316	13,259,394
170260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6,783,990	11,406,547
020712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11,308,393	10,700,384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조제분유 포함	7,768,201	7,991,508
210390	된장, 춘장, 장 등 장류	3,097,031	6,592,801
170490	드롭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자류(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1,820,192	5,856,339
210500	아이스크림 포함 빙과류	1,985,833	4,425,005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2,505,870	4,269,980
220890	소주 등 기타주류	1,060,832	4,190,191
170199	자당(고체의 것/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2,177,946	3,439,228
151790	쇼트닝	2,765,684	3,379,240
350300	젤라틴	2,980,472	3,028,634
020745	오리 절단육 및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259,734	2,543,462
130219	알로에액즙, 기타식물성액즙, 인삼엑스, 홍삼정, 인삼액즙, 오미자 추출물, 기타 추출물	1,887,966	2,386,093
121120	수삼(산양삼), 백삼, 홍삼, 인삼 등 인삼류	1,487,299	1,787,832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Product.do/>), 검색일: 2019. 9. 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성장품목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HS 코드 080830에 해당하는 ‘배(신선)’로 수출액이 2011-2013년도 약 13만 달러에서 2016-2018년도 약 1,034만 달러로 무려 8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3-15. HS코드 6단위 별 수출성장품목

HS코드	설명	'11-'13년 수출액(\$)	'16-'18년 수출액(\$)
080830	배(신선)	125,200	10,339,961
220210	물(설탕, 감미료, 광천수나 탄산수 포함, 향미 첨가/착색한 것)	129,787	1,022,500
050400	동물의 위(어류 제외), 장	616,192	4,079,287
080810	사과(신선)	150,313	993,518
200599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채소류 조제품(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2006호의 물품 제외), 고려엉겅퀴	163,115	949,736
170290	인조꿀, 캐러멜당, 맥아당 등	443,592	2,485,411
051199	동물의 사체(기타/비식용), 동물성의 해면	696,054	3,656,077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5,978	1,015,117
160100	소시지	117,885	554,475
190190	조제식품품 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품품), 맥아엑스, 오트밀, 조제식품품 기타(쌀가루의 것)	724,718	3,276,431
210111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인스턴트커피 포함)	593,608	2,539,843
291819	말산	121,614	480,610
190410	콘 플레이크, 퍼프드 라이스, 곡류조제품	311,849	1,211,853
18069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기타), 코코아 조제품(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이외 기타), 조제식품품기타(맥아엑스)	211,204	771,036
070110	감자(종자용)	105,771	353,999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유지 및 분획물(기타/우각유와 분획물 제외)	763,365	2,448,926
090422	다진 고추류	203,114	600,770
200819	코코넛(기타조제, 저장처리한것),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밤(기타 조제, 저장처리한 것)	554,316	1,176,290
220600	발효주, 전통주	426,406	799,729
120991	채소 종자	729,477	1,253,086
210310	간장	375,310	591,197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Product.do/>, 검색일: 2019. 9. 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수출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국가별·품목별 수출자료이다. 이 자료는 대부분의 품목별 베트남 수입 자료가 수출국에서 기록된 자료와 큰 차이가 발견되어 베트남의 수입자료를 대신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대상국 자료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로 베트남 수출에 대한 국제경쟁력 및 시장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CAC), 시장점유율지수(Market Share Index, MSI) 등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였다. RCA 지수는 우리나라의 對 세계 수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MCA 지수는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CAC 지수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베트남 시장이 경쟁력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MS 지수는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 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CA 지수는 Balassa(1965)에 의해 제안된 각국의 비교우위 측정방법으로서 한 국가의 재화별 비교우위를 사후적으로 무역의 관점에서 집계하는 측정방법이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일국의 특정 제품의 수출시장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해외 시장의 외생적 수요변화보다 해당 수출품의 경쟁력 증가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나라가 i국의 k상품 시장에서 비교우위, 즉 상대적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RCA_i^k = \left( \frac{X_i^k}{WX_k} \right) / \left( \frac{X_i}{WX} \right)$$

여기서,  $X_i^k$ 는  $i$ 국의  $k$ 재 수출액,  $X_i$ 는  $i$ 국의 총 수출액,  $WX_k$ 는 전 세계의  $k$ 재 수출액,  $WX$ 는 전 세계의 총 수출액을 의미한다.

####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MCA 지수는 수입국 시장에서 평가품목의 수입액 비중에 대한 개별 수출국별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평가품목 비중의 비율로서 수입국의 수입구조변화에 따른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다. MCA 지수가 1보다 크면  $i$ 국가 시장에서 한국의  $k$ 상품이 상대적으로 수출성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MCA = \left( \frac{X_{ik}}{WX_i} \right) / \left( \frac{X_k}{WX} \right)$$

여기서,  $X_{ik}$ 는 수입국의  $i$ 국  $k$ 상품에 대한 수입액,  $WX_i$ 는 수입국의  $i$ 국 상품 전체에 대한 총수입액(본 연구에서는 HS 3류를 제외한 HS 1류에서 24류의 수입총액과 38개의 식품첨가제 품목군<sup>65)</sup>을 가산한 금액),  $X_k$ 는 수입국의  $k$ 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WX$ 는 수입국 전체의 총 수입액을 나타낸다.

#### 다)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CAC 지수는 RCA 지수의 한계로 고안된 교역국별 비교우위지수로서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CAC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AC_{ij}^k = \frac{X_{ij}^k / X_{ij}}{M_{jw}^k / M_{jw}}$$

65) 식품첨가제에 해당되는 품목군은 HS 코드 290532, HS 290543, 290544, 291241, 291529, 291631, 291632, 291711, 291811, 291812, 291813, 291814, 291819, 292242, 292249, 292320, 292511, 292700, 293622, 293623, 293624, 293629, 293810, 293890, 294000, 300490, 330119, 330129, 330190, 330210, 350110, 350300, 350400, 350510, 350520, 350790, 380610, 400130 등이 해당됨.

여기서,  $X_{ij}^k$ 는 i국가 k산업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  $X_{ij}$ 는 i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  $M_{jw}^k$ 는 j국가 k산업에 대한 對 세계 수입액<sup>66)</sup>,  $M_{jw}$ 는 j국가에 대한 총 수입액을 나타낸다.

#### 라) 시장점유율지수(MSI)

MSI 지수는 수입국의 상품시장에서 수출국의 시장점유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이다.

$$MSI_{ij} = \frac{M_{ij}^k}{M_j^k}$$

여기서,  $MSI_{ij}$ 는 j국의 수입시장에서 i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M_{ij}^k$ 는 j국이 i국에서 수입하는 k제품의 수입액을 나타낸다.

### 3)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분석

본 절에서는 주력수출품목 20개 중 FTA 역내분업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 가) HS 코드 210690 품목

HS 코드 210690에 해당하는 품목은 커피크리머, 백삼조제품(인삼차 등), 홍삼조제품(홍삼차 등), 음료베이스, 당시럽, 음료조제용 조제품, 향미용 조제품, 알로에조제품, 기타 축산조제품,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도토리분, 조제김 등이다. RCA 지수, MCA 지수, CAC 지수 및 MS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66)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이 보고한 수입 데이터가 해당 수입품을 수출한 교역국이 보고한 수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UN Comtrade 데이터 상의 문제로 인해 각 국가별 수출 데이터를 합쳐서 베트남의 對 우리나라 및 對 세계 수입 데이터의 대용으로 이용함.



표 3-16.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69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싱가포르	RCA	6.39	7.80	7.11	7.83	8.33	
	MCA	7.82	9.31	9.31	9.05	9.11	
	CAC	1.14	1.15	1.14	0.98	0.96	
	MSI	14.00	17.97	16.81	16.74	16.73	
말레이시아	RCA	10.04	10.70	10.92	10.49	9.79	
	MCA	11.69	12.90	16.59	14.81	14.16	
	CAC	1.09	1.16	1.32	1.20	1.26	
	MSI	20.94	24.90	29.93	27.41	26.00	
한국	RCA	6.20	6.16	6.22	6.20	7.08	
	MCA	1.67	1.61	2.10	2.18	2.71	
	CAC	0.25	0.25	0.29	0.30	0.33	
	MSI	4.36	3.67	4.82	4.95	5.79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HS 코드 210690 품목군의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의 RCA 지수는 각각 2013년 6.39에서 2017년 8.33로 증가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2013년 10.04에서 2017년 9.7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 또한, MCA 지수와 CAC 지수는 각각 2013년 1.67에서 2017년 2.71로, 2013년 0.25에서 2017년 0.3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의 MCA 지수와 CAC 지수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았다. 두 나라의 시장점유율도 우리나라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HS 코드 190230 품목

우리나라 '라면, 인스탄트면, 파스타' 등(HS 코드 190230)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품의 RCA 지수와 MCA 지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A 지수는 2013년 34.84에서 2017년 47.97로 상승하였으며, MCA 지수도 2013년 15.88에서 2017년 24.79로 올라 두 지수 모두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MS 지수 또한 2013년 41.45%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하여 2017년 53.0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K푸드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라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CAC 지수는 2013년 0.2에서 2017년 0.34로 증가하였지만, 분석기간에 우리나라의 HS 코드 190230 품목군은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9023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중국	RCA	24.78	22.89	22.41	20.49	19.80	
	MCA	13.20	10.99	12.06	8.30	5.66	
	CAC	0.23	0.20	0.23	0.20	0.19	
	MSI	0.91	0.74	0.85	0.73	0.65	
일본	RCA	9.20	9.35	7.57	8.73	9.07	
	MCA	5.59	13.83	18.62	23.31	19.19	
	CAC	0.26	0.61	1.03	1.34	1.37	
	MSI	0.39	0.93	1.32	2.05	2.21	
한국	RCA	34.84	32.17	33.83	39.31	47.97	
	MCA	15.88	13.48	12.43	16.40	24.79	
	CAC	0.20	0.17	0.15	0.21	0.34	
	MSI	41.45	30.80	28.50	37.24	53.02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다) HS 코드 170260 품목

HS 코드 170260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등이며,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HS 코드 170260 품목군의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RCA 지수는 2013년 11.28에서 2017년 16.04로 증가하였으며 MCA 지수는 2013년 19.12에서 2017년 17.22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CAC 지수 또한 2013년 4.37에서 2017년 2.43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 가지 지수 모두

분석기간 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RCA 지수와 MCA 지수 모두 낮은 것으로 계속되어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점유율은 10배에 가까운 차이로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AC 지수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 1.89로 나타나 우리나라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8.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26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중국	RCA	11.28	9.31	13.99	17.31	16.04	
	MCA	19.12	24.29	20.23	16.92	17.22	
	CAC	4.37	5.00	3.40	2.01	2.43	
	MSI	3.10	2.60	2.84	2.20	2.48	
인도네시아	RCA	0.09	0.00	0.00	0.00	0.20	
	MCA	-	-	-	-	0.21	
	CAC	-	-	-	-	2.39	
	MSI	-	-	-	-	0.03	
한국	RCA	10.16	15.70	17.66	15.78	10.61	
	MCA	10.67	4.52	13.99	16.11	10.50	
	CAC	2.71	0.55	1.86	2.10	2.24	
	MSI	27.86	10.33	32.07	36.59	22.46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라) HS 코드 190110 품목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조제분유 포함’ 등(HS 코드 190110)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HS 코드 170260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RCA 지수는 2013년 3.96에서 2017년 2.66로 감소하였지만 아직은 경쟁력이 있었다. 또한, MCA 지수의 경우 분석기간에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C 지수는 모두 1 미만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경

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RCA 지수가 2013년 10.38에서 2017년 3.96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분석기간 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9011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싱가포르	RCA	10.38	7.33	5.84	4.59	3.96	
	MCA	7.35	8.27	9.38	9.75	9.09	
	CAC	1.40	1.83	2.13	2.92	2.88	
	MSI	6.49	6.69	6.47	7.70	6.73	
일본	RCA	1.12	2.06	2.23	2.75	2.63	
	MCA	10.17	24.67	43.71	43.35	49.04	
	CAC	17.98	19.42	25.95	21.69	23.39	
	MSI	8.99	19.95	30.14	34.22	36.35	
한국	RCA	3.96	4.39	4.91	4.45	2.66	
	MCA	1.35	2.24	3.14	1.64	1.94	
	CAC	0.67	0.83	0.85	0.51	0.92	
	MSI	3.52	5.12	7.20	3.71	4.16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마) HS 코드 170490 품목

〈표 3-20〉는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자류(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등(HS 코드 170490)의 국제경쟁력 분석결과이다.

RCA 지수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HS 코드 170490 품목군 수출 경쟁력은 2017년 3.61으로 경쟁력이 있다. 수출경쟁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RCA 지수가 각각 5.69 및 4.42으로 나타나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입한 경쟁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MCA 지수를 활용한 결과, 2013년

2.35에서 2017년 7.26로 분석기간 내 경쟁력이 있고 증가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7년 MCA 지수가 각각 70.08 및 14.73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49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인도네시아	RCA	8.62	6.79	6.62	6.06	5.69	
	MCA	94.11	89.28	83.98	74.81	70.08	
	CAC	3.55	3.66	3.52	3.19	3.49	
	MSI	18.27	15.36	14.14	12.25	11.98	
말레이시아	RCA	3.59	3.57	4.63	4.53	4.42	
	MCA	13.20	7.62	9.59	13.73	14.73	
	CAC	1.20	0.59	0.57	0.78	0.94	
	MSI	2.56	1.31	1.61	2.25	2.52	
한국	RCA	4.26	4.24	3.80	3.42	3.61	
	MCA	2.35	3.28	4.03	4.66	7.26	
	CAC	0.18	0.22	0.29	0.35	0.57	
	MSI	6.13	7.49	9.24	10.57	15.53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바) HS 코드 210500 품목

HS 코드 210500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림 포함 빙과류'(HS 코드 210500) 등의 품목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상품의 RCA 지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내 3.97에서 4.18로 증가하여 경쟁력이 있었다. MCA 지수는 2017년 19.52로 경쟁국인 미국(53.83) 보다는 낮지만, 프랑스(6.62)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시장 내 경쟁력 파악을 위해 CAC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0.88로 프랑스(0.28)보다는 높지만 미국(3.87)보다는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지수 값이 1 미만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29.96%에서 2017년 41.74%로 성장해 두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3-21.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50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미국	RCA	2.23	2.19	2.38	2.25	2.62	
	MCA	22.02	25.37	67.50	44.27	53.83	
	CAC	2.11	2.43	6.74	4.88	3.87	
	MSI	0.96	1.12	3.28	2.40	2.16	
프랑스	RCA	3.48	3.83	4.06	3.97	4.45	
	MCA	2.19	4.51	3.99	3.23	6.62	
	CAC	0.13	0.25	0.23	0.20	0.28	
	MSI	0.10	0.20	0.19	0.17	0.27	
한국	RCA	3.97	3.59	4.19	4.13	4.18	
	MCA	11.48	9.06	9.77	10.80	19.52	
	CAC	0.62	0.53	0.55	0.65	0.88	
	MSI	29.96	20.72	22.39	24.51	41.74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4) 우리나라 성장수출품목의 경쟁력 분석

21개 성장수출품목 중 FTA 역내분업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 가) HS 코드 080830 품목

HS 코드 080830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배(신선)’의 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RCA 지수는 2013년 7.01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 다시 감소하여 7.49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분석기간 내 RCA 값은 1 이상이였다.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남아프리카의 경우 2017년 RCA 지수가 각각 18.16 및 55.84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베트남

남 현지시장에 진입한 경쟁국들 사이의 경쟁력을 MCA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중국과 남아프리카의 2017년 MCA 지수는 각각 20.9 및 159.6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MCA 지수는 3.82로 경쟁력은 있지만, 두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 보유 여부를 CAC 지수로 살펴본 결과, 2017년 3.82로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경쟁국인 남아프리카(7.96)보다는 낮지만, 중국(3.21)보다는 높은 수치다. 베트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0.62%에서 2017년 8.18%까지 성장한 가운데, 경쟁국 중 남아프리카는 2017년 75.5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또한 9.89%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한 데는 한류 소비가 많은 베트남에서 국내산과 일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sup>67)</sup>

표 3-22.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08083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RCA	14.65	13.63	18.03	19.23	18.16					
	MCA	31.29	24.98	30.05	26.26	20.90					
	CAC	3.22	2.30	3.19	3.15	3.21					
	MSI	7.97	4.99	8.96	9.20	9.89					
남아프리카	RCA	52.46	58.19	54.22	64.73	55.84					
	MCA	125.88	327.86	247.95	125.41	159.60					
	CAC	3.61	7.06	8.76	4.47	7.96					
	MSI	32.06	65.44	73.88	43.95	75.54					
한국	RCA	7.01	8.28	8.04	8.72	7.49					
	MCA	0.24	1.24	1.45	2.41	3.82					
	CAC	0.05	0.19	0.35	0.64	1.42					
	MSI	0.62	2.82	3.33	5.47	8.18	0.62	2.82	3.33	5.47	8.18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67) 중앙일보, 2018. 3. 24.

나) HS 코드 200599 품목

HS 코드 200599에 해당하는 품목은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채소류 조제 품(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 2006호의 물품 제외), 고려엉겅퀴’ 등이다.

우리나라의 RCA 지수는 2013년 10.6에서 2017년 7.4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분석기간 내 지수의 크기는 모두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RCA 지수가 2017년 37.35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0.99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MCA 지수는 2013년 0.45에서 2017년 2.14로 증가해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입한 수출경쟁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HS 코드 200599 품목군 수출은 경쟁력이 있다. 경쟁국인 중국의 MCA 지수는 2017년 22.07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 1.46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3.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00599)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중국	RCA	39.78	38.26	38.29	37.94	37.35	
	MCA	31.75	25.21	28.36	26.18	22.07	
	CAC	0.51	0.24	0.16	0.22	0.21	
	MSI	3.82	1.79	1.27	1.81	1.79	
일본	RCA	1.66	1.64	1.23	1.35	0.99	
	MCA	0.70	1.32	3.66	2.19	1.46	
	CAC	0.27	0.29	0.64	0.52	0.53	
	MSI	0.08	0.09	0.16	0.15	0.12	
한국	RCA	10.60	9.38	8.21	8.11	7.48	
	MCA	0.45	0.97	2.58	1.84	2.14	
	CAC	0.03	0.04	0.07	0.07	0.10	
	MSI	1.17	2.23	5.91	4.18	4.59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우리나라의 CAC 지수는 분석기간 내 모두 1 미만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베트남 시장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분석기간 내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세 국가 모두에게 베트남 시장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3.82%에서 2017년 1.79%로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은 2013년 1.17%에서 2017년 4.59%로 증가하였다.

다) HS 코드 170290 품목

RCA 지수, MCA 지수, CAC 지수 및 MS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인조 꿀, 캐러멜당, 맥아당 등' 등(HS 코드 170290)의 국제경쟁력을 RCA 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RCA 지수는 2017년 11.67로 2013년 16.13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RCA 지수는 19.44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6.73으로 두 국가 모두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현지 시장에 진입한 수출경쟁국들 사이에서 가지는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MCA 지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MCA 지수는 2017년 3.35이다. 중국과 일본의 2017년 MCA 지수는 각각 10.3 및 25.54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7029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중국	RCA	23.25	22.40	20.01	19.47	19.44	
	MCA	11.74	12.98	17.66	12.05	10.30	
	CAC	0.77	0.87	1.06	0.72	0.58	
	MSI	1.20	1.43	1.59	1.16	0.93	
말레이시아	RCA	12.57	11.47	15.84	14.77	26.73	
	MCA	20.25	20.61	23.22	24.18	25.54	
	CAC	2.46	2.69	1.77	1.91	1.05	
	MSI	2.07	2.26	2.09	2.34	2.30	
한국	RCA	16.13	20.40	17.64	12.93	11.67	
	MCA	2.32	3.56	2.74	4.56	3.35	
	CAC	0.22	0.26	0.19	0.41	0.32	
	MSI	6.05	8.13	6.29	10.35	7.17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라) HS 코드 210111 품목

HS 코드 210111에 해당하는 품목은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인스턴트 커피 포함)’ 등이 있다. RCA 지표와 MCA 지표, CAC 지표와 MS 지표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제경쟁력을 RCA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3년 4.82에서 2017년 6.89로 증가하였으며 분석기간 내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출경쟁국인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RCA지수는 2017년 각각 19.17 및 16.7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입한 수출경쟁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를 MCA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3년 2.4에서 2017년 3.11로 증가하여 분석기간 내 1 이상이었다. 그러나 수출경쟁국인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MCA 지수가 각각 58.65 및 27.84로 나타나 두 국가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베트남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는지 여부를 CAC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내 모두 1 미만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CAC 지수는 2017년 1.01로 경쟁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17.61%로 정점을 찍고 다시 2017년 6.66%까지 감소하였다. 수출경쟁국인 말레이시아나 브라질의 시장점유율의 경우 각각 2017년 5.99% 및 2.84%로 나타났다.

필터를 통해 추출한 드롭식 커피를 주로 마시는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간편함과 가격적인 이점으로 인해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 시장의 2030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품목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5.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210111)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말레이시아	RCA	18.73	17.12	16.35	15.16	19.17	
	MCA	55.31	40.42	71.41	76.90	58.65	
	CAC	0.74	0.59	1.16	1.20	1.01	
	MSI	4.49	3.09	6.03	5.85	5.99	
브라질	RCA	13.24	13.04	14.23	15.32	16.77	
	MCA	0.49	5.64	4.87	8.36	27.84	
	CAC	0.01	0.11	0.09	0.13	0.55	
	MSI	0.04	0.43	0.41	0.64	2.84	
한국	RCA	4.82	7.51	7.29	6.45	6.89	
	MCA	2.40	7.71	5.47	2.97	3.11	
	CAC	0.12	0.26	0.20	0.11	0.15	
	MSI	6.26	17.61	12.53	6.75	6.66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마) HS 코드 070110 품목

우리나라 ‘감자(종자용)’ 등(HS 코드 070110)의 국제경쟁력을 RCA 지수, MCA 지수, CAC 지수 및 MS 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HS 코드 070110 품목군 수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RCA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내 모두 1 미만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경쟁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의 RCA 지수는 2015년까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이후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덜란드의 RCA 지수는 분석기간 동안 모두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30.67로 우리나라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현지시장에 진입한 수출 경쟁국들 간 경쟁력을 MCA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MCA 지수는 2013년 11.92에서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16.19까지 증가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경쟁국인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에 비하면 낮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CAC 지수는 분석기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 7.14로 나타나 베트남 시장이 우리나라 HS 코드 0710110 품목군 수출에 있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분석기간 내 모두 1 미만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지수와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의 2017년 시장점유율은 4.97%에 그쳤고 네덜란드의 경우 0.55%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31.11%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7년 34.62%로 다시금 성장하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채소 종자 수출 7위의 위상을 지닌 중요한 종자 관련 교역국이다. 앞으로도 베트남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26.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070110)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오스트레일리아	RCA	1.85	1.13	1.02	0.96	0.77	
	MCA	1362.14	323.53	3274.22	1241.90	1452.52	
	CAC	38.08	16.61	268.06	175.06	114.98	
	MSI	4.15	1.17	14.11	8.81	4.97	
네덜란드	RCA	30.22	29.45	32.66	32.83	30.67	
	MCA	64.21	77.17	26.65	3.27	160.58	
	CAC	0.11	0.15	0.07	0.01	0.32	
	MSI	0.20	0.28	0.11	0.02	0.55	
한국	RCA	0.07	0.05	0.07	0.14	0.14	
	MCA	11.92	8.14	6.89	8.78	16.19	
	CAC	9.05	9.13	8.62	8.37	7.14	
	MSI	31.11	18.61	15.80	19.92	34.62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 바) HS 코드 120991 품목

우리나라 '채소 종자' 등(HS 코드 120991)의 국제경쟁력을 RCA 지수, MCA 지수, CAC 지수 및 MS 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RCA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HS 코드 120991 품목군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내 모두 1 이상이다. 수출경쟁국인 일본과 뉴질랜드의 RCA 지수는 2017년 각각 7.89 및 7.67으로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시장에 진입한 수출경쟁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HS 코드 120991 품목군이 갖는 경쟁력을 MCA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MCA지수는 2013년 1.67에서 2017년 4.57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1 이상이다. 수출경쟁국인 일본과 뉴질랜드의 2017년 MCA지수는 각각 49.12 및 112.02로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CAC 지수는 분석기간 동안 모두 1 미만으로 베트남 시장은 우

리나라 HS 코드 120991 품목군 수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다른 두 국가의 경우 일본은 CAC 지수가 2017년에 1.37, 뉴질랜드는 3.23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열위에 있었던 경쟁력지수와 상반되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4.36%에서 2017년 9.77%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2013년 9.09%에서 2017년 2.9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베트남 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력 평가 (HS 코드 120991)

국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의 시장점유율(%)
일본	RCA	14.36	14.07	10.86	9.19	7.89	
	MCA	97.51	67.65	60.62	55.91	49.12	
	CAC	2.96	1.74	1.89	1.79	1.37	
	MSI	9.09	5.40	4.83	4.18	2.91	
뉴질랜드	RCA	13.21	10.06	9.02	6.83	7.67	
	MCA	72.73	93.26	134.19	108.44	112.02	
	CAC	2.40	3.36	5.04	4.67	3.23	
	MSI	6.78	7.45	10.69	8.11	6.63	
한국	RCA	4.07	3.73	4.24	4.21	4.12	
	MCA	1.67	1.33	1.98	2.63	4.57	
	CAC	0.18	0.13	0.16	0.18	0.25	
	MSI	4.36	3.04	4.54	5.97	9.77	

자료: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9.10.7.) 자료를 활용 및 계산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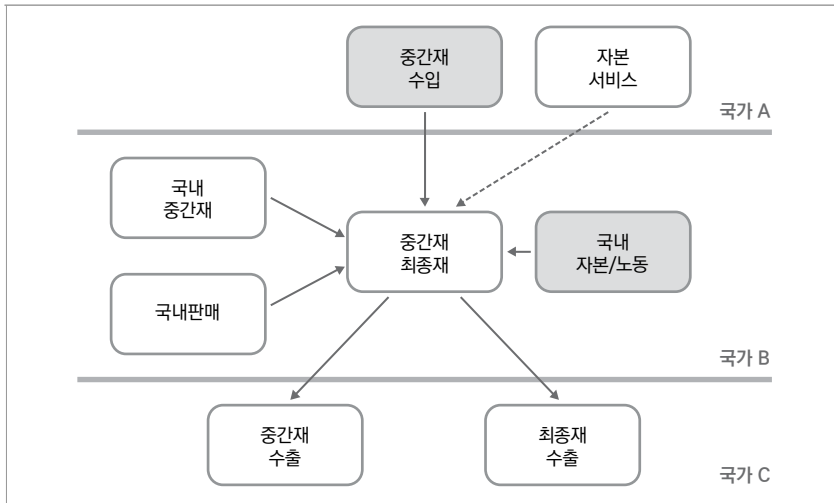
###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 가.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제분업

한-베트남 FTA 체결·발효에 따른 관세 절감효과로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양국 간 무역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Cs) 효과의 극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GVC은 상품의 기획, 생산, 제조, 판매까지 이르는 과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무역 방식을 의미한다. 즉 분업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 국가를 넘어 발생하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기획에서 상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단계별로 혹은 부가가치별로 나뉘어 국제적인 수직분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림 3-3. 국제 분업 관계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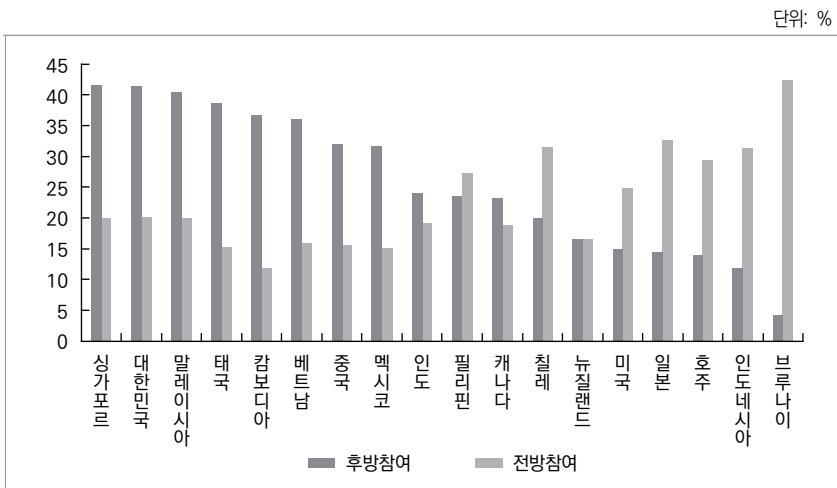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2017)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GVC 참여는 타국의 제품을 수입, 가공 후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후방참여(Backward Linkage)와 우리나라의 중간재나 서비스가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방참여(Forward Linkage)로 구분할 수 있다.<sup>68)</sup>

우리나라 GVC 후방참여도는 41.6%로 OECD가 2015년 10월에 발표한 TiVA 데이터 분석대상 57개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VC 전방참여도는 24.4%로 후방참여도에 비해 절반정도이며, 일본(33.0%), 미국(28.5%) 뿐만 아니라 대만(29.5%), 인도네시아(29.3%)보다도 낮아 중간재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GVC 전방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69)</sup>

그림 3-4. 국가별 전후방 GVC 현황



자료: OECD TiVA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10.8.).

68) OECD(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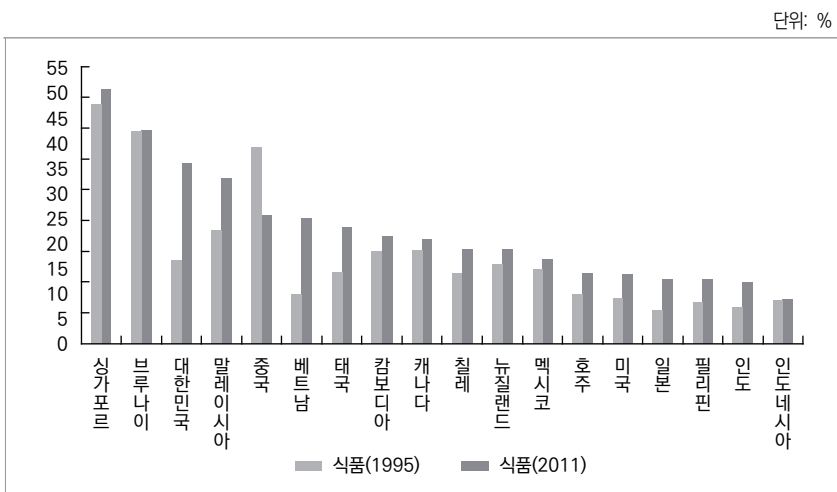
69) OECD(2015).



## 나. 농식품 부문 GVC 현황

우리나라의 식품 부문 GVC 후방참여도<sup>70)</sup>의 경우 35.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식품 산업의 GVC 후방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액 가운데 중간재로 이용되는 수입산 농식품 원료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 베트남, 태국 등은 가공무역 형태의 식품 수출이 동일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그림 3-5. 국가별 식품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자료: OECD TIVA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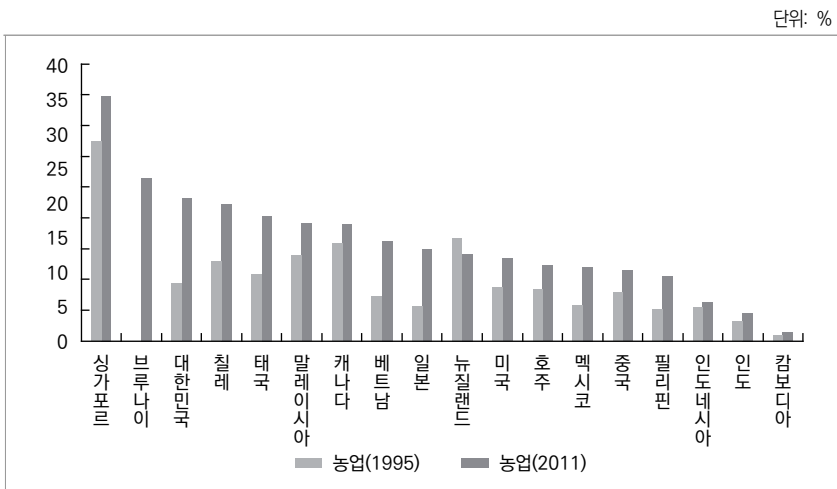
농업 GVC 후방참여도는 농식품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동일기간 GVC 후방참여도 증가세는 농업이 식품산업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

70) 주요국의 농식품 부문 GVC 중심으로 식품산업과 농업의 GVC 후방참여도는 '해당 산업의 총수출액 중 해외의 창출 부가가치의 비율(%)'로 추계함.

GVC 후방참여도는 2011년 기준 20.6%으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베트남, 일본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농식품 분야 GVC 전방참여도는 약 2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여 식품원료 등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낮다 (OECD, 2015; 김영훈 외, 2016).

그림 3-6. 국가별 농업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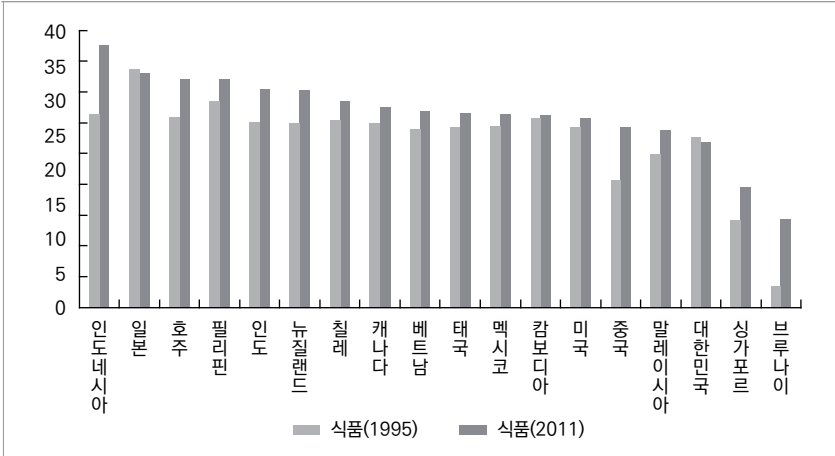


자료: OECD TIVA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10.8.).

다음은 식품 산업과 농업의 중간재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가 해당 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전방참여도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식품산업 관련 중간재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인도네시아(37.6%)가 가장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23.8%로 하위권에 위치하며, 동기간 다른 국가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중간재 수출의 경우 캄보디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으로 농업 중간재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55%로 중간 수준을 기록하였다.<sup>71)</sup>

그림 3-7. 국가별 식품 산업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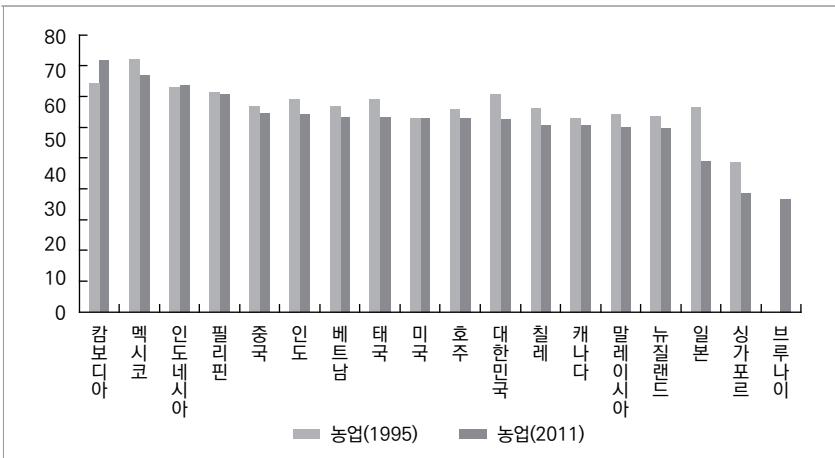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iVA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10.8.).

그림 3-8. 국가별 농업 관련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OECD TiVA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10.8.).

71) OECD(2015); 김영훈 외(2016).

정리하면, 상기 국가별 식품 산업과 농업 GVC 후방참여도 및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식품 분야 GVC는 전자, 철강, 기계 등 비농식품 산업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농식품 생산 공정의 첨단화, 생산의 계열화, 농식품 기업의 다국적 생산기지화 등으로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GVC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교류 및 분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영역이 관건인데,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중간재와 원자재 교역에서 원산지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FTA 체결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GVC 참여에 기여도가 높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농식품 분야 GVC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들 FTA 역내 농식품 분야 GVC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다른 경제권역 농식품 분야 GVC를 활용하는 것보다 농식품 수출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 다. GVC 참여와 역내 분업구조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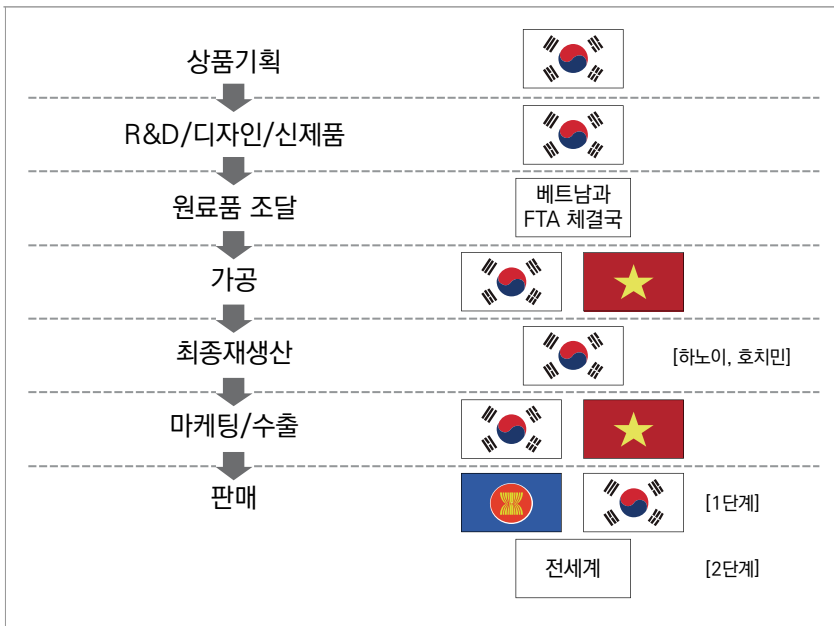
베트남 농식품 수출시장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는 전략시장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약 4배 가까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위까지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확대 주요인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발효로 관세인하 및 철폐 효과, 농식품 부문 SPS/TBT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 단일 및 누적조항 등으로 인한 GVC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즉, FTA를 통해 저비용·고품질 식품원료, 원료 농산물

무역이 원활해지면, 여기에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접목되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출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농식품 원료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 최종재의 국제분업 가공공장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농식품 분야 GVC 활용 대상국이 되고 있다.

결국,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체결국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과의 역내 무역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GVC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9. 한국-베트남 GVC 예시



자료: 저자 작성.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의 기획, 조달, 가공,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다수의 국가에 걸쳐 단계별로 어떻게 분업화하는지 그 특성을 살펴본다. 즉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업단계별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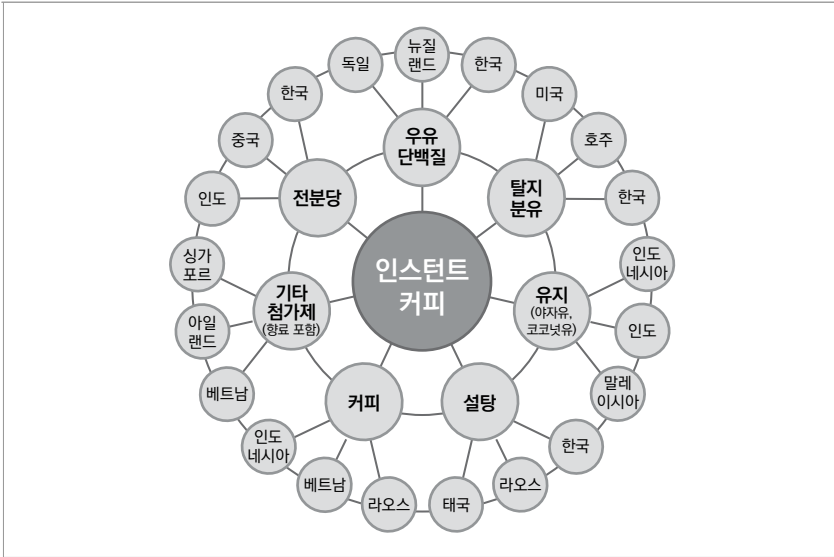
이에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써 최대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 분업구조 사례를 ① 인스턴트커피, ② 캔디류, ③ 빙과류(아이스크림 포함), ④ 라면, ⑤ 비스킷 및 과자류 등 5개 농식품 최종재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종재 생산지역은 베트남으로 가정하였다. 베트남을 최종재 생산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주요 농식품 원료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 대규모 농식품 최종재 생산의 국제분업 가공공장 역할도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인스턴트커피의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분업구조를 살펴보고, 나머지 캔디류, 빙과류, 라면, 비스킷 및 과자류 등 나머지 4개의 최종재 상품시장의 분업구조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국내 인스턴트커피는 동서식품, 한국네슬러, 남양유업, 농심에서 생산, 유통 및 수출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원료는 제조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커피, 설탕, 식물성 유지(야자유, 코코넛유), 탈지분유, 우유단백질(카세인), 전분당, 향료를 포함한 식품 첨가제 등이다.

〈그림 3-10〉은 베트남에서 조달 가능한 인스턴트커피 주원료별 잠재적 경로를 나타내며, 이 경로는 베트남의 공급 가능 품목 분석과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시장 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주원료인 커피는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수입시장에서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의 국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10. 베트남 내 인스턴트커피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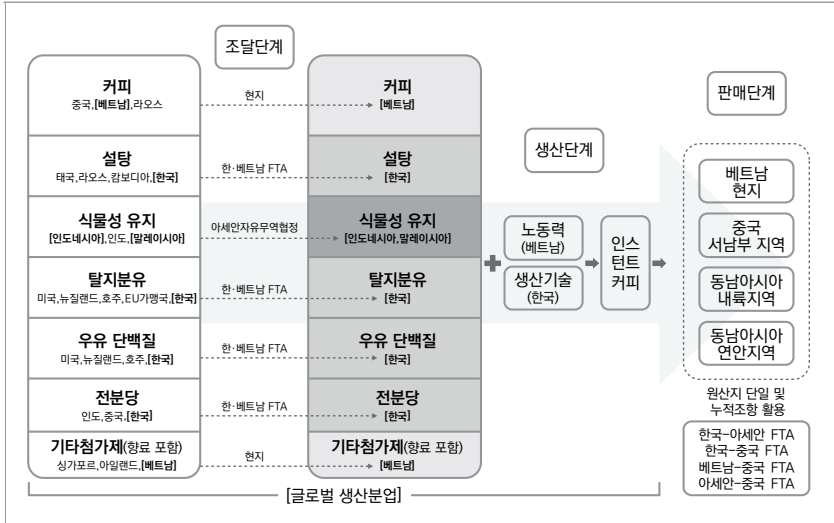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인스턴트커피 주원료의 공급 가능 경로는 원료조달 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 현지조달 및 베트남이 기체결 중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 대상국을 중심으로 단일국가 및 복수국가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판매 대상지역인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과 중국남부 지역을 고려하여 가공농식품의 원산지 부여 기준인 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판매지역 역내에서 원료 공급이 가능한 국가로 제한하였다.

〈그림 3-11〉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역내분업 과정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인스턴트커피 제조업체는 현지조달, 한-베트남 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원료 조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 원료별 공급지역을 살펴보면, 설탕, 탈지분유, 전분당, 우유단백질은 우리나라를 통해 조달받으며, 커피, 향료를 포함한 기타첨가제는 베트남 현지에서, 식물성 유지는 아세안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림 3-11. GVC 활용한 인스턴트커피의 역내분업 구조



한편, 생산단계에서는 주원료와 베트남의 노동력,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합되어 완제품이 생산되며, 완제품인 인스턴트커피는 원산지 단일 및 누적조항에 입각하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베트남-중국 FTA, 아세안-중국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베트남 현지, 중국 서남부지역, 동남아시아 내륙지역, 동남아시아 연안지역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베트남 지역에서 GVC를 활용한 인스턴트커피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종재인 인스턴트커피 제조에 필요한 원료 농식품인 설탕, 전지분유, 전분당, 우유단백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및 원료농산물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내의 협력국인 베트남도 우리나라 생산업체의 진출로 인해서 자국에서 생산한 커피, 향신료를 포함한 기타 첨가제 등의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력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 가. 수출증대 저해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

우리나라는 FTA 등을 통해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인증제도, 수입식품등록제도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저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은 검역 및 병·충해, 다양한 이질적 식문화 등으로 인한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와 같은 비관세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당 수준의 수출경쟁력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SPS 및 TBT와 관련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SPS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8단계에 걸쳐 수입위험분석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허가되는데 평균 7~8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관세이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수출증대의 주요 저해요인인 비관세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나. 베트남 비관세장벽 현황

#### 1) SPS와 TBT 조치

베트남이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SPS 위원회

에 정기적으로 통보한 비관세조치 건수는 총 122건(추가 및 수정 통보포함)에 달한다.<sup>72)</sup> SPS 조치의 목적과 사유별로는 인간건강이 전체 통보건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안전, 동물 및 식물 건강과 위생 등의 순이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최대잔류허용한도(MRLs), 인증, 방역, 검역 등이 있다.

표 3-28. 베트남의 WTO SPS/TBT 조치 통보건수

구분	SPS	TBT	
	전체	전체	농식품 대상
2008	4	4	-
2009	12	5	-
2010	7	6	4
2011	7	6	1
2012	11	4	2
2013	18	17	10
2014	18	16	1
2015	8	30	2
2016	14	19	3
2017	8	23	-
2018	15	23	-
전체	122	153	23

주: TBT 전체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TBT의 농식품 대상 통보건수를 재집계함.  
 자료: WTO,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SPS 위원회에서 베트남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과 관련하여 논의된 건수는 2008~19년 총 15건이다(표 3-29). 이 가운데 베트남은 수산물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2건의 STCs를 제기하였다. 베트남이 이의 제기 받은 건수는 9건이며 축산물과 관련된 수입금지 조치와 농식품 법안과 관련하여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베트남

72) 자료: WTO,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남이 STCs 지지국으로 참여한 건수는 4건으로 주로 베트남의 주요 농식품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EU의 농업 관련 법안과 관련된다.

표 3-29. 베트남의 WTO SPS 조치 특정무역현안 참여 현황

구분	STC 번호	대상조치	목적 및 사유	제기국	최초 제기	최종 제기	반복 횟수	해결 여부
제기 사례 (2건)	289	태국의 매기 수입금지	방제, 검역, 승인절차, 식품안전, 인간건강	베트남	2009	2016	8	미보고
	437	사우디아라비아 어류, 갑각류, 기타 수생동물 제품에 대한 일시 수입금지	동물질병, 동물건강, 잠정조치, 식품안전, 국제기준(조화), 인간건강	베트남	2018	-	0	미보고
피제기 사례 (9건)	314	설육 수입금지	식품안전, 인간건강, 과학적 증거	EU, 미국	2011	2013	8	미보고
	418	땅콩종자 수입금지	식물건강, 국제기준(조화), 병해충, 종자, 위험평가	시네갈	2017	2018	3	미보고
	438	백색 설육 시장접근 요건	부당한 지연, 인증, 방제, 검역, 승인절차, 국제기준(조화)	뉴질랜드	2018	2019	1	미보고
	450	가축생산법(안)의 수입제한	국제기준(조화), 최대잔류허용한도(MRLs), 식품안전, 인간건강	미국	2018	2019	1	미보고
	398	과일 초파리로 인한 과일 수입금지	국제기준(조화), 지역화	칠레	2015		0	해결
	399	식물제품 수입금지	식물건강, 위험평가	칠레	2015		0	부분 해결
	401	낙농품, 육류의 수입 승인 지연	동물건강, 방제, 검역, 승인절차, 부당한 지연	칠레	2015		0	미보고
	435	동물용 의약품 MRLs 관련 수정 법안	식품건강, MRLs, 국제기준(조화), 인간건강, 과학적 증거	미국	2018		0	미보고
	462	멜론, 생축, 쇠고기 및 기타 육류, 골분 수입금지	투명성, 방제, 검역, 승인절차, 인증, 부당한 지연, 위험평가	브라질	2019		0	미보고

표 3-29. 계속

구분	STC 번호	대상조치	목적 및 사유	제기국	최초 제기	최종 제기	반복 횟수	해결 여부
지지 사례 (4건)	85	새우와 관련 제품에 대한 호주의 수입금지	동물건강, 동등성, 위험평가, 과학적 증거	중국, 태국	2001	2007	9	부분 해결
	300	도축시 동물보호에 관한 EC 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No. 1099/2009)	동물건강, 동등성, 국제기준(조화), 동물복지, 방제, 검역, 승인절차	인도	2010	2011	3	미보고
	382	환경호르몬 성분분류에 관한 EU 개정안	식품안전, 인간건강, 국제기준(조화), 과학적 증거, 병해충, 위험평가, MRSs	호주, 중국, 인도, 미국	2014	2019	14	미보고
	335	EU 농약잔류량 검증	방제, 검역, 승인절차, 식품안전, 인간건강	인도	2012		0	미보고

자료: WTO,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베트남 관련 TBT 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는 총 153건이며, 이 가운데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는 23건에 달한다(표 3-28). TBT 조치의 목적 및 사유별로는 인간 건강 및 안전보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요건, 기만적 행위 금지 및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의 순이다.<sup>73)</sup>

베트남이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지만, 농식품 관련 통보건수 23건 가운데 이의제기를 받은 건수는 4건으로 주로 알콜성 음료와 주류제품, 식품안전법령과 관계된다(표 3-30).

73) 자료: WTO,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표 3-30. 베트남의 WTO TBT 조치 특정무역현안 제기 받은 사안

STCs 번호	대상조치	품목	제기국	제기사유	목적 및 사유	최초 제기	최종 제기	반복 횟수
532	알콜음료 수입 시 적용되는 의무요건	포도주	멕시코	차별화, 투명성, 과중한 수입요건, 선적별 인증서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	2017	2018	2
356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이행 시행령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원료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EU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인증서 요구, 관련 법령 이행 연기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 식품안전	2012	2013	3
349	주류제품 관련 생산 및 수출입 규정	포도주, 발효주, 무변성 에틸알콜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미국, UE	수출 전 주류제품 포장에 의무 수입인지 부착, 주류제품거래 허가, 관련 법령 이행 연기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	2012	2012	1
267	알콜음료 식품안전 기술규정	알콜음료	칠레, 호주, 멕시코, 미국, EU	가공 알콜성 음료에 대한 주원료(물, 식용알콜 포함) 관리 및 기술 규정, 안전규격(화학 및 미생물 요인, 중금속, 식품첨가물 포함), 라벨링 요건, 시장접근 저해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 기반적 관행 금지, 소비자 보호	2010	2010	1

자료: WTO,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 2) 기술규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농식품 시장 수출에서 직면한 비관세장벽 조치의 대부분은 기술 규제(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31>.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기술규제, 관세할당, 민감품목의 수입금지, 내국세 등이며, 이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은 조치는 기술규제이다. 베트남 수출 시 기술규제 비관세조치가 발생한 주요 품목 유형은 신선농식품 보다는 거의 대부분 가공식품이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 시 실제 발생한 베트남 비관세조치의 기술조치 유형으로는 ‘수입유통을 위해 과도한 시간 소요’와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및 운영 부적절’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관세 조치 내용상 기술규제에 해당하며, ‘외국기업과 농민간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는 일반적인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표 3-31. 베트남의 NTM

구분	NTM 분류	내용	빈도	주요 해당품목
1	1400	저울관세할당	3	조란,사탕수수당 는 사탕무당 화학으로 순수한 자당,담배
2	2300	내국세 부과금	7	주류, 담배
3	5100	자동차가	6	산동물
4	6370	민감품목금지	2	채유용에 합한 종자와 과실,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것으로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우룻가사리와 기타 액과 농화제
5	7100	단일수입채널 (국영무역기업)	2	담배
6	8100	기술규제	53	산동물,산식물( 뿌리포함) ,식물의 잎·가지 기타의 부분과 풀·이끼 및 지의, 채두류, 채소, 과실,견과류, 커피, 차류, 마태, 향신료, 베이커리제품,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오일케이크 고품의 유박, 식물성 박류 부산물, 사료용 조제품

주: 빈도는 해당 NTM에 의해 영향을 받는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 기준)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김경필 외(2015).

### 3) 통관상의 문제

다음으로 농식품 수출업자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은 통관상의 문제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61건의 해외통관애로 총 건수 가운데 9.8%인 45건이 베트남에서 발생했다.<sup>74)</sup>

베트남에서 통관절차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관시스템의 비효율성이다. 베트남은 2013년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모든 신고를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관신고가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했다.<sup>75)</sup> 반면, 2014년 베트남 재정부가 세관통관 간소화를 위한 결정서(Ns.

74) Kati,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86>(검색일: 2019. 10. 21)와 EC21. n.d. 시장분석보고서(베트남).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시설자재편 내용을 종합 정리함.  
 75) 산업통상자원부(2018).

509/QD-BTC, 510/QD-BTC)를 공포했는데, 물류시스템이 주변국에 비해 열악하여 오히려 이 결정서로 인해서 통관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둘째, 세관별 상이한 통관기준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다. 세관당국 별로 HS 코드 세분류와 통관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낙후되고 부패한 통관시스템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세관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이다. 다양한 세관 담당부서와 정부기관들이 통관과정에서 다양한 승인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통관이 복잡하고 느리게 처리되고 있다.

##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 가. 민간업체의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의 민간업체는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에 6,883건에 이르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졌고, 약 4,2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업 분야 민간업체는 곡물, 열대과일, 식품가공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6)</sup>

초기에는 대기업 주도로 가전과 제철업 분야에 역점을 두어 진출하였다. 베트남·미국 FTA 발효(2001년)로 미국 대상 우회 수출전진기지로 베트남의 가

---

76) KOTRA(2016).

치가 높아짐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WTO가입(2007년)을 계기로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 대형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 기업의 對 베트남 신규투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3년 이후 한국 전기전자 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는 등 분야의 고도화·다원화와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표 3-32. 베트남 진출 주요 한국 기업 현황

진출지역	기업명	진출 분야
하노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	제조업
타이응우옌	삼성전자 베트남 Thai Nguyen 법인(SEVT)	제조업
하노이	한일(주) 하노이사무소	제조업
박닌	삼성 디스플레이	제조업
하노이	경남비나(현지법인)	건설
호치민	금호타이어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제조업
호치민	태광비나	제조업
카인호아	현대비나신조선소	제조업
호치민	현대비나신조선소	제조업
하노이	SK텔레콤 베트남	서비스업
하노이	동리원비나	건설
하노이	대하법인(대우호텔)	서비스업
푸터	방림네오텍스(비엠티본사)	제조업
하노이	방림네오텍스(하노이지사)	제조업
호치민	다이아몬드플라자	서비스업
호치민	화승비나	제조업
호치민	롯데베트남쇼핑	서비스업
하노이	대한생명보험(주)	금융, 보험
남딘	영원남딘(주)	제조업
하노이	대우하발전자(공장)	제조업
호치민	창신베트남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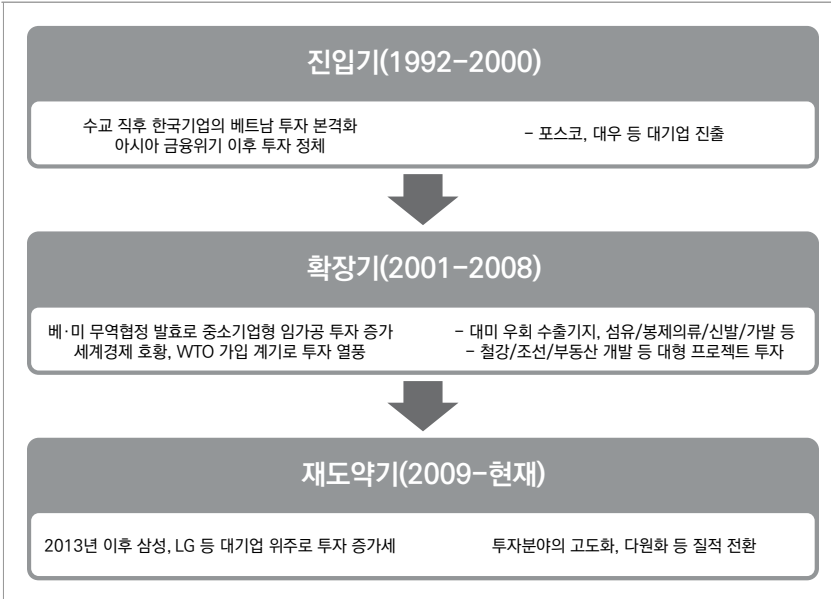


표 3-32. 계속

진출지역	기업명	진출 분야
흥첸	아성비나	제조업
하노이	미원 베트남	제조업
하이퐁	VPS	제조업
호치민	오리온	제조업
호치민	TSC(대한전선합작법인)	제조업
흥옌	현대알루미늄비나	제조업
호치민	CS윈드타워	제조업
호치민	삼성비나일렉트로닉스	제조업
호치민	포스코 베트남	제조업
호치민	CJ대한통운	운수업
호치민	이마트	도소매업
호치민	한세실업	제조업
호치민	호성베트남	제조업
호치민	LS 전선 베트남	제조업
꽝응아이	두산 중공업 베트남	제조업
동나이	락앤락	제조업
호치민	미래에셋증권	금융
빈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화학, 의약
빈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업
박닌	한화테크윈	제조업
동나이	롯데첨단소재	화학
호치민	삼일제약	제조업
하이퐁	LG 디스플레이	제조업
하이퐁	LG 이노텍	제조업
호치민	롯데자산개발	부동산업
빈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업

자료: KOTRA, www.kotra.or.kr/해외투자정보(접속일: 2019. 8. 21).

그림 3-12.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자료: KOTRA, <http://www.kotra.or.kr/hochiminh>(검색일: 2019.10.25)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승인 후 최근까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약 2,688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2018년 누계기준 한국(595억 달러), 일본(506억 달러), 싱가포르(435억 달러), 대만(318억 달러) 순으로 투자가 많다. 한국은 누계 투자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sup>77)</sup>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투자유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부가가치와 현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

77) KOTRA, <http://www.kotra.or.kr/hochiminh>(검색일: 2019. 10. 25).

를 지양하고 첨단기술 산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중앙 정부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책 시행을 통해 기술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전자, ICT, IT, 자동차/부품, 첨단 농업, 친환경 제품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KEFICO 베트남, 크루셀텍 베트남, FLEXCOM, 대영전자 등 54개사가 하이텍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 산업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sup>78)</sup>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DB) 2018」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7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73위), 필리핀(95위), 캄보디아(144위), 라오스(154위), 미얀마(165위) 등 인근 국가보다 높은 순위이다.<sup>79)</sup>

베트남 투자법 상 무역업과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대형 할인매장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시장 개방에 따라 무역 분야와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조건부 허가이며, 품목 제한이 있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업(Export Rights)과 수입업(Import Rights)의 경우는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며,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법에 따른 수입 절차에 준한 제품에 대한 유통 권한을 가진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출업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매 조합(network)을 구축할 수 없고, 수출

---

78) KOTRA, <http://news.kotra.or.kr>(검색일: 2019. 9. 2).

79) World Bank(2020).

금지 품목, 잠정 수출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출 권한으로 한정된다. 더불어 수입업도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 조합(network)을 구축할 수 없으며, 수입 금지 품목, 잠정 수입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입, 유통업 허가를 보유한 합법적인 유통업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다. 유통업의 경우는 단독 투자가 가능하며,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를 개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통업과 무역업의 경우 모두 허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부수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일부 민감 품목(쌀, 담배, 출판물 등)을 취급할 수 없고, 법인 설립이 다른 업종에 비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베트남은 제도과 규정이 철저하지 못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며 권한도 과다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측면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sup>80)</sup> 더불어 도로, 철도, 항만 시설이 부족하여 운송 시간 및 운송료 등 부수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내 육상운송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나, 5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또 낙후된 장비를 사용하여 고장이 잦는 등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sup>81)</sup>

## 나. 해외농업자원개발 현황

한국의 민간업체가 해외농업 개발을 위해 진출한 국가는 29개국(2018년 12월까지 누적 신고기업 기준으로는 179개)으로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고, 러시아(극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도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80) KOTRA(2016).

81) 이대섭 외(2017).

민간업체는 곡물 등 식량작물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조사료, 시설원예 작물과 열대과일, 버섯, 축산, 감자, 카사바와 팜유와 같은 유지 작물도 생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캄보디아(31개), 인도네시아(20개), 필리핀(13개), 라오스(11개), 베트남(11개), 미얀마(5개) 등 6개 국가에 총 91개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sup>82)</sup> 이들 기업은 주로 축산업, 카사바, 옥수수, 대두,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신고기업을 179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파악해보면 총 49개 기업으로, 러시아 7개 기업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10개 기업, 인도네시아 4개 기업, 라오스 2개 기업, 베트남 6개 기업, 미얀마 1개 기업 등이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3-33>과 같다. 개발면적(약 45,500ha)이나 확보량(약 415,000톤)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팜스코(인니), 포스코대우, 제이씨케미컬 등의 기업이 대규모 농지를 임차하여 옥수수와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로 반입한 실적은 없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실적이 많은 국가는 캄보디아이며, 2018년 실적은 각각 3,800ha(2017년 6,500ha)와 84,000톤(2017년 약 10만 톤) 수준으로 옥수수, 카사바, 후추, 망고 등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MH에탄올 실적이 대부분이며, 이 기업은 투자 초기 에탄올 생산에 역점을 두었으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망고와 유칼립투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전환하였다.

---

82) 한국농어촌공사(2019).

표 3-33. 동남아 진출기업 해외농업 개발 실적

기업명	개발면적(ha)			확보량(톤)			반입량(톤)
	'17실적	'18실적	'19계획	'17실적	'18실적	'19계획	'18실적
캄보디아	6,544	3,863	8,628	97,918	84,323	131,538	12,469
에이퍼플	-	196	-	-	1,002	-	-
MH에탄올	4,744	2,476	7,390	55,280	63,515	109,700	12,400
성문	500	500	500	9,000	10,000	10,000	69
전남해외농업자 원개발	-	270	400	-	5,600	11,500	-
엔티디	1,300	-	-	33,638	-	-	-
현대종합상사	-	308	338	-	1,402	338	-
신승산업	-	112	-	-	2,804	-	-
인도네시아	45,411	45,478	55,790	303,899	414,943	437,879	-
팜스코(인니)	15,305	13,749	24,000	76,527	71,495	120,000	-
제이씨케미칼	5,044	3,649	5,337	110,100	110,833	178,200	-
포스코대우	23,779	28,080	26,453	87,772	232,615	139,679	-
농협사료	1,283	-	-	29,500	-	-	-
라오스		12	33		15	43	-
에코프라임	-	12	33	-	15	43	-
베트남	107	161	196	1,606	1,584	3,011	1,274
글로벌팜	60	60	95	945	574	1,000	274
목포도시가스	46	100	100	648	1,000	2,000	1,000
한국삼공	1	1	1	13	10	11	-
미안마	671	12,233	30,558	1,370	46,216	116,122	400
군열무역	671	176	-	1,370	400	-	400
포스코대우	-	12,057	30,558	-	45,816	116,122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9)를 토대로 재구성.

베트남의 경우 약 161ha에서 1,600톤의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그리고 딸기를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글로벌팜은 바나나, 목포도시가스는 옥수수와 카사바, 그리고 한국삼공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팜과 목포도시가스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각각 274톤과 1,000톤 국내로 반입(2018년)한 실적이 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은 2019년 재배면적 확대 등 투자를 늘리고

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농업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전력, 상수도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 또한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sup>83)</sup>

이 밖에 식품가공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분포한다. 가령, CJ Vina Agri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롱안(Long An) 지역에서 1999년부터 활동 중이며, CJ의 양돈, 종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식품산업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sup>84)</sup>

## 다.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핵심 ‘3P’를 아우르는 경제협력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 수준으로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세부 정책내용에서는 ‘농촌개발·농업기술 ODA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물 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등’과 같이 대상이 되는 저개발 아세안 국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sup>85)</sup> 즉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영역의 남방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한 국익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 국가의 사회,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P의 목표 아래 추진과제는 16개가 있고 그 가운데 농업과 관련이 있는 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3-34>와 같다.

---

83) 이대섭 외(2017).

84)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8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7).

표 3-34. 신남방정책 추진과제 및 농업관련 과제의 세부내용

16개 추진과제	세부내용
사람 (People)	① 상호 방문객 확대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④ 공공 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⑤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퇴치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및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li> <li>• (이행방안) 농촌개발·농업기술 ODA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물 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등</li> </ul>
상생번영 (Prosperity)	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 및 농·수산(K-Food, 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li> <li>• (이행방안) 한류박람회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홀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자 시장진출 지원</li> </ul>
	⑩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인도간 4차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li> <li>• (이행방안) 5G, K-Smart (Smart-City, Smart-Factory,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 * 국내외 스타트업 공동 R&amp;D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해외스타트업 협업이벤트 개최 등</li> </ul>
⑪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li> <li>• (이행방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인니),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베트남, 미얀마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등)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사업화 지원</li> </ul>	
평화 (Peace)	⑫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⑭ 국방·방산 협력 확대 ⑮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7).

사람분야(People)는 인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농촌개발 및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한류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베트남에는 2019년 농촌개발프로젝트가 신규로 추진되는데 여기



에는 마을지도자 연수, 마을 인프라 보수, 영농기술 전수, 저장창고 및 건조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지원되며 이는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번영분야(Prosperity)에서는 무역·투자 증진과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진출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해 신남방 국가의 무역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인프라 수주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화공동체분야(Peace)에서도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농림수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는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은 신남방정책에서 언급하는 사람·평화·상생 번영 모두에 해당하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즉,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사업은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더불어, 중소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원은 농업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베트남 농업의 혁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ODA 사업으로 베트남 측의 요구가 높은 분야이다.

## 제4장

K

PMW

#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 가. SDGs 달성 현황<sup>86)</sup>

베트남은 2017년 5월 SDG 국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17개의 자체목표(VSDGs)와 11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2018년 이행 점검 결과, 빈곤퇴치(목표 1), 초등학교 등록률(목표 4), 안전한 수자원 접근성 향상(목표 6), 전기 보급률(목표 7)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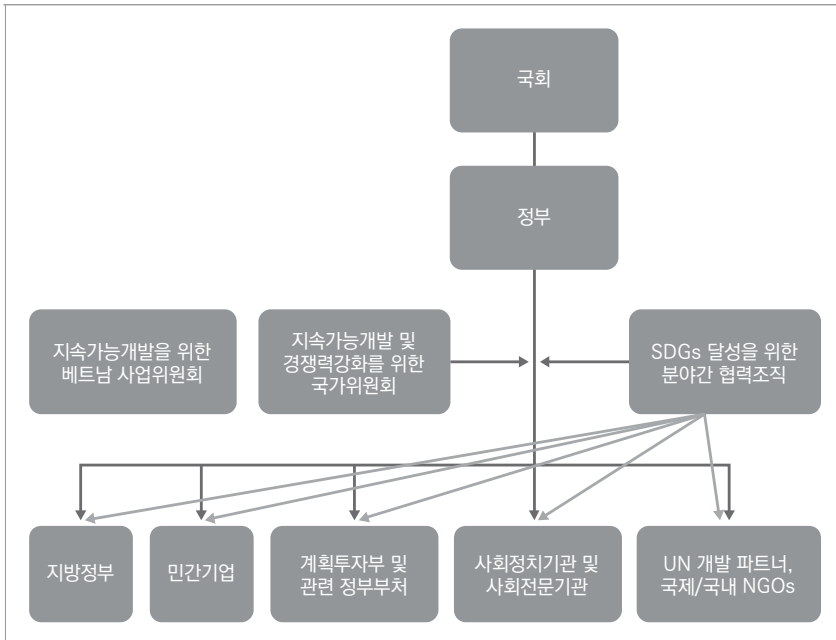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는 소수 민족의 빈곤율을 낮추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빈곤퇴치(목표 1)의 주요 목표로 하여, 2014년 57.8%에서 2016년 44.6%로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다원적 빈곤율<sup>87)</sup>은 2016년 9.2%에서 2017년 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2와 관련해서는 식량부족을 겪는 인구 비중이 2016년 자연재해 등으로 전년 대비 16.7% 늘었으나 이듬해인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1.7% 감소하였다. 그러나 5세 이하 아동의 영양결핍률은 2015년 14.1%에서 2017년 13.1%로 1%p 감소하는데 그쳤다. 목표 6 달성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과 소수민족의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국가 수자원 전략 및 신농촌개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개선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도시 인구도 84.5%까지 상승했다. 목표 15(생물 다양성)에서는, 18개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2017년 대부분의 국유림의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매년

86)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8)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87) 다원적 빈곤율(Multi-dimensional poverty): 농촌 지역에서는 한 달 평균 수입이 700,000 VND(35,000원)이하이거나 임금이 700,000 VND(35,000원) ~ 1,000,000 VND(50,000원)이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3가지 이상에 대해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한 달 평균 임금이 900,000 VND(45,000원) ~ 1,300,000 VND(65,000원)이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3가지 이상에 대해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of Vietnam, 2018: p. 28 각주 9).

225,000ha의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 면적이 41.5%(2017년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이 목표로 한 2020년 42% 달성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4-1. 베트남의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조직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다원적 빈곤 문제, 2) 사회적 그룹 간 불평등, 3)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SDGs 이행달성도를 높이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정부 기관, 기업, 국내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SDGs 인식도 제고, SDGs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통계지표 시스템 수립, SDGs와 국가 장기 개발전략 간의 정책 적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특히 SDGs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

## 나.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개발협력 정책

### 1) 국제기구, 공여국의 지원 정책

#### 가) 식량농업기구(FAO)<sup>88)</sup>

FAO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자원환경부(MONRE), 보건부(MOH)의 정책을 바탕으로 베트남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The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17-2021)」를 수립하였다. 이는 베트남에서 수행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SDGs의 맥락에서 식품, 농업, 임업, 수산업 및 농촌지역 개발의 우선 추진 국가 정책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4개 우선 프로그램은 첫째, 빈곤, 영양실조 완화와 식량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식량안보 확보로,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5에 해당하는 개선된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의 발육저하 비율을 2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둘째, 개선된 자원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전략 및 국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는 2020년까지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의 42%까지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SED)의 목표 6, 즉 개선된 자원관리 및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영향력 제시에 부합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FAO는 베트남 정부가 녹색성장전략(GGS)을 이행하고 자원관리(NRM)와 기후변화경감(CCM)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신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빈곤 경감으로, 경제의 재구조화, 생산성, 경쟁력에서의 약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2를 달성하는데 있다. 이는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

---

88) FAO(2017).

(NTP-NRD)」에서 언급한 '2020년까지 코뮌(commune)의 50%에서 새로운 농촌개발기준 달성,' '농촌 지역 소득 2015년 대비 1.8배 증대 달성'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재난과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의 회복탄력성 강화로, 이는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5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개선된 접근성 및 목표 6인 개선된 자원관리 및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영향력 제시와 관련이 있다.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가 기후변화적응(CCA)과 재해위험관리(DRR)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미국 국제개발처(USAID)<sup>8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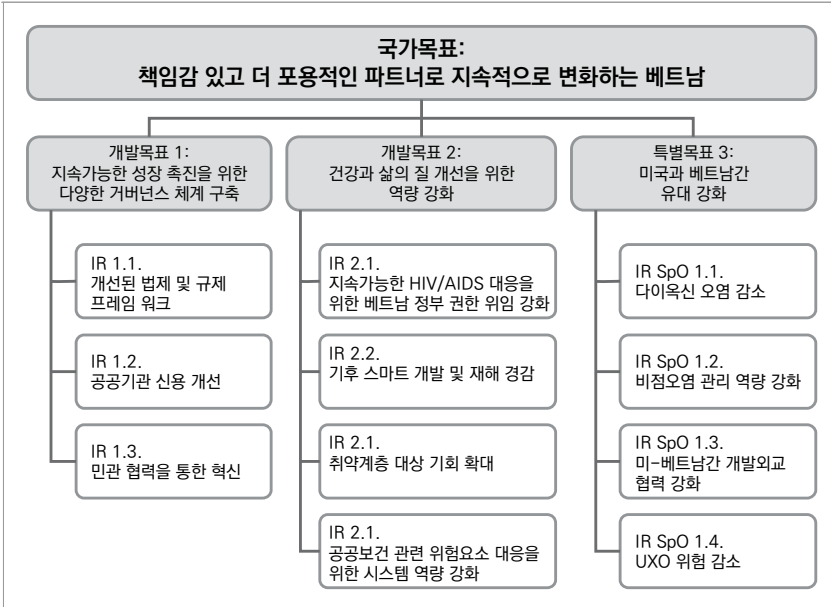
USAID의 「베트남 국가개발협력전략 2014-2019」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의 외교정책, 경제상황, 거버넌스, 보건 및 인적자원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그리고 생물다양성, 성평등, 베트남의 개발 우선순위 분야 및 공여국과의 협력 사항을 고려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USAID는 궁극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로 '책임감 있고 더 포용적인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베트남'이라고 설정하였다. 개발 목표로 1) 다양한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2)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 3) 미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의 진전 등을 명시했다. 각 목표별 세부사항은 그림<4-2>와 같다.

---

89) USAID(2013).

그림 4-2. USAID의 베트남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자료: USAID(2013), pp.23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 2) 다자개발은행의 지원정책

###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sup>90)</sup>

IFAD는 급변하는 경제구조와 도시화, 그리고 중소득국으로의 기회와 도전에 당면한 베트남의 농촌지역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해 베트남 「국가전략기회 프로그램(The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2-2017)」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정부 원조합동청<sup>91)</sup>(GACA)과의 논의 및 베트남 11개 지역에서 IFAD의 사업을 담당하던 관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

90) IFAD(2012).

91) 정부원조합동청(the Government Aid Coordination Agencies):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베트남 계획투자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and Finance), 농업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및 외교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구성됨.

해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초안은 특히 1) 민간기업과의 협력, 2) 지역적 접근에 기반한 빈곤 경감, 3) 빈곤 기초선 분석 및 4)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 빈민 농가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시장주도 혁신 및 성장, 2) 군 단위에서의 역량강화, 3) 도 단위에서의 제도·정책적 개혁을 통해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의 시장 주도 친빈곤 혁신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시장 주도 및 민간협력(PPP)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 전략의 주된 목적은 1) 빈곤한 농촌 지역이 시장주도의 친빈곤 농촌개발을 실행하도록 돕고, 2) 여성을 포함한 농촌 빈곤층의 상품 및 노동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3) 빈곤 농촌 가구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IFAD는 사업지역으로 동북쪽 산간지방 및 중부 메콩강 유역을 선정하였는데, 특히 이 지방은 여성, 청소년, 소수민족을 포함한 빈곤한 농촌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IFAD는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부처와의 협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기획투자부(MPI)는 베트남에 지원되는 사회경제 개발 ODA를 공여국과 협의하는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IFAD가 지원하는 자원과 자원을 계획하고 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업·농촌분야의 기술정책 자문 및 협력하는 기관으로는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있으며, 특히 중앙 정부에 농업·농촌개발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인 농업농촌개발정책전략연구원(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PSARD) 등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자원환경부와 협력하고, 농업은행(Agribank), 사회정책을 위한 베트남 은행, 베트남여성조합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나) 세계은행(World Bank)<sup>92)</sup>

「세계은행 파트너십 전략(WBG Partnership Strategy)」에서는 베트남이 203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번영, 창조, 평등,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국가’를 위해 필요한 6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2) 국가의 기술혁신역량 개선, 3) 활력적인 도시와 도시 중심부를 위한 투자 및 정책 재설정, 4) 기후변화패턴에 적응력과 탄력성을 증대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통로 제시, 5) 조화로운 중산층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한계계층 사이의 포괄성과 평등 촉진 및 6) 법치국가와 민주사회의 현대화된 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세계은행의 「WBG FY 18-22 계획」에서는 3개의 중점분야와 11개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파트너십 전략」에서 제시한 중점분야 및 목적이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목표 중 15개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범분야로 거버넌스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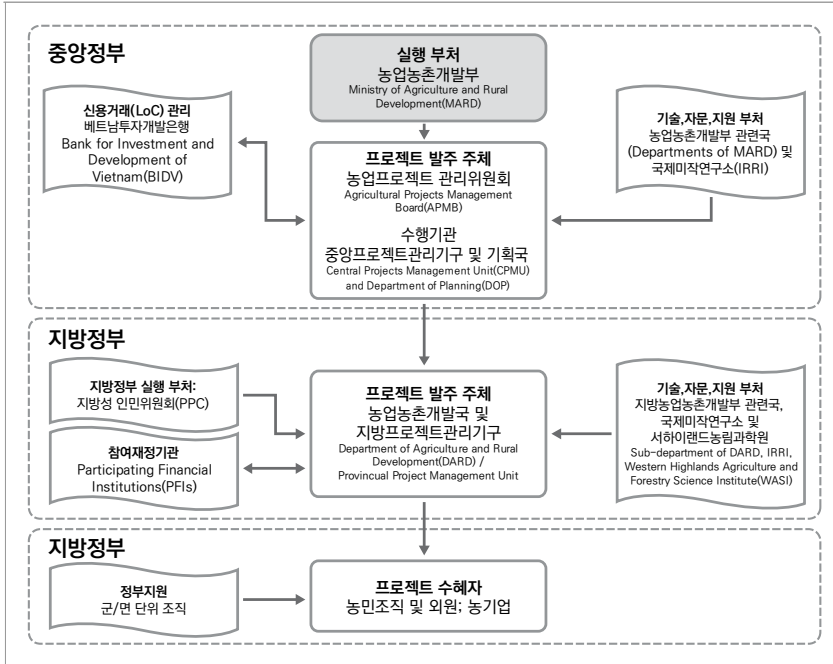
〈그림 4-3〉은 세계은행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베트남 지속가능한 농업전환 프로젝트’의<sup>93)</sup> 수행체계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정부의 단계별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나타내고 있다.

---

92) WBG(2017).

93)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속가능한 농업전환 프로젝트(Sustainable Agriculture Transformation Project)」.

그림 4-3.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속가능한 농업전환 프로젝트 수행체계도



자료: World Bank (2015).

#### 다) 아시아개발은행(ADB)<sup>9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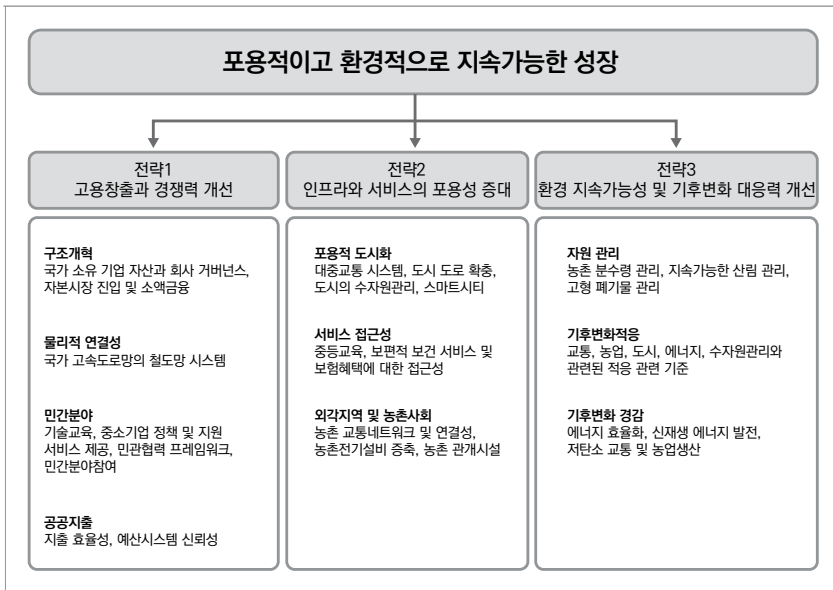
ADB는 '더 포괄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정하고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서는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P) 2016-2020」,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1), ADB의 「2020 중장기 전략」 검토서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이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개의 중점 전략을 두고 있는데, 이는 1) 고

94) ADB(2016).

용창출 및 경쟁력 촉진, 2) 인프라와 서비스의 포용성 증대, 3) 환경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ADB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4. ADB 베트남 국가 파트너십 전략 2016-2020 개요



자료: ADB 국가 파트너십 전략서 2016-2020(2016), pp. 1-8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상 앞에서 소개한 각 국제기구, 공여국, 다자개발은행과 추가로 일본 JICA 등의 베트남 지원분야를 정리하고 분류한 것이 <표 4-1>이다.

표 4-1. 국제기구별 베트남 지원 사업 분야 및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사업분야
F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통합 식량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안화활동 (NAMA) 개발</li> <li>베트남 해충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역량강화</li> <li>국가중점 프로그램(NTP-NRD) 개발 지원</li> </ul>	농업 정책, 농업 기술, 농촌 개발, 농업 금융
IF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안 및 카오방 지역 소규모 상업농 지원</li> <li>하지양성 농산품 기반 기근 줄이기 프로그램</li> <li>메콩델타 지역 벤트리성 및 트라빈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li> </ul>	농업 정책, 농업 금융, 농촌 개발, 인프라 개발
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연안자원</li> <li>베트남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li> <li>메콩델타 지역 도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li> <li>베트남의 관습·법: 공공분야 이해충돌 관리</li> <li>학교 읽기 능력 향상 프로젝트(SRPP)</li> </ul>	지속가능 개발, 민간 부문 개발, 공공부문 재정 정책·역량 지원, 교육 및 고용시장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니예안 물공급하사를 위한 통합적 무수수량(NRW) 및 자산관리 시범사업 지원</li> <li>베트남 투자기금 조성 프로젝트</li> <li>농촌지역 전기인입시설 지원 프로젝트</li> <li>호치민 기후변화 탄력성 강화 프로젝트</li> </ul>	투자·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고용 창출 촉진, 지속가능 개발
USA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li> <li>기술혁신을 통한 산학협업개발 구축 프로젝트</li> <li>기술지원(SHIFT)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HIV 대응</li> <li>베트남 배출가스 저감 에너지 프로그램(V-LEEP)</li> </ul>	경제 성장정책, 거버넌스, 교육 및 보건, 지속가능 개발
J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치민 산업대학 중화학공업분야 인적자원개발</li> <li>소비자 보호법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젝트</li> <li>호아락 과학기술도시 개발 프로젝트</li> <li>니예안 농업분야 개발계획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트</li> <li>빈동성 대중교통 관리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li> <li>초레이지역 일-베트남 우정 병원 프로젝트</li> </ul>	농업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민간부문개발 거버넌스·정책, 보건 및 교통, 기후·환경관리
DF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시스템 기반 베트남 인권, 민주주의 지원</li> <li>베트남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근절 프로젝트</li> <li>베트남 더 좋은 보건 프로그램</li> </ul>	인권 지원, 보건정책 지원, 야생동물보호
GI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개선 프로젝트(TVET)</li> <li>베트남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통한 기후보호</li> <li>베트남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li> <li>직업교육 센터 지원</li> </ul>	사회개발, 환경·기후변화, 경제개발 및 고용, 지속가능 인프라

자료: 각 국제기구별 홈페이지 내용(2019)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에너지, 도시 개발, 해양 및 담수 관리, 투자기금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식량농업 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량 생산, 농업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소농 지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농촌개발 및 농업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USAID)은 농업부문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빈곤극복, 영양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베트남간 외교 협력 강화를 특별목표로 별도 지정하여 환경관리, 불법탄 제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JICA)의 경우 농업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교통, 병원 건립 등 인프라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DFID)은 인권, 보건 정책, 야생동물 보호 등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GIZ)은 기술 직업 교육·훈련, 직업 교육 센터 등 사회개발과 바이오에너지 등 기후변화·환경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B, ADB가 지원한 농촌 지역의 에너지, 도로 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장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목표로 하거나, 소농의 기업 연계를 통한 가치사슬 확대,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종자 및 재배기술 연구개발 등 사업의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3)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정부의 개발 수요,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기 지원사업의 효과 및 타 원조기관과 협력 등을 고려하여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등 4개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상의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항만, 내륙수로 등 종합국토개발을 위한 교통정책, 교통 인프라 개발지원, PPP 방식을 활용한 고속도로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행정의 경우,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6~2020의 목표인 경제·사회·환경 개발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공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물 관리 및 보건위생은 기후변화 및 보건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및 질병 관리와 이에 대한 역량강화, 폐기물 관리 및 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한 보건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교육 분야에는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과 취약계층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과 같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 농업(지역개발)이 중점 지원분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가 다수의 농업·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CPS와는 별도로 중점협력 분야로 교통, 고등교육 등 이외에 농업을 포함시킨 베트남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sup>95)</sup>

## 다. 개발협력 분야 생태계 분석

### 1) 개발협력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베트남의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는 ODA와 차관을 모두 총괄하며 개발원조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까지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국회에서 승인한 정부부채 및 민간기업 부채 상한선을 지키며 양허성 차관 및 ODA 등록과 관련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계획투자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및 차

---

95)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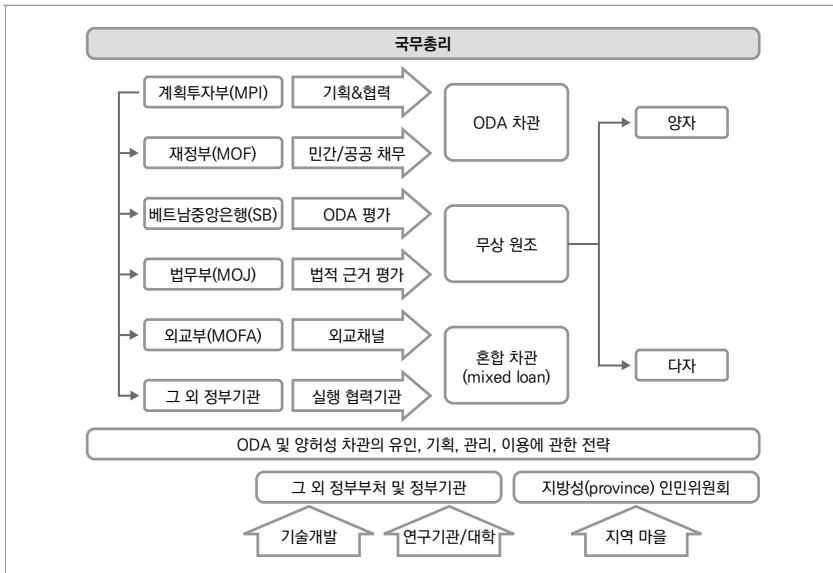
관의 성격을 구분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의 균형을 맞추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계획투자부 및 재정부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양허성 차관, 상호자본(reciprocal capital)의 출처 및 잔고를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는 제정된 법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및 양허성 차관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합의안 등을 검토하고 이런 국제협약과 관련된 협약 추진 시 초안 작성 및 협상을 담당한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는 ODA 및 양허성 차관 제안, 기획,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과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계획투자부 및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혹은 다른 공여국에 직접 외교단을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5. 베트남 정부부처별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구조도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정부행정청(Government Office)은 국무총리를 도와 양허성 차관 및 ODA와 관련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규정을 총괄한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 기관 및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및 총리실에 국제사업과 프로젝트의 실행 전에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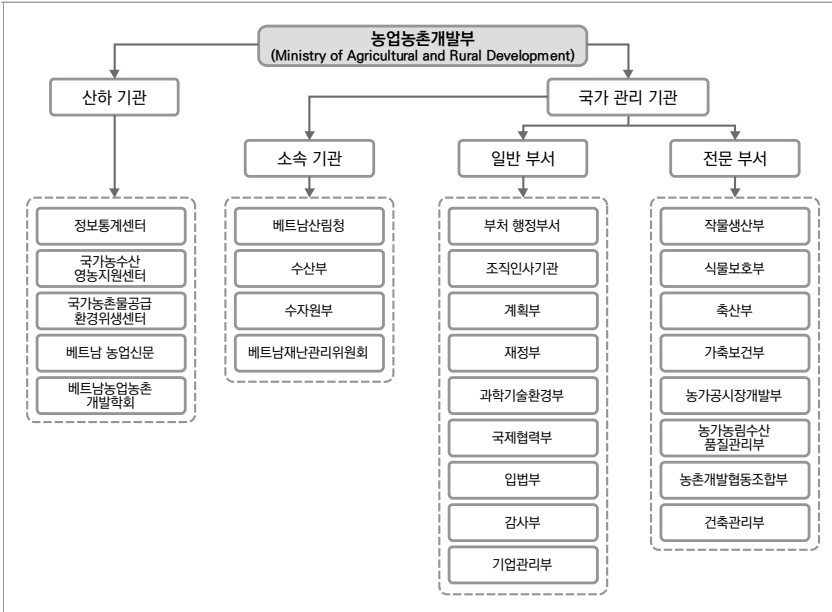
각 분야별 정부 유관기관은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제안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 및 양허성 차관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합의안에 대한 대하여 세부적으로 판단 한다.

성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Provinces, PCP)는 토지의 사용 허가, 관리, 보상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기관에 지불해야 할 전대금에 대해 외국기관을 대신하여 지불을 요청하여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국가의 농업, 임업, 염전산업, 수산업, 수자원 및 농촌개발 분야의 업무를 관리·시행하는 부처로서, 2007년 공포된 법령(No.01/2008/ND-CP)에 따라 <그림 4-6>과 같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MARD의 업무는 1)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2) 토지, 수자원, 임산물을 포함한 자원보호, 3)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는 농촌개발과 함께 농업 및 관개시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업 분야 ODA 사업의 첫 단계는 MARD의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CD)과의 논의에서 시작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그림 4-6.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조직도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 2) ODA 사업 심의 절차 및 방식

베트남의 ODA 프로젝트 승인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가령 상품의 소비,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보 등이 수집되는데, 이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승인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전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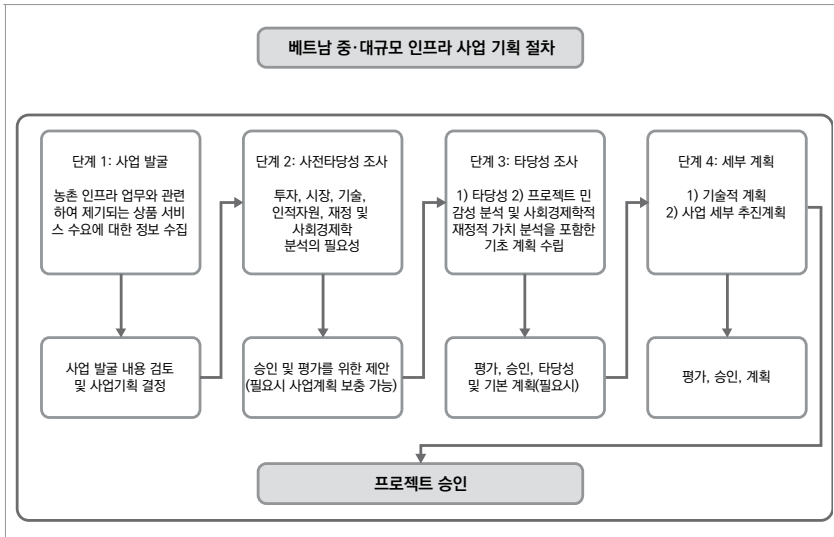
2단계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로, 1)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서비스와 상품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2) 건축 비용 계산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3)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결정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관리 분석, 4) 다른 재정적 옵션의 평가와 함께 수입 및 지출 관련 분석, 5)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기여율을 평가하는 경제효과성 분석 및

6) 경제적 분석 외에 사회적으로 해당 사업수혜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3단계는 타당성 조사로 프로젝트 승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분석되는 정보들은 기초조사를 포함하며, 사업의 민감도 분석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사회적 부분에서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들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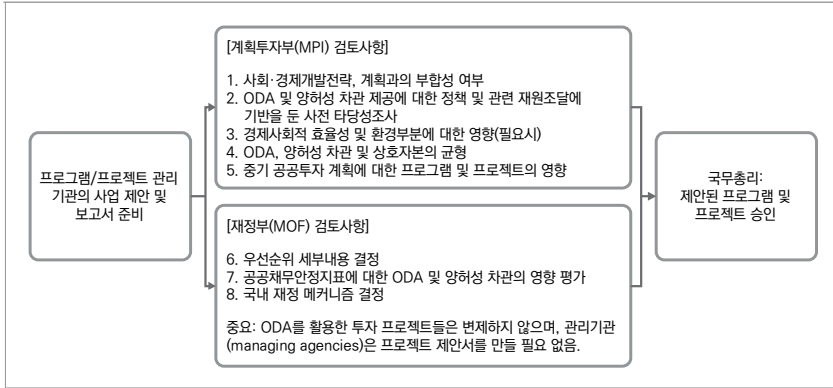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부계획을 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들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이를 통해 실행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필수 기술, 인적자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7. 베트남의 중·대규모 인프라 사업 기획 절차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그림 4-8. ODA 사업 기획, 선정 및 승인의 일반적 절차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 가.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무상원조는 68억 428만 달러가 지원되어 전체 ODA 중 18.7%를 차지하였으며, 유상원조는 295억 805만 달러가 지원되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원조의 경우 전체 지원 규모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2010년 27.7%에서 2017년 16.9%로 10% 포인트 이상 감소하고 전체 지원액도 동기간 10억 4,073만 달러에서 5억 8,416만 달러로 44%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유상원조는 동기간 그 비중이 72%에서 8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원규모도 27억 567만 달러에서 28억 7,287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756.8	5,348.4	4,333.3	5,913.0	3,751.5	4,645.0	5,222.1	3,462.2
무상지원액 <sup>1)</sup>	1,040.7	918.0	818.5	1,052.3	818.7	800.8	771.2	584.2
유상지원액 <sup>1)</sup>	2,705.7	4,365.9	3,510.3	4,854.1	2,918.0	3,831.6	4,449.6	2,872.9

주: 1) ODA 약정액(commitments)의 불변가(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로 임업분야 및 수산분야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액 기준으로 본 ODA 규모는 양허성 차관 등 대형 사업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4-3. 국제사회의 베트남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총액 <sup>1)</sup>	3,756.8	5,348.4	4,333.3	5,913.0	3,751.5	4,645.0	5,222.1	3,462.2
농림수산 분야 <sup>1)</sup>	299.5	285.2	441.5	326.4	269.2	771.8	221.2	441.7
농업분야 <sup>1)</sup>	292.7	257.1	260.3	320.9	239.4	770.3	193.5	351.7
임업분야 <sup>1)</sup>	5.0	24.2	128.3	4.3	29.1	1.2	26.4	80.5
수산분야 <sup>1)</sup>	1.8	4.0	53.0	1.3	0.8	0.3	1.3	9.4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8.0%	5.3%	10.2%	5.5%	7.2%	16.6%	4.2%	12.8%

주: 1) ODA 약정액(commitments)의 불변가(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2017년에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으로 8억 4,896만 달러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이 2억 8,542만 달러, 한국이 1억 9,545만 달러,

미국 1억 3,100억 달러, 호주 3,909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다가 2016년 24억 3,057만 달러에서 2017년 8억 4,896만 달러로 65%나 감소하였으며, 독일 및 한국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요 공여국별 베트남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	614.8	1,873.2	1,421.4	2,200.2	1,187.0	1,733.0	2,430.6	849.0
독일	245.7	451.8	144.1	292.9	361.2	143.6	362.5	285.4
한국	332.6	220.5	295.3	275.2	230.5	444.7	199.2	195.5
미국	119.0	117.7	113.7	111.6	83.7	95.1	124.3	131.0
호주	211.3	106.9	112.9	121.9	111.1	111.0	57.8	39.1
스위스	28.2	30.2	23.0	38.3	12.9	27.6	20.9	19.6
아일랜드	15.6	14.7	17.4	15.4	15.2	12.7	11.7	9.7
영국	21.6	12.6	13.1	8.2	10.7	15.6	7.0	8.7
오스트리아	3.2	19.7	18.3	12.9	5.5	8.5	7.8	6.5
이탈리아	15.5	3.7	1.9	16.8	4.5	2.3	1.7	6.2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 11, 8. 17).

## 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 현황

### 1) 농업 ODA 지원 실적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는 2008~2017 기간에 아세안 국가들 전체에 지원한 금액의 약 25.1%를 차지하고 있다(이홍식 외, 2018). 2010~2017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지원 총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 방식의 지원이 훨씬 많아, 2017년에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83%, 무상원조 17%이었다.

표 4-5.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32.6	220.5	295.3	275.2	230.5	444.7	199.2	195.5
무상지원액 <sup>1)</sup>	25.7	25.8	22.2	50.6	107.6	69.5	64.5	33.5
유상지원액 <sup>1)</sup>	306.8	194.7	273.1	224.7	123.0	375.2	134.8	162.0

주: 1) ODA 약정액(commitments)의 불변가(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베트남 지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농림수산 분야의 ODA는 대부분 농업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임업 분야 및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우리나라의 베트남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총액 <sup>1)</sup>	332.6	220.5	295.3	275.2	230.5	444.7	199.2	195.5
농림수산 분야 <sup>1)</sup>	1.0	1.9	2.1	2.8	29.0	5.4	3.4	4.3
농업분야 <sup>1)</sup>	1.0	1.7	2.1	2.8	28.9	5.3	3.4	4.3
임업분야 <sup>1)</sup>	-	0.1	0.01	-	-	-	-	-
수산분야 <sup>1)</sup>	0.014	0.155	-	-	0.089	0.102	0.072	0.102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0.3%	0.9%	0.7%	1.0%	12.6%	1.2%	1.7%	2.2%

주: 1) ODA 약정액(commitments)의 불변가(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02개로 프로젝트 11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5건, 기타 기술협력 37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2건, 국제기구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

원 6건,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세부지원분야별로는 농업관련 교육·훈련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개발 22건, 농촌개발 12건, 축산 9건,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6건 순으로 지원되었다(이상<부록 2>참조).

## 2) 농업 ODA 지원 현황 및 계획

우리나라가 2019년에 베트남에 지원한 ODA 금액은 1,708억 원으로, 이 중 4대 중점분야에 약 93%가 지원되었다. 물관리 및 보건위생에 734억 원, 교통 516억 원, 공공행정에 179억 원, 교육 160억 원 순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는 총 8개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으며, 관련 사업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7>).

표 4-7. 베트남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 사업 현황(2019)

부처/기관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억원)	'19년예산 (억원)	사업 기간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광찌성 새마을운동 사업	프로젝트	108.30	0.58	2014-2019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두이엔광성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	165.00	2.00	2019-2023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라오끼이성 새마을운동사업	프로젝트	156.8	-	2014-2018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프로젝트	32.10	7.42	2018-2022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프로젝트	53.00	3.60	2019-2023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국립가족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28.0	-	2014-2018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30	-	2011-2015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축산물 생산증대 및 유통체계 개선	연수사업	3.20	0.80	2018-2021

표 4-7. 계속

부처/기관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억원)	'19년예산 (억원)	사업 기간
해양수산부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조성·관리 모델 구축	프로젝트	17.91	4.81	2018-2022
농촌진흥청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개발컨설팅	125.50	23.52	2010-계속
농촌진흥청	베트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3차 사업	개발컨설팅	50.00	10.00	2019-2023
경상북도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 (베트남)	프로젝트	60.00	7.50	2014-2020

자료: 관계부처합동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4-2019) 및 ODA KOREA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현재 베트남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KOICA의 경우 북부 뚜옌꽝 성 2개 현을 대상으로 한 1,500만 달러 규모의 2019~2023 5년 사업이 있다. 사업내용은 여성 역량강화(여성 기금대출과 능력 향상), 소득증대 지원(취약계층 작목반 지원, 영농기술과 유통 활성화), 농업 인프라(도로, 관개시설), 교육(교실 및 기자재, 교사 등 역량 강화), 보건(보건소 지원, 의료인 역량 강화, 주민 건강증진), 거버넌스(지방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sup>96)</sup>

KOICA가 기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농촌개발 사업은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팡빈성에서 '팡빈성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이 2021~2025 사업기간으로 총 1,476만 달러(우리나라 998만 달러, 베측 478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프로그램으로 특산물(꿀)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텍 농업기술 전수, 가치사슬 모델 구축, 지역관광 활성화 등이고 위해 농업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지원과 인력 직업훈련 사업도 있다. 아울러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인력과 직업훈련 고등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97)</sup>

96) 한국국제협력단(2019b).

97)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사무소(2019).



농식품부는 과거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2011-2015/260만불)'을 통해 베트남 북부에 시범포 조성, 육묘용 하우스, 중형관정, 창고 지원 등의 시설구축과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초청연수, 시범영농지도, 계약재배지원, 워크숍 개최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에는 2018~2022년의 사업 기간 3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베트남 북부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채소 작물이 VietGap과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유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2019~2023년 기간에 53억 원의 사업규모로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을 새로 착수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전문부처인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 원조를 위해 농업기술 분야에 관련된 협력사업을 시범사업 및 연구 네트워크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아래 박스 참조).

BOX : 농촌진흥청의 對 베트남 농업기술 협력 지원 사업 현황(2019년 현재)

• KOPIA 센터

사업 단계	협력과제명	사업기간
베트남 맞춤형 기술개발	타이빈성 벼와 옥수수의 영양관리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증진	'17.1~'19.12
	베트남 맞춤형 양잠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19.1~'21.1
	베트남 홍강델타 지역 영농구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육묘기술 개발	'19.1~'21.1
농가실증과제	채소 맞춤형 기술적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실증사업	'18.1~'20.12
시범마을 조성사업	땅콩 우량 종자생산 보급체계를 통한 시범마을 조성	'17.1~'19.12

## •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구분	사업명	참여기구	사업기간
기초 농업	1. 아시아 토양지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FAO	'19.10-'23. 9
	2.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18.12-'21.11
식량 작물	3. 아시아 병해충 발생정보 교류 및 방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19.10-'22. 9
	4. 우수 내염성 벼 선발 및 보급	IRRI	'18. 7-'21. 6
원예	5. 아시아 지역 채소 품종 개발	WorldVeg	'19.10-'22. 9

자료: 농촌진흥청(2019).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KOICA는 성 단위(라오까이, 팡찌, 뚜옌팡, 팡빈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내 소득증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들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활용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협력 강화를 산림청 주도로 진행하며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9개의 신남방국가에 산림복원과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등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지원하여 회원국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식량(쌀)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식량안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베트남 태풍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12,300톤을 지원한 바 있다.

## 다. 농업분야 ODA 주요 성과와 성공 사례

### 1)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이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와 달랏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에 가공용 감자의 종서(씨감자)를 공급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오리온 푸드비나 Orion Food Vina, OFV)에서 감자를 수매, 가공, 국내 판매함으로써 농가와 업체 모두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서 생산시설과 조직배양 등 기술은 하노이농업대학(HAU, 현재는 베트남 국립농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뀜)에 제공하여 이곳에서 무병종서를 증식, 농가에 보급하게 하였다. 총 사업비 4억 9,000만원,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사업규모는 매우 작다. 그러나 그 성과로 첫째, 베트남 종서 배양 기술 및 감자 재배 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둘째, 한국 감자가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성공사례 도출, 셋째, 한-베트남 농업 교류의 확대 계기 마련 등을 이루었다는 평가다.<sup>9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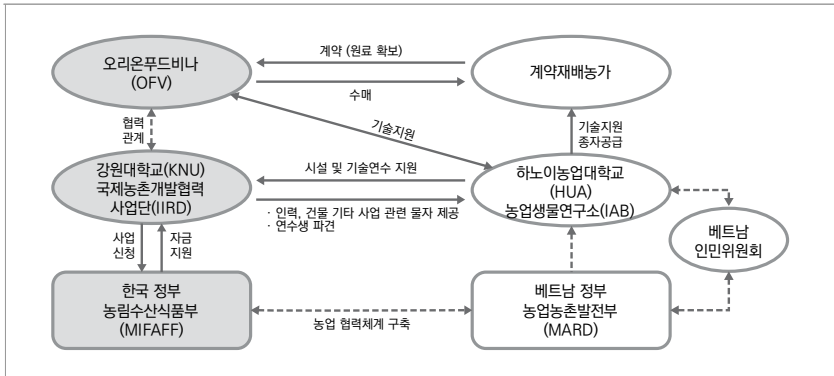
2008년 당시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대학교를 통해 하노이농업대학에 감자 조직배양 관련 실험실과 기기를 지원하고 이듬해 무병종서 증식시설(망실,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3차년도인 2010년에는 하노이와 달랏에 원종(G1) 증식용 네트하우스, 냉장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기술연수와 현지지도, 종서 생산과정의 수시 점검 등을 시행하였고 OFV 측은 농가와 가공용 감자 수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우량종서를 달랏의 직영농장에서 재배하였다. 이로써 시설 지원, 기술협력, 민간구매가 잘 연계되는 모델이 구축되었다. 즉 관(농림수산식품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학(강원대학교, 하노이 농업대학), 민(오리온푸드비나, 계약재배 농가)이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적개발원조를 민간협력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베트남 농가는 수익성 높은 감

---

98) 이항우 외(2012), p. 36.

자재배 기술을 전수받고 우량 종서를 제공받았으며, 민간업체는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는 공장(각각 2006년, 2009년에 설립)으로의 고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함께 이익을 얻는 상생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4-9. 사업 참여 기관간의 협력체계



자료: 이항우 외(2012: 47).

종서 생산기술 지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술을 전수받은 하노이농생물연구소(IAB)의 원원종(G0), 원종(G1) 배양기술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감자는 타작물, 가령 옥수수에 비해 1.7배의 수익성이 있어서 감자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 이전에 베트남은 가공용 감자 종서를 해마다 300여 톤 가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이를 상당량 대체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사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800ha에서 15,000톤이 생산되었고, kg당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종서가 생산되면서 업체의 가공용 감자 수매가도 낮아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sup>99)</sup>

그러나 이 사업의 규모가 매우 작고 기간이 짧았으며 우리나라 및 베트남 중

99) 이항우 외(2012), pp. 27~59.

양정부 차원의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감자재배를 통한 업체 공급이 안정화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진행된 사후평가에서는 저온저장고, 수기경 재배시설 등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 부족에 대응하는 베트남 측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00)</sup>

한편 오리온은 2015년 베트남 농업대학 농생물연구소에 종서 생산용 온실 1,100m<sup>2</sup>, 400m<sup>2</sup> 각 1동의 무경운 수경재배시설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20개 현 15,000 농가와 700ha의 농지에서 계약재배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달랏의 농장은 연작으로 인한 청고병 발병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대신 베트남 농업과학원(VAAS) 산하 감자채소화웨이 연구센터(PVFC)가 종서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sup>101)</sup>

이후에도 오리온은 베트남에서의 스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동시에 현지 농가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기증하고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R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오리온이 생산하는 한 제품(‘오스타’)가 생감자 스낵 시장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02)</sup>

이와 같이 현지진출 민간업체와 연계된 ODA사업 모델은 그 뒤 한국국제협력단과 CJ가 공동으로 추진한 농촌개발 CSV사업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2014년 KOICA가 CJ와 함께 베트남 닌투언 성에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을 제공하면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CJ가 이곳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구매하여 수출용 고추장, 김치 원료로 사용하면서 재배농가수 34가구, 재배면적 12,000m<sup>2</sup>로 확대되었다. CJ는 2017년 연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지속

---

100) 이항우 외(2012). p. 27.

101) 베트남 오리온 푸드비나(OFV)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102) 뉴스인, <http://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03>(검색일: 2019. 11.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91014020900030>(검색일: 2019. 11. 22).

적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이어나감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다.<sup>103)</sup>

BOX : 우수종자 생산기술 지원으로 종자수출 기반 마련

- KOPIA 베트남사무소는 2009년 개소한 이래 15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주로 발작물연구소 (FCRI)와 과일 및 채소연구소(FAVRI), 달랏 감자화훼채소연구센터(PDSF), 남부원예연구소, 식물보호연구센터 등의 현지 기관과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옴.
- 특히,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감자 무병종서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연간 약 400ha의 면적에서 감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채소품종 중 6개 품목(무, 고추, 참외, 쥬키니, 상추, 양배추) 8개 품종을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한국 종자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고 있음.

자료: 2019.7.23. KOPIA 베트남 사무소장 인터뷰

## 2)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sup>104)</sup>

이 사업은 KOICA가 지원한 최초의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 사업이다. 2001~2003 기간에 총 26만 달러가 지원된 소규모 농촌개발 시범사업이었으나 그 효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부(타이응웬 성)와 중부(꽝찌 성)의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농촌 새마을운동 모델을 전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이룰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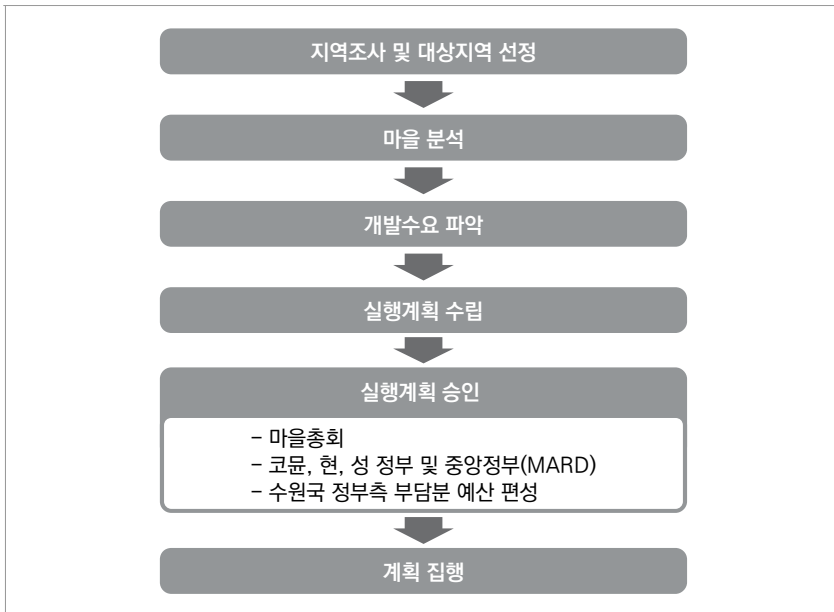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는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개선, 소득개발, 정신개발 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관개시설과 도로 개보수, 공동·개별 주거환경 개선, 농업신용(credit)을 통한 소득원 개발, 정신개발과 지도자 육성 등이 세부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관개수로와 도로포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회관의 보수, 주택개량(부엌, 욕실, 화장실, 우물 등), 소액금융 이외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었다.

10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koica/221492015832>(검색일: 2019. 11. 22).

104) 허장(2014) 제3장을 정리하여 작성.

농업신용 사업은 24,000달러 규모의 종자돈을 사업수행기관(국립농업계획 연구원, NIAPP)이 관리하였고 비료, 차 가공장비, 축산, 새우양식, 버섯재배 등 영농활동 지원에 활용되었다. 이 자금은 5년 뒤 평가를 거쳐 베트남 측 지방 정부에 공여되었다.

그림 4-10. 베트남 사업추진 절차



자료: Chung(2007); 허장(2014). p. 4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일정한 참여 아래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베트남 측의 주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양적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의 프로젝트형 사업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들이 채택되었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즉, 마을의 현황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다방면으로 파악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마을총회, 중앙 및 지방정

부의 참여 아래 확정하였다. 특히 베트남 측도 인프라 건축비용 등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약 20만 달러가 제공되는 등 매칭펀드가 조성되었으며, 도로 건설 등에 주민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계획되었던 금액 대비 중앙정부 148%, 지역주민 113%의 예산을 부담할 만큼(지방정부는 85%에 그침), 수원국 측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사업기간이 3년이고 사업비 규모가 매우 작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수혜자들과 마을에서 충분히 자립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농민지도자 육성과 정신 계몽운동 등 교육과 지도사업이 미흡하였다는 평가이다.

이 사업은 그 뒤 다른 지역에서 후속사업이 이어졌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베트남의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영향(impact)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사업(2007~2008)」을 통해 2년간 베트남 2개 마을(박장 성, 푸토 성)에 대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4월 베트남 정부는 KOICA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국 농촌의 면(commune)을 대상으로 2010~2020년 기간에 국가가 설정한 19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전국의 50%까지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전국 농촌개발 정책이다.<sup>105)</sup> 이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새농촌 코뮌'에 도달하게 되고 현 내 전체 면의 75%가 기준을 달성한 현은 '새농촌 현', 성 내 전체 현의 80%가 기준을 달성한 성은 '새농촌 성'으로 불리게 된다. 이 계획은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어서 중앙정부(농업농촌개발부) 이외에도 다른 관련 부처, 기관, 성과 직할시 인민위원회 등이 이 계획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sup>106)</sup>

---

105) 허장, 정기환(2008).

106) 영남대학교, 호치민국립정치아카데미(2015).



###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 가. 국제사회의 AfT 지원 동향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무역을 촉진하는 개발원조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발족한 이니셔티브이다. 개도국에 AfT를 통한 원조 1달러는 8달러의 수출 유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국의 경우 20달러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sup>107)</sup>

2019년 7월 발표된 OECD와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78,141개의 사업에 총 4,10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sup>108)</sup> 공여국 기준으로 일본, EU,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0대 공여국 및 개발은행이 전체 금액의 82%를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총 5.6억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 규모로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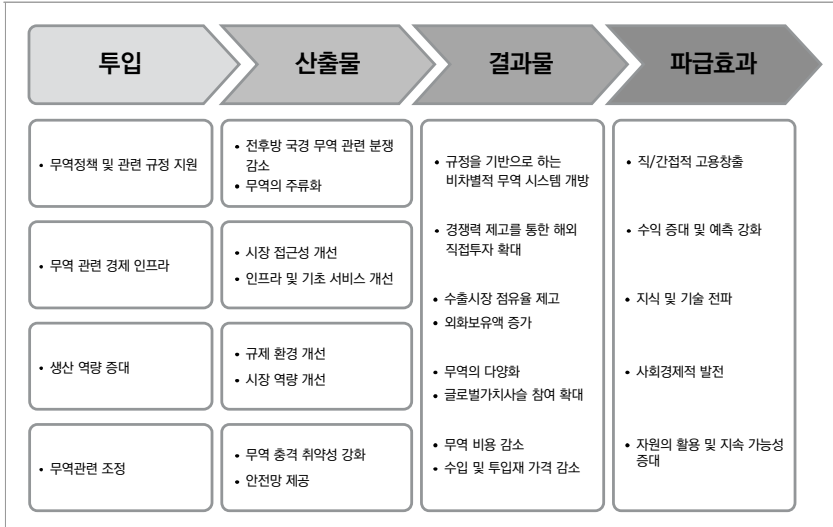
분야별로는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통신 등의 무역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의 무역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우선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 참여 및 무역 경쟁력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 정책과 관련 규정 지원, 경제 인프라, 무역 관련 사항 조정 등의 활동을 통해 시장 접근성 개선, 규제 환경 개선, 인프라 및 기초 서비스 개선 등의 단기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수출시장 점유율 제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무역 비용 감소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직·간접적 고용 창출, 자원의 활용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

107) Lammersen, F. and M. Roberts(2015).

108) OECD와 WTO는 격년 단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도국 국제무역 참여 현황, 당면과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방향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연구에서는 2019년 발표된 『Aid for Trade at a Glance: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를 인용함.

그림 4-11.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성과 프레임워크



자료: OECD(2016).

동 보고서에서는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도국이 당면한 과제로 1) 산업 및 제조업 역량 부족, 2) 교통, 항만 등 무역 인프라 부족, 3) 무역 금융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 4-8>과 같이 개도국이 무역다변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적 대응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즉 투자와 다변화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설정되어야 하며, 무역 인프라 투자 및 관련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한 무역 비용 감소, 새로운 분야로의 자원 재분배, 시장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개입 등이 제시되었다.

표 4-8. 개발도상국 무역다변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정책 대응 방안	내용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수출 장애요인 해소, 상품과 요소시장에서 경쟁 촉진하기 위해 세제, 금융, 경쟁, 산업 품질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다변화를 위한 적정 인센티브 제공
무역 비용 감소	물류 투자 등을 통한 운송 비용의 감소, 국경간 무역 원활화 조치에 참여, 무역 인프라 투자 및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육상 및 항공 접근성 개선
자원 재분배	쇠퇴 산업, 비공식 경제로부터 탈피 촉진, 신규 산업(진입자) 지원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금융 등의 자원 접근성 제고
시장 실패에 대응한 개입	수출 금융, 수출 및 투자 촉진기구를 활용한 투자 유치, 수출자 보호 정책, 산업 클러스터 등 성장 거점을 활용한 인프라 및 R&D 투자 확대

자료: OECD(2019).

## 나. AfT 지원 현황

베트남의 AfT에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공여국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9). 세부 분야별로는 운송 및 저장(교통 인프라 관련),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농림수산업 순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09)</sup> 이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일본이 도로 건설 등의 교통 인프라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역시 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9) OECD(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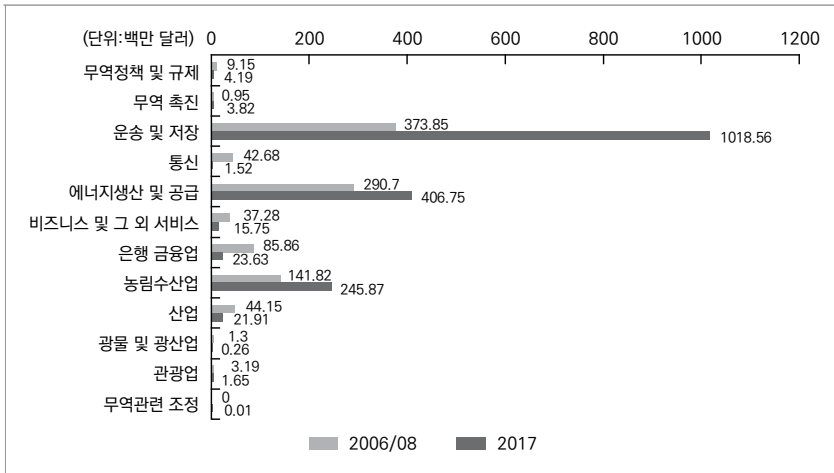
표 4-9. 베트남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6-08년도				2017년			
순위	공여국 및 국제기구	규모	비중	순위	공여국 및 국제기구	규모	비중
1	일본	516.3	50	1	일본	887.7	50
2	국제개발협회(IFC)	299.5	29	2	국제개발협회(IFC)	354.5	20
3	프랑스	64.2	6	3	아시아개발은행(ADB)	133.2	8
4	독일	20.9	2	4	한국	100.9	6
5	덴마크	18.0	2	5	독일	82.6	5

자료: 현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019.

그림 4-12. 對 베트남 무역을 위한 원조(AfT) 분야별 지원액 변화 추이



자료: OECD(2019).

## 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AfT 지원 방향

김한성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위한 AfT에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다. 그보다는 무역 정책·규제 부문 개선 지원, 무역 촉진 활동 지원 등이 금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농업부문 지원이 인프라 보다는 지역개발, 농업기술 협력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sup>110)</sup> 가령,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Golden Seed Project(GSP)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종자를 베트남에 판매하면, 우리의 종자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종자 판매 기업, 육묘 업체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KOPIA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기술 연구개발(R&D)과 기술교육이 가능하며, KOICA-CJ의 다투언성 사업 사례와 같이 식품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안도 좋은 모델로서 채택될 수 있다.

농식품분야에서 특히 가공식품 산업은 여러 연구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우선 지원 분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무역 확대를 통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지원 외(2018)의 연구는 가공식품 분야가 전후방 연계성이 높아 베트남을 한국 수출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중간재 수입국이며, 수출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홍식 외(2017)의 연구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베트남의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우선 지원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부문 중 저장(CRS 21061) 부문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냉장시설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베트남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관련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11)</sup>

요컨대 베트남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진출 및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 물류 개선을 위한 단순 인프라 지원보다는 콜드체인 시스템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농산물의 수확후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 과정 중 손실을 줄이고, 품질 유지를 통해 판매, 수출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10) 김한성 외(2015).

111) 이홍식 외(2017).

## 제5장



#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3. 협력 모델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 가.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 통상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한-베트남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하 각료급 공동 위원회와 상품무역, 관세, SPS, TBT, 무역구제조치, 경제협력 등 6개의 분야 별 FTA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FTA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제기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양국 간의 노력과 더불어 한-베트남 농업부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베트남 FTA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개최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는 한-베트남 FTA 이행 효과와 현황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통관, 원산지 등의 분야에서의 수출기업 애로사항과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열대과일 SPS 분야의 위생검역에서 조속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sup>112)</sup>한 바 있다.<sup>113)</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의 해소가 통상 분야의 주요 협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PS와 TBT 조치, 비교역 목적의 기타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한-베트남 규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12)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6. 12. 7).

113)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산 망고(메콩강 삼각주산)와 용과(dragon fruit)의 경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과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망고의 경우 47℃ 이상 20분, 용과의 경우 46.547℃ 이상 40분), 한국 식품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 식물검역증 첨부(부기사항 기재) 등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입이 가능함<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검역정보,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수입조건([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검색일: 2019. 10. 22).

대외적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당사국 간 이행위원회를 통해 현행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무역 장애 요인을 조속히 개선하여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고유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응, 체결국 협상 대응, 해당 품목 대응 등 관련 기관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검역절차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후되어 있는 베트남의 검역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비관세장벽 대응 협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SPS 위생·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사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비관세장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베트남의 통관절차 상 애로사항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해외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현지 통관절차에 숙달된 물류기업에 위탁함으로써 통관절차 상의 위험을 분산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sup>114)</sup>

셋째, 상품차원의 농식품 교역뿐만 아니라 농식품 전후방 산업, 특히 농기계, 농약 및 비료, 스마트팜 시설장비 등 농자재 수요에 대한 베트남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수출을 통해 베트남의 농업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베트남은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스마트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사업 또는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 비교우위에 있는 스마트팜 관련 시설 및 자

---

114) Kati,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86>(검색일: 2019. 10. 21).



재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낙후된 물류, 유통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대도시 중심의 소비에서 베트남 전역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강화

2018년 베트남 통계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및 주요 부품 조달 지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에서 베트남 현지 대기업의 1.3%만이 우리나라를 원료농산물의 주요 조달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중소 식품제조업의 경우 한국산 원료농산물을 대부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으로부터의 원료농산물 조달률은 높았다.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으로의 농식품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원료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5-1. 베트남의 현지 식품제조업체의 원자재 주요 조달국(2015년)

단위: %

중소기업		대기업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주요 조달국	기업비중
캄보디아	8.4	태국, 중국	11.69
싱가포르	5.88	인도	7.79
인도	5.04	말레이시아	6.49
중국	4.2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미국	5.19
호주	4.2	호주, 일본, 싱가포르	3.9
말레이시아	3.36	한국	1.3
조사대상 업체 수=119		조사대상 업체 수=77	

주: 기업비중은 해당 국가를 가장 중요한 조달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18), 정지원 외(2019)에서 재인용.

베트남 농식품 기업과의 GVC 협력 강화는 베트남의 수요 및 우리나라의 공급이 교차하는 농식품 품목의 발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진출 가능 품목에 관한 폭넓은 여건조사 및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제조 기술력, 자본, 그리고 국내 원료농산물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 및 기관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베트남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 R&D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원료 농산물 수출확대를 지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하노이 지부, 주 베트남 한국 문화원, 대사관 등이 참여하여 베트남 현지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정책대화, 민관협의회 등의 큰 틀에서 상호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체계, 의사소통 문제, 투자허가 기관과 현지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현지협력선 물색이나 선정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sup>115)</sup>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사회와의 협력하에 체계적인 GVC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무역을 위한 원조(AfT)<sup>116)</sup>를 통해 농식품 업체의 베트남 진출 활성화와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117)</sup> 특히, GVC를 활용한 원료농산물 확대

115) KOTRA에서 2018년 북부 진출기업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실태 설문 조사'자료임.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4609/>(검색일: 2019. 08. 22).

116) 국제사회는 베트남을 비롯한 개도국의 GVC 참여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개도국의 GVC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협력 차원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산업, 혁신 및 인프라(SDG 9) 부문에 개도국의 GVC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G20 정상회의 선언문(2015)에서도 개도국의 GVC 참여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전략상 가장 중요한 물류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문제이다. 베트남 9개 성·시에는 모두 45개의 물류센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2급(지역수준) 물류센터이고 1급(국가수준) 물류센터는 아직 없다. 주요 물류센터는 하이퐁시, 동나이성(Dong Nai), 빈증성(Binh Duong) 등 3곳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천 개의 물류업체들이 단순 물류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농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저온물류센터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sup>118)</sup>.

한편, 국내 농식품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베트남 식품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과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많은 농식품 업체들이 베트남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소 농식품 업체의 경우 진출 초기 단계에서 공장 부지선정 및 현지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도국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안착하고 있다.<sup>119)</sup>

셋째, GVC 협력을 고도화할 베트남 현지의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의 ‘2017~2020 베트남 개발협력 전략문서’는 베트남이 낮은 생산성,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소규모의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 경제로 인하여 GVC 참여에 실패하였으며 직물, 농업, 어업, 수공업, 목재가공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sup>120)</sup> 실제, 베트남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GVC 협력체계를 견인할 중간관리자 역할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sup>121)</sup> 따라서 농식품 업체의 베트남 진출 및 농식품 GVC 협력을 강화

117)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2019.10.23.)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간 교역·투자·개발·인프라·금융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118) 인사이드비나(2019. 08. 08); 김경필, 한정훈(2017).

119) 방호경 외.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20) 정지원 외. 2019.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1)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전문가 파견 및 교육, 대학·연구기관 간 인적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베트남 현지의 식품산업 GVC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원료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GVC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을 수출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분업 과정을 통해 현지에서 최종재화의 생산,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으로의 농식품 수출에서 비중이 큰 가공 농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 농산물의 비중은 30%대의 낮은 수준으로,<sup>122)</sup> 국내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는 베트남 현지 수요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원료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공농식품 개발 및 발굴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 중점 지원분야로서의 농업, 농촌개발의 지속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 대상국이며 이는 농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한-베트남 농업 개발협력은 역량 개발과 기술원조 이외에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로 농촌개발(외교부) 혹은 쌀,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개발(농림축산식품부)에 중점이 두어졌다.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부는 2011~2015 기간에 총 27억 달러어치(무상 17%, 유상 83%) 약 100개의 ODA 사업을 담당하였다. 베트남 전체 ODA 가운데에는 농업분야 무상원조가 보건의료 교육 분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

View.do?setIdx=322&dataIdx=165703(검색일: 2019. 8. 19).

12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국산 원료의 비중은 약 31.4%로 나타났다.

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2016~2020 기간에 관리하게 되는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sup>123)</sup>

앞으로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sup>124)</sup>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협력의 중점 추진분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원조가 그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베트남 측의 의견이다.<sup>125)</sup>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 세계 개도국 가운데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의 비중은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개발, 성 차원의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지역개발 분야는 중점 지원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점 지원분야의 선정 취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점협력국가와 중점 지원분야에 75% 정도의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중점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KOICA는 CPS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베트남 국가전략(Country Program)을 수립하여 교통, 고등교육과 함께 농업을 중요 분야로 파악하고 있다.<sup>126)</sup>

베트남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현재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이는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는 베트남과의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속적인

---

123)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124) 2019년 현재 베트남은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1인당 GNI \$1,006~3,955)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은 1인당 GNI \$3,956~12,235임(2019년 OECD 수원국 기준).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_2018to2020\\_flows\\_En.pdf](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_2018to2020_flows_En.pdf)(검색일: 2019. 11. 14).

12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2019).

126)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협력분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2) 통합적 지역개발의 추진

베트남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농촌간의 자원배분의 불균형, 농업소득 성장의 지체, 농촌의 상대적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과 같은 중앙 단위의 전략과 성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KOICA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 혹은 농촌종합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 사업」, 「베트남 팡찌성 새마을운동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는 기존의 농촌개발 사업과 다르게 보건, 교육, 기후변화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다시 우리나라 농식품기업인 CJ와 공동으로 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주민의 생계향상을 목표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인 「베트남 농산물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진화해왔다. 2019년부터는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교육, 여성의 역량강화, 꼬문 단위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공무원 행정 거버넌스 역량강화 등의 지역기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성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농촌종합개발 방식의 농촌개발 사업에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합적 지역개발은 중요한 협력분야의 하나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sup>127)</sup>

---

127)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 3) 농업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농식품부는 「베트남 홍강 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베트남 우수 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주로 농업의 기술적 측면에서 가치사슬을 확대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센터(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종자의 시범 재배를 통해 적응성 실험과 보급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원 중에 있다. 또한 포스코대우(주)와의 협력으로 미곡종합처리시설(RPC) 건립을 통해 유통부문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요컨대, 농업의 기술개발(R&D)에서 재배, 저장,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베트남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 소비 증가, 수출 확대 등으로 국가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국교 수립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對 베트남 FDI 최대 투자국으로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28)</sup> OECD 개발센터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수출이 중기 성장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129)</sup> 김세원 외(2017)의 연구에서도 베트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수출산업 육성과 지역 클러스터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파리 선언 이행을 위해 원조의 주인의식 제고와 분절화 방지를 목표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해관계자(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학)가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sup>130)</sup>

베트남 농업이 보다 국내 가치사슬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후방 관련산업인 농자재, 농기계 산업의 육성, 전방 관련산업인 가공과 유통 관련 시설과 장비의 지원, 마케팅을 위

128) 2018년 9월말 누적 총투자 기준 6,062건, 19,818,777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9.

129) OECD Development Centre(2019).

130) 김세원 외(2017).

한 시장 건설, 수출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감자, 배추, 고추 등 채소작물에서 그 대상작물의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열대, 아열대 과일과 과채 및 화훼 분야 등의 가치사슬 개발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산물 수집 냉장창고나 냉동 운송차량 등 시설, 장비와 더불어 VietGap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부문 직접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CSV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과 세부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기존의 채소 가치사슬 사업들에서는 CJ나 오리온, 삼원과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방정부, 농민 협동조합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ODA사업의 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CJ-KOICA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2014-2017)'과 같이 일정한 성과도 가져왔다.

따라서 농업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사업을 발굴,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향후 농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본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국간의 ODA 등 개발협력은 교역과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 가.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연계

통상과 ODA를 연계시키는 가능성은 ODA가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에 얼마나 기여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ODA가 통상 등 경제협력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 경제, 사회 인프라의 수준을 향상시켜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수원국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이익의 본국 송금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수원국의 사업환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선도효과(vanguard effect)'를 제공한다. 해외투자의 확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홍식 외, 2018: 118-122, 146).

베트남은 신남방국가이자 아세안 국가에 속하며 아세안은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연계성(connectivity)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ODA는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베트남을 포함하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은 나라들로서, ODA를 활용할 때 투자시장 확대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들이다.<sup>131)</sup> 또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와 같이 개도국의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 ODA(경제 인프라 구축, 생산역량 지원, 무역 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무역 관련 조정 등)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대시킬 수 있다.<sup>132)</sup> 이는 통상과 ODA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베트남은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에 강하게 편입되어 있고,<sup>133)</sup>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ODA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

131) 이홍식 외(2018). p. 35, p. 118.

132) 이홍식 외(2018). p. 147.

133) 이홍식 외(2018). pp. 159~160.

이에 따라 양국의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발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 농민조직, 가치사슬 상의 이해관계자 등 민간부문의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모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농산물 생산과 농식품 가공, 유통 관련 업체들, 농자재 수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이 보다 활발하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경제개발전략을 뒷받침하는 협력과제의 추진

베트남은 2012년과 2013년에 수립된 「농업부문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 through 2020, with a vision toward 2030)」과 「농업재구조화 전략(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농업 분야의 핵심 개발전략이다. 이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전략서들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차기 10년, 특히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이룩할 베트남의 미래상을 비전으로 설정한 10개년 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한-베트남 협력관계는 지난 10년의 수준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중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유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과 한-베 FTA 등 양국간에 이루어져 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전략은 베트남의 향후 경제개발전략과 밀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새로운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이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프라 건설과 인적 자원 개발, 제도의 개선,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문화 창달 등이 포함될 것

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의 장기 전략도 현재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하이텍 농업, 농촌개발 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34)</sup>

아울러 이를 위해 교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수출대상국 중 4위, 수입대상국 2위이다. 2018년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4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96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교역규모 683억 달러에 무역수지 290억 달러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이의 완화를 위해서도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직접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협력 모델

대부분의 농업자원, 특히 투자비(인건비, 농지비용 등)를 고려한 해외농업개발 대상국은 개도국인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의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 증산 등 농업개발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와 더불어 자국의 농업·농촌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ODA에 의한 개도국 농업개발 지원은 양국 간의 신뢰 강화는 물론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측면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여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선진기술 보급과 고용을 통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부분을 협력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 해외농업개발 등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는 양국의 상생 발전과 협력 관계 강화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34) 베트남 경제연구소(VIE) 소장 인터뷰(2019. 10. 23).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에 파트너로 참여할 때 이를 개발협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협력모델을 제시한다.

## 가.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 지원을 통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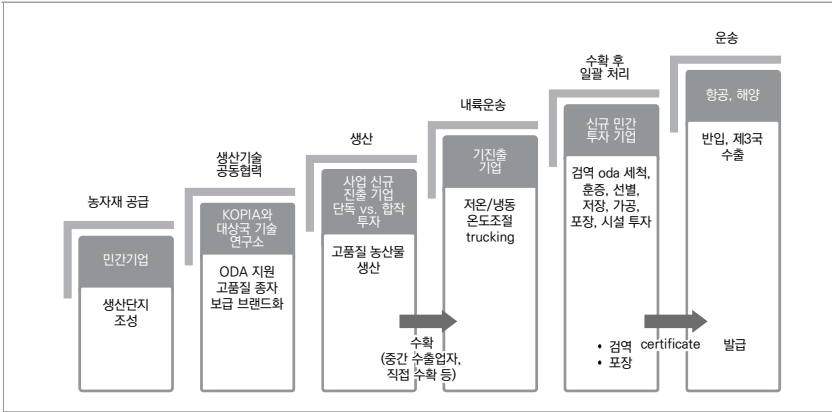
우선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한 가치사슬에서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대섭 외(2017)의 우즈베키스탄 체리사업 관련 모델은 수요처가 요구하는 품질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양국 간 농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해당 농산물의 고품질 품종 선별을 통한 일관 생산체계 구축, 수확 후 관리 현대화, 국제수준의 검역 기술 전수 및 체계 구축,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여 교역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진출 기업의 역할과 ODA 지원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해당 품목은 수입국 시장 수요의 증가 여부와 수출국의 공급체인 구축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ODA 사업 내용은 진출 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획 및 구성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는 가치사슬 내 취약한 분야와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그림 5-1).<sup>135)</sup>

---

135) 이대섭 외(2015).

그림 5-1. 가치사슬 내 해외농업개발과 ODA 연계 추진



자료: 이대섭 외(2015).

제시된 ODA 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연계 방식은 실제 특정 품목과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 기업이 진출한 지역과 선정된 품목의 가치사슬이 연계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진출 기업의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ODA 지원과 지역 주민(수혜자)과 대상국 정부와의 합의도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과 양국 정부 간 이해관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인 가치사슬 체계를 개선하여 각 단계에서의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가 가능하며, 특히 품질 제고 측면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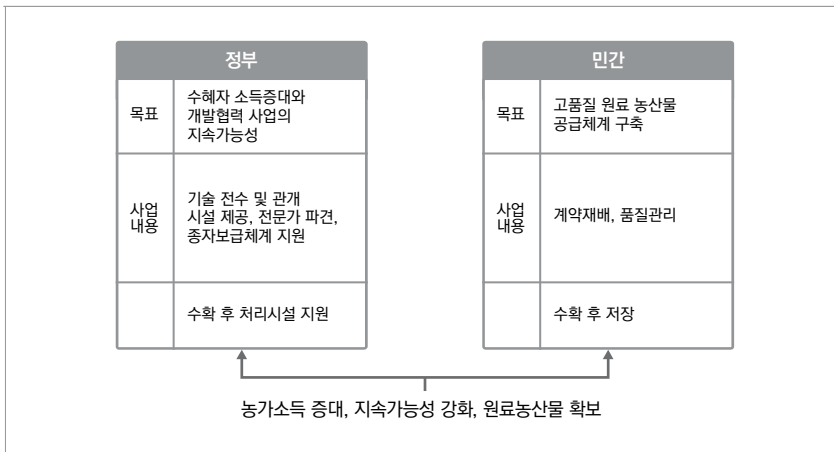
## 나. 원료농산물 공급능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

두번째 연계추진 방식은 고품질의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목적의 ODA 사업은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

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이 유형은 민간 기업이 식품을 가공 또는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품질의 농산물 원료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지원 및 관련 시설 구축, 종자 생산 및 보급 등과 같은 ODA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민간 기업은 보급된 종자를 활용하여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또는 단체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이다(그림 5-2).

그림 5-2. 원료 농산물 확보를 위한 연계 방안



자료: 이대섭 외(2017). p. 164.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식품부가 지원한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OFV)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사업 규모 또한 확대되었으며, 베트남 현지농가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 판매를 하여 소득이 증가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며, 당초 구축된 사업 시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

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실제로 양국 농업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농가 소득증대라고 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상국 정부도 선호하는 민관협력(PPP)방식이다. 또한 이 유형은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이 체계적으로 원료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므로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되고 원료 농산물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 다. 물류·운송체계의 투자,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된 곡물의 국내수입은 현지 저장 시설, 물류, 해양 및 육상 운송시스템, 국내 수요처 유무 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체계는 현지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 수요처가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 생산은 현지 생산 여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를 고려한 적정 기술개발, 현장 적용에 필요한 재원과 인적자원은 기타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은 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한-베트남 경제 및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입각하여 기본방향과 협력모델에 따라 다양한 세부 협력분야가 도출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

### 1)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의의

베트남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 지원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베트남의 원재료를 가공, 상품화한 뒤 베트남 국내 소비 혹은 해외수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생육환경을 최적상태로 관리하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형태”이다.<sup>136)</sup> 한편 스마트 농업은 생산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팜에서 더 나아가 유통과 소비 등 가치사슬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하여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37)</sup>

### 2) 정부의 육성정책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책에서 보았듯이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메콩 델타 지역에 농축산물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적용하는 목표를 세웠다. 최첨단(high-tech) 농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고 35개의 하이텍 영농단지(High-tech Agricultural Zone, HAZ)를 조성하였다. 2020년까지 하이텍 농업을 담당하는 500개의 협동조합 형태의 농기업체를 메콩델타, 홍강델타, 달랏 등 농산물 주산지에 육성하고 이로부터의 생산량을 현재의 다섯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베트남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6년 말 하이텍 농업에 230억 달러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하남성 빈에코(VinEco)의 하이텍 농장을 방문

136) <http://www.nongsaro.go.kr>(검색일: 2019. 9. 9).

137) 김연중 외(2017). p. 2.



하였다. 빈에코는 2015년부터 3,000ha에 이르는 15개 농장에 다양한 영농기법, 즉 이스라엘 관개시스템, 프랑스의 온실 환경제어 기술 등을 도입하였다.<sup>138)</sup>

BOX : 베트남 스마트팜 사례

- 베트남은 2010년 이후부터 스마트 솔루션 및 스마트 장비와 같은 Agriculture 4.0의 개별화된 스마트팜 응용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 남북의 주요 쌀 재배지역에서는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용수 사용량을 감소시켰으며,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비료 투입과 농업용수 사용량을 조절하는 자동센서 솔루션 등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베트남 달랏에 위치한 안다오(Anh Dao) 스마트팜 협동조합은 VietGAP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 내 연간 5만 톤의 채소를 유통하고 있으며, 4,000톤은 해외로 수출하여 연간 1,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음. 또한, VinEco 협동조합의 경우는 2015년 10월부터 약 3,000ha의 농지에 15개의 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발하고, 온실기후조절 (프랑스), 스카이그린 멀티 레이어(싱가포르), 멤브레인 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 및 지능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 베트남의 일부 축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베트남에서 제공하는 IoT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 축사 관리, 사료 공급 자동화, 가축 연령에 맞는 사료량 조절, 자동 조명 등을 채택하였음.
- 또한, 푸토(Phu Tho)성의 유기계란 공장은 계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생물학적 안전을 관리하는 베트남 최초의 생산 공장임. 해당 공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는 모두 Agrotop Insulated Prefabricated System(이스라엘 개발)을 통해 사육되고 있으며, 온도, 습도, 풍량 등이 자동화되어 있음. 일일 평균 50만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1억 7,500만 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음.

자료: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VASS) 관계 담당자 인터뷰(2019. 7. 25, 하노이)

하지만, 디지털 기술 수준 및 인프라가 여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농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수요도 높은 편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선진 정보기술을 자국의 스마트 영농과 접목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토양 및 기후정보 전송 기술개발 공유,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기술이전 지원 등의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언급한 디지털 농업에서의 한-베트남 협력분야는 로봇제어 기

138) Dzung(2019); 한국무역신문 홈페이지. <http://weeklytrade.co.kr>(검색일: 2019. 9. 11); 식품의 식경영 홈페이지. <http://www.foodnews.news>(검색일: 2019. 9. 10).

술, 토지·환경·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빅데이터 관리, 사물 인터넷(IoT), 원격탐지(remote sensing) 기술, 정밀농업 어플리케이션 등이다.<sup>139)</sup>

### 3)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과 협력 가능성

우리나라는 축산분야 케이지 생산 기업이 베트남 현지공장을 완공하는 등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소 육묘와 화훼, 후추, 캐슈넛 등 스마트 농업 시설을 활용한 시스템을 봉따우 지역에 수립, 추진하는 기업은 여기서 생산된 고추묘와 친환경농산물을 베트남 국내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sup>140)</sup>

축산분야의 한 국내 선도기업은 2017년 3월 현지공장을 완료함으로써 향후 베트남을 제2의 거점으로 활용해서 산란계 케이지, 선별기 생산은 물론 양돈용 기자재와 분뇨처리 장비, 친환경 퇴비시설 장비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의 스마트농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2018.4.16.)은 ▲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 산업 인프라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제의 하나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ICT 기업, 통신기업, 온실 시공기업 등 민간과 대학,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였다.<sup>141)</sup>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여건, 현실에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이른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sup>142)</sup> 또한 농식품부와 농림

139) Dzung(2019).

140) 고성신문 홈페이지. <http://www.gosnews.kr>(검색일: 2019. 9. 10);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news.kmib.co.kr>(검색일: 2019. 6. 25).

1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142) 농촌진흥청. <http://www.nongsaro.go.kr>(검색일: 2019. 9. 9).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2018년 7월 서울에서 'K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해외로의 우리나라 농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143)</sup>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베트남 람동성과 해안가 닌투언성에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에 대한 스마트 생산기반과 저장, 패키지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달랏과 호치민 등 대도시의 로컬푸드마켓, GAP 스토어, 슈퍼마켓 등에 판매하며 한국 유통업체와도 연계한다는 사업 구상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sup>144)</sup>

BOX: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 베트남은 농업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스마트농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에서 스마트팜의 설립·운영 주체는 농민이며 정부는 설립 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제품의 공급(판매)을 담당하고 있음. 베트남은 기업과 협동조합이 스마트팜의 설립·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모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중요한 농정과제로 꼽고 있어서 베트남 VASS 담당자는 양국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기술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한국산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함께 베트남의 첨단농업지역 첨단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또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베트남 농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커다는 점에서 한-베트남 간 스마트팜 협력사업 모델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남북한 간 또는 남한·북한·베트남 3각 협력사업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VASS) 관계 담당자 인터뷰(2019. 7. 25, 하노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을 위한 기술수준은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분야와 융복합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추격하는 그룹에 속한다(김연중 외, 2017: 63-65). 스마트 농업의 기술수준을 모니터링과 제어로 편이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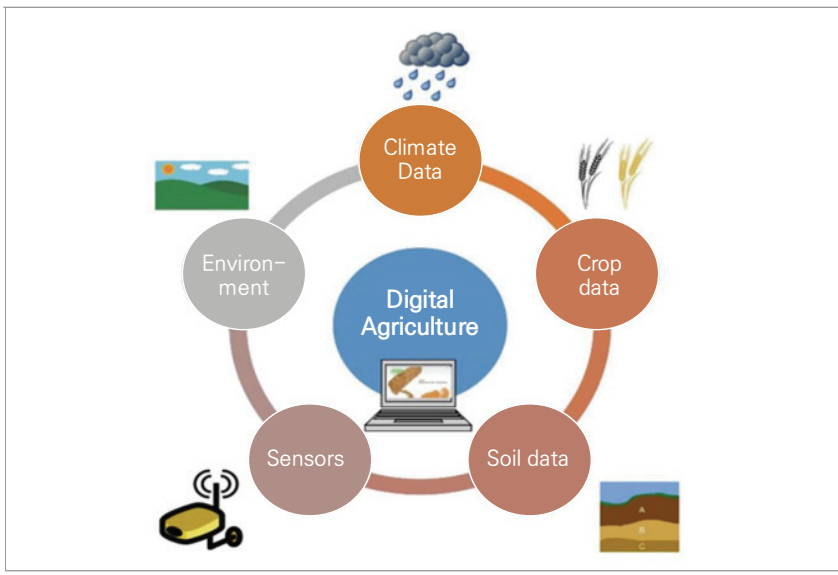
143) 한국농어촌방송.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1>(검색일: 2019. 9. 11).

14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

(1세대),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로 생산성 향상(2세대), 자동화 및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플랜트 수출 등 자율화(3세대)로 분류할 때 우리나라는 편리성이 늘어나고 기능 제어가 가능한 1.5단계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다.<sup>145)</sup>

아직은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이 원예, 축산 중심의 스마트팜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투입재 등 후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로 발전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행정절차 등 스마트농업을 위한 ‘론칭 프로그램’, 전문 인력 육성과 테스트 베드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추진과제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다.<sup>146)</sup>

그림 5-3. 디지털 농업을 위한 한-베트남 협력 방향



자료: 저자 작성.

145) 정재진(2017); 김연중 외(2017). p. 65; 농촌진흥청. <http://www.nongsaro.go.kr>(검색일: 2019. 9. 9).

146) 김연중 외(2017). p. 104.

## 나.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

### 1) GVC와 연계한 입지의 선정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베트남과의 GVC 확대는 생산과 물류 두 분야에서 추진한다. 해외 생산과 물류기지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GVC를 위한 원자재의 조달과 최종 상품의 판매전략을 위한 공간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단에 남북으로 약 1,6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쪽과 북쪽의 인접국이 다르다. 북부 하노이 지역은 중국 서남부지역과 동남아시아 내륙지역인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해 있는 반면에 남부 호치민 지역은 동남아시아 연안 지역인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과 가깝다. 이러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GVC를 위한 전략적 생산 및 물류기지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지 선정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지대(Economic Zone, EZ)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2000년대 후반부터 특별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경제지대를 설립하고 정부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18개의 경제지대를 건설 중이며, 평균적인 경제지대는 10,000ha 이상의 대규모의 면적을 보유하고 전략적으로 항구나 공항에 매우 근접해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조세, 토지임대료 등에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하노이 인근 35km 거리의 박닌성에 위치한 옌퐁공단(Yen Phong Industrial Park)은 배후지역에 270만 명에 이르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최종 생산재를 동남아시아 내륙 및 중국 남부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옌퐁공단 경제지대에는 농식품 기

업인 오리온이 진출해있어 우리 농식품 기업의 진출 초기 애로사항에 대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이 추진중인 중국~동남아시아와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고속철도 연결사업은 내륙 지역에 대한 최종재 판매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5-4. 베트남 GVC 농식품 생산 입지에 따른 판매 진출 가능지역



자료: 저자 작성.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남부 연안지역에 대한 전략적 판매를 위해서는 항만시설이 발달한 베트남 남부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사이공하이텍단지(Saigon High Tech Park, SHTP) 경제지대가 입지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호치민 시내(15km)와 가까워 인력수급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18km), 국제항구(Cat Lai 항구 8km) 등과 인접하여 국제물류 운송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면적은 326ha(95% 활용)이며 현재 913ha로 확대될 예정이다.<sup>147)</sup>

BOX : 메콩델타 지역의 물류 현황

- 베트남의 현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트남 내 물류 비용이 가격의 20~25%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형편임.
- 메콩델타 건너와 하우장성에 위치한 카이쿠이(Cai Cui) 항은 호치민시에 인접하였으나 1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의 접안이 어렵고 컨테이너 야적지가 부족하여 내륙으로의 운송 혹은 수출 대기 야적역량이 부족함. 또한 이 지역에는 냉장창고가 룡안, 건너, 하우장 등 6곳에 불과하여 남부지역 농산물의 60~65%를 차지하는 메콩델타 농산물을 수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내륙까지 운송, 보관함에 따른 수확후 손실량이 막대한 실정임.
- 메콩델타 지역의 화물운송은 2017년에 1억 3,170만 톤에 도달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6.2%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017년에는 바리아붕따우 성의 카이멩티바이(Cai Mep Thi Vai)항이 심수항으로 건설되어 EU, 미국 등 해외수출이 가능한 15만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출과 유통을 위한 냉장시설을 갖춘 창고와 냉장컨테이너 적치시설 등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아울러 운송체계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생산자-운송업자-수출업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전체 물동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하이퐁 신항구 개발과 항만-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및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자료: 베트남 경제연구소(VIE) 소장 인터뷰(2019. 10. 23).; Construction Consultation JSC for Maritime Building (2019), pp.14,23-24,50.

## 2) 지원방법 및 추진단계

지원대상은 베트남 현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의 현지법인이며, 지원품목은 한국산 신선 및 가공 농식품, 지원내용은 베트남(하노이/호치민) 공동물류센터를 거점 물류시설 기지로 공동 활용하고 내륙지역 물류기지까지의 냉동·냉장 시스템 일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14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ristalll&logNo=220836206046&parentCategoryNo=&categoryNo=2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검색일 2019. 10. 27).

동남아시아 권역에 있는 대부분 국가의 농식품 물류 시스템 환경을 보면 콜드체인(Cold-Chain) 시스템 형식의 저온유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품 손실로 인한 감모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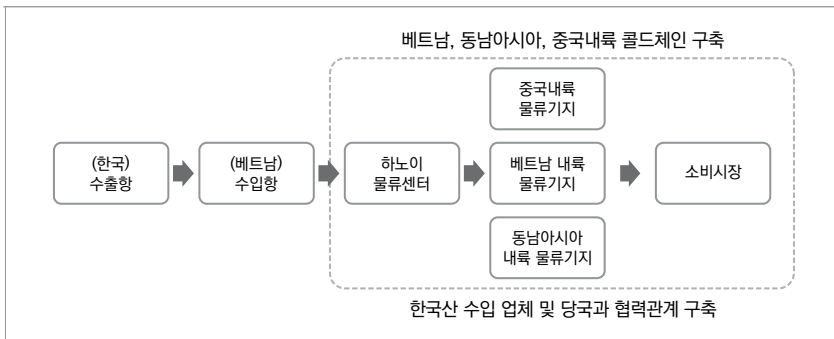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콜드체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물류와 유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에 관한 한-베트남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지 진출 한국 물류기업과 협업으로 운송망을 수립하고, 베트남, 동남아시아 및 중국 남부지역 내륙 냉동·냉장 운송(정기 및 비정기노선)이 가능한 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운송을 지원하며,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및 현지 한국산 수입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순으로 추진한다.

표 5-2. 콜드체인 시스템 물류기지 운영 지역

구분	출발지역	도착지역
정기선 및 비정기선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 거점지역 소비지 물류기지</li> <li>• 중국 남부지역 거점지역 소비지 물류기지</li> </ul>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5. 베트남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체계(하노이 지역 예)



자료: 저자 작성.



1단계는 하노이(호치민) 물류센터 → 베트남 내륙(껀터, 다낭, 하이퐁)이며, 운송방법은 제품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규모물량 품목군을 만들어 매주 배송할 수 있는 고정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송차량은 40피트 컨테이너 운송 위주로 운영하되, 운송물량에 따라 20피트, 5톤 저온 탑차 등 이용·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차량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2단계는 물류거점지역 내 배송 → (동남아시아 내륙지역, 중국 남부 내륙지역)이며, 운송방법은 정기적으로 동남아시아 내륙지역, 중국 남부 내륙지역의 거점도시별 지정창고에서 대형유통매장 등 운송 희망 지역에 배송지원한다. 운송차량은 근거리 배송임을 감안하여 2.5톤 또는 5톤 저온 탑차 등 지역별 시내 운송이 가능한 차량을 지정하여 배송하도록 한다. 단, 각 도시별 시내운송 가능 차량이 제한되므로 현지 규정에 맞추어 차량을 선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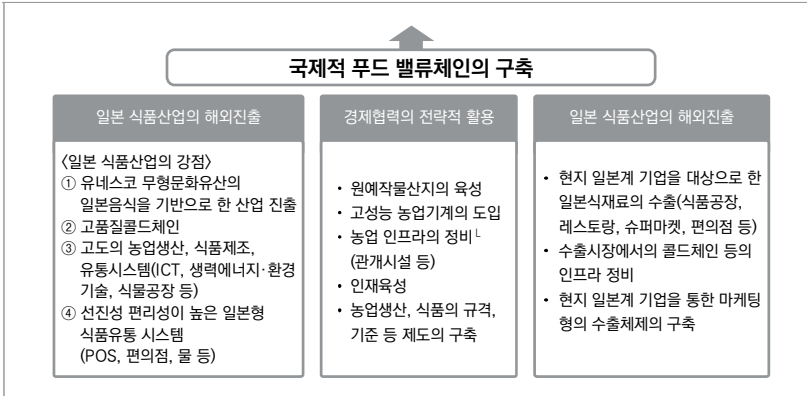
### 3) 기대성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산 냉동·냉장식품의 동남아시아 및 중국남부지역 내륙 운송망 구축을 통한 품질·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 절감,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물류센터(보관)와 연계한 내륙 트러킹(Trucking), 항공 콜드체인 운송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확장된 내륙시장을 개척하여, 신선우유, 과일류, 김치류 등 한국 농식품 냉장·냉동 운송 지원으로 베트남 내륙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의 소비를 보다 저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BOX : 일본 「글로벌 식품 가치사슬 추진전략」

- 일본은 2014년 농림수산업 관방국제부 주관으로 ‘글로벌식품가치사슬추진관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체제를 갖추어 국가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2020년에 농식품 연관산업의 해외 매출이 약 5조엔 달성을 목표로 함(2010년은 약 2.5조엔).

그림 5-6. 일본 글로벌 푸드 밸류체인의 구축



- 베트남과는 ‘일-베 농업협력증장기비전’을 수립, 4차례에 걸쳐 일-베농업협력대회를 개최하고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식품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임(2015~2019).
- 일본-베트남 농업협력 증장기 비전 중 실천계획(2015~2019)
  - 생산성, 부가치의 향상 : 시범지역 내안성
    - 노후화된 관개시설의 개보수, 안전한 채소의 생산체제 구축 등으로 농업 생산성과 부가치의 향상
    - 농업기계화와 고품질 사료작물의 생산 등을 진행
  - 식품가공, 상품개발 : 시범지역 람동성
    -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농작물 생산
    - 식품가공시설과 집출하 선별 저장시설의 설치
    - 주요 작물의 브랜드와 관광농업의 홍보활동의 지원
  - 유통개선, 콜드체인 : 시범지역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 근교
    - 냉장, 냉동창고의 건설과 저온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의 촉진
    - 농산물, 식품의 규격, 인증에 관한 일본-베트남 공동조사의 실시 등
  - 공동분야
    - 농업분야 기후변화에의 대응 : 염수침투를 억제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 임업분야 기후변화에의 대응 : 유역보전림의 조림, 지역주민의 산림관리역량의 강화
    - 인재의 육성 : 강좌개설, 일본의 식품관련 기업으로부터의 강사 파견 등
- 일본 농림수산성은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 전략을 추진하면서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근교에 유통개선,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 투자지원 계획을 수립함.
- 여기에는 냉장, 냉동창고를 건설하고 저온유통체제를 구축하도록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농산물과

- 식품의 규격, 인증에 관한 일본-베트남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다 자세하게는, 우선 2016년 7월부터 호치민 시 인근의 빈투언성에 냉장, 냉장, 상온 등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고품질, 대량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그리고 하노이에 건설중인 검사·품질컨설팅센터(RETAQ Center)에 검사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8년 10월에 무상원조 협력을 위한 서한을 교환함.

자료: 農林水産省大臣官房國際部(2019), pp. 2, 9-10.

### BOX: 호치민 물류사업 개발 전략 및 개발 계획

- 호치민 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 물류 인프라 개발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함.
  - 기획: 베트남 물류협회(컨설팅 지원)
  - 계획발표: 현재 물류기지 위치, 규모, 운영방안,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목적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개발 계획 초안 완료 예정
  - 예산: 현재 다양한 예산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BOP, PPP, ODA 사업 예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물류기지 장소 확보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개발, 운영 프로그램은 외부투자를 통해 확보
  - 투자기관: 현재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 관심 표명
  - CJ는 물류기지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어 물류기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 베트남 호치민 CJ 베트남 지사 주재원 인터뷰(2019. 10. 22. 호치민).

## 다.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

### 1) 검역시스템 수립의 의의와 필요성

농산물 검역시스템은 검역 과정에서의 검사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수입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농산물 품질인지의 여부, 유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방지 화학 약품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관리, 온습도 등의 환경 제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자료 공유 등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수출업체를 포함하여 관련한 정부 부처, 유관 기관, 연구소, 검역소 등의 이해관계자가 여러 단계

로 얽혀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ODA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검역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수출 채널 확보 등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농업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즉, 검역 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은 쌀, 옥수수 등의 주곡 작물뿐만 아니라 커피, 채소, 가공식품 등의 비전통적 품목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수출경쟁력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국가의 높은 검역 수준을 통과할 수 있는 수출검역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베트남은 열대과일 SPS 분야의 위생검역과 관련한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sup>148)</sup> 2019년 10월 23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베트남 측에서 양국간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대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확대를 요청하였다.<sup>149)</sup> 이처럼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외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이에 걸맞은 검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농산물의 동남아시아 지역내 연계성 강화를 비롯한 중국, 유럽, 미주 등지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한-베트남 FTA의 활용 증대 등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로서의 검역시스템의 수립과 역량강화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FTA 등을 통해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농식품에 대한 검역과 같은 기술규제(technical regulation)가 교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

148)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6. 12. 7).

149) 외교부 보도자료(2019. 10. 24).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증제도, 수입식품등록제도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저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검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수출국 입장과, 건강, 위생,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수입국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국, 수출국 지위는 항상 바뀌는 것이다.<sup>150)</sup> 검역절차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이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베트남의 검역역량을 높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2) 검역 시스템 발전과 협력 방향

우리나라는 1996년 이래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WTO/SPS)’이 체결, 발효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한 결과이다(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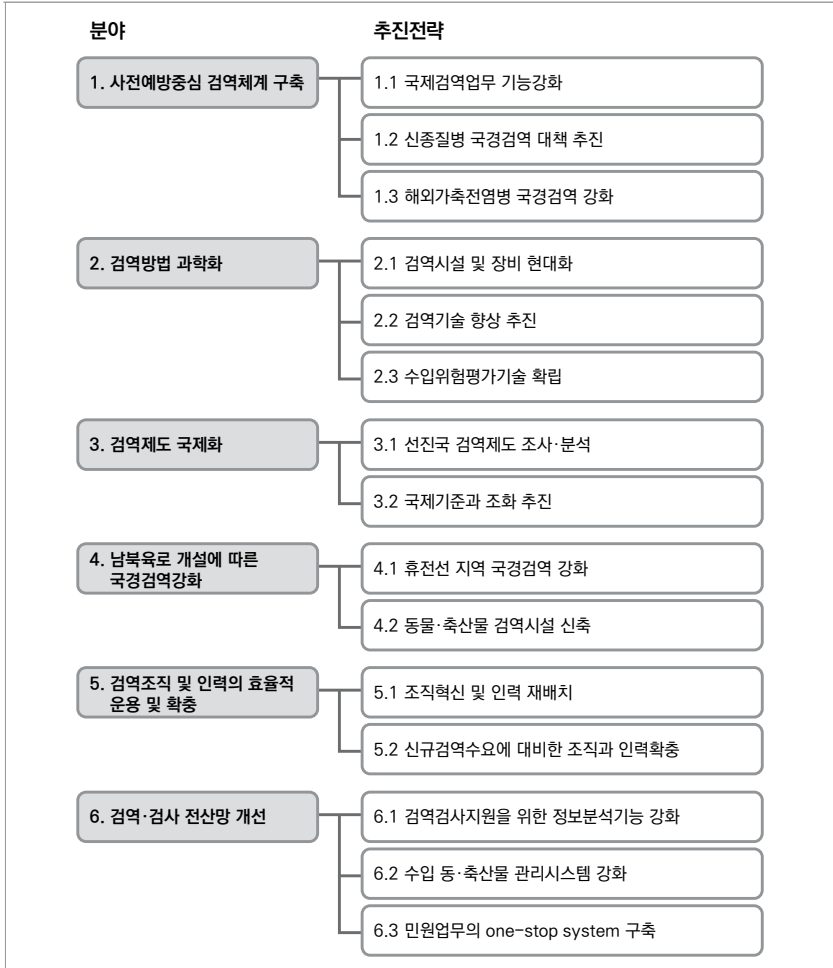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해 상대국에서의 질병 발생 정보의 모니터링, 정보공유를 통해 국경 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조기 청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식물검역 분야에서는 과일 수입시 저온, 증열처리 등 소독처리를 요구하며 현지에서 식물검역관이 검역하도록 하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sup>151)</sup>

---

150) 환경대학교(2014), p. 19.

151) 환경대학교(2014).

그림 5-7.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의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



자료: 한경대학교(2014: 45).

베트남의 검역 시스템 구축과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의 방향은 기존의 관련 협력사업의 경험으로부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검역 장비가 노후화되고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는 등 검역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아 EU 등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우리나라의

KOICA에서는 600만 달러 규모로 해당 역량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52)</sup> 이 사업은 비단 검역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품질관리와 관련 제도의 도입 등 가치사슬 관련 세부사업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8. 스리랑카 농산물 수출입 검역시스템 개선사업 목표체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9c: 3).

BOX: KOICA의 스리랑카 농산물 검역시스템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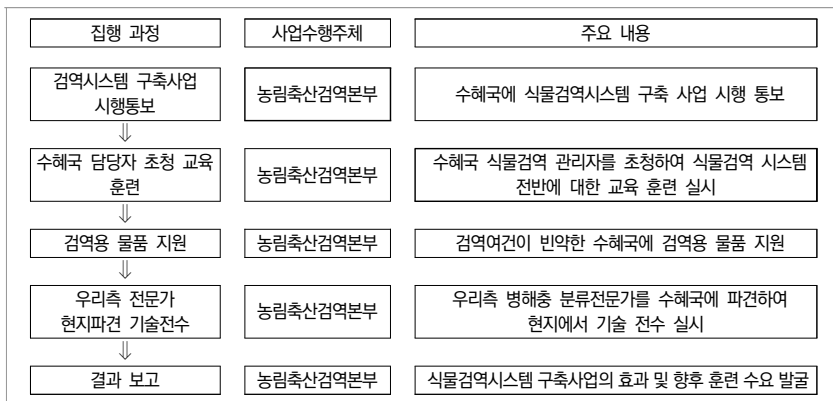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의 목표는 농산물 검역역량 및 농업 가치사슬 상 생산 및 유통단계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농산물 수출다변화와 수출량 증대를 통한 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 세부적으로는 ①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검역제도 개선, 검역관 역량강화, 검역 설비 및 검사장비 지원), ② 농산물 품질관리(GAP) 역량강화 및 농업가치사슬 확대(GAP제도 컨설팅, GAP농가 조직화, 농민/공무원 역량강화 및 기자재 지원), ③ 농산물 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지원), ④ 사업성과 제고(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추진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2019c).

152) 한국국제협력단(2019c).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베트남을 포함하여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주로 한 ‘동식물검역검사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sup>153)</sup> 사업예산은 2018년의 경우 2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 향상을 위한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국제기준 워크숍 개최 및 참가 지원,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지원”으로 되어 있다. 시스템 구축지원은 약간의 실험실 기자재 제공에 국한되어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개최되면서 개도국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체 평가이다. 이 가운데 개도국 국경검역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라오스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2014년부터는 대상국가로 미얀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 및 기술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파하여 미얀마의 식물검역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의 집행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sup>154)</sup>

그림 5-9. 개도국 국경검역 시스템 구축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 26).

153) 농림축산식품부(2018).

154) 농림축산식품부(2018). p. 26.



### 3) 사업 추진방법

검역 시스템 수립 사업은 보다 정밀한 현황과 수요 파악을 통해 세부 사업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농산물 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역관을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검역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이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컨설팅과 연수 등 기술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동식물검역검사사업’을 참고로 하고 초청연수와 워크숍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 보강이다. 초기에는 부족한 시설, 장비와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조직과 인력은 필수 부분을 보강하되 실험실 정밀검사와 국제업무 전문인력의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동물검역과 식물검역, 수산물검역을 총괄하는 농림수산물검역본부가 발족하였다.<sup>155)</sup>

설비와 장비 등 하드웨어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시설들을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협력사업을 구성하도록 한다. 식물검역의 경우 대상품목 수가 많고 관련된 병해충의 종류도 다양하다. 기후, 생태 등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수시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식물검역관의 파견,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등 전문성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역관리 대상 질병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 확대하여야 하며,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등에서 검사항목도 늘려야 할 것이다.<sup>156)</sup>

셋째,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다. 검역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

155) 한경대학교(2014).

156) 한경대학교(2014), p. 26, p. 29.

한 수출입 검역업무가 될 수 있도록 검역관련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역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동축산물 검역정보시스템(KAQIS)', 무작위 정밀검사를 위한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 해외여행자 휴대축산물 관리용 '국경검역정보시스템(BQMS)', 그리고 국내 가축질병발생 상황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의 동물검역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식물검역 분야에서는 윈스톱 수출입 합격증 발급을 위한 '식물검역처리시스템(QIPS)' 등이 도입, 시행되었다.<sup>157)</sup>

이러한 세부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하되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같이 ICT 기술수준이 발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는 검역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공항, 항만, 국경 검역소 등이 있다. 개발협력 사업은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타지역으로 확산(scale up)되도록 하고 향후 양국간의 농산물 등의 교역 확대와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157) 한경대학교(2014).

## 제6장

K

PMW

## 요약 및 결론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늘었고,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 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

억 9,354만 달러이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협력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1)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 2) 원료농산물 공급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수매를 통한 연계, 3)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 등의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세부 협력추진 과제로는 1)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 2) 생산 및 물류지의 구축, 3)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농업현황과 정책 및 전략,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두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확대된 양국의 관계를 위한 농업분야 중장기 전략으로 협력모델과 세부 추진분야를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FTA 교역과 가치사슬 등 경제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의 개발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밀접한 분야에의 투자와 지원을 원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매우 빠르게 발전한 양국간의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와 잠재력을 해결, 발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분야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한 세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이 연구의 후속 연구 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4.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_\_\_\_\_. 2015.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_\_\_\_\_. 2016.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_\_\_\_\_. 2017.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_\_\_\_\_. 2018.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_\_\_\_\_. 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 권율·김미림. 2018.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  
의 세계경제 제18권 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필·김상현·한정훈. 2017. 『농식품 수출시장 소비 특성 및 수출증대 전략』.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김경필·한정훈. 2017. 『베트남 수출시장의 농식품 유통/소비 특성 조사 보고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김경필·반현정·한정훈. 2015.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  
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근식.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미정. 2002.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현·김경필·한정훈. 2018.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구입 의향 결정요인 분  
석」. 『농촌경제』 제41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석진. 2008. 『중국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산업연구원.
- 김세원·김종일·강동근. 2017.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산업연구원.
- 김연중·박지연·박영구. 2017.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김영진. 2012.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정책과 공적개발원조의 역할: 중국·베트남 사례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훈·어명근·이상현·조성주·정대희·안수정·오새라. 2016.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윤·정재완·이재호·신민금·박나리. 201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한성·이홍식·강문성·송백훈. 2015.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동향과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설명서』.
- 농촌진흥청. 2019.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18-2022)-2019년도 시행계획」. p.315-350.
- 방호경·김대홍·김형주·고희채·정재완·권경덕.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2017. 「주요 대기업 대표 제품의 GVC 구조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8년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FTA협상총괄과.
- 송우진, 이수환, 염정완, 김지연. 2018. 「한·중, 한·베트남 FTA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현안분석 제56호(2018.12.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7.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 양문수. 2018.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자료집』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엄석진·김성훈. 2011.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 영남대학교·호치민국립정치아카데미. 2015. 『베트남의 새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새마을운동의 비교연구에 관한 한국·베트남 공동 정책연구: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
- 이대섭, 최용욱, 이윤정, 안규미, 석현덕. 2017.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대섭·이윤정·최민정. 2015. 『중아시아 산업구조 심층분석 및 진출전략: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민·장철수·송성환. 2013.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동향과 경쟁력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Vol. 102. No.2 203호. pp.281-291. 한국산림과학회지.
- 이한우. 1998.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 1975~1993- 탈집체화의 전개 과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우·현동환·정혁준. 2012.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사후평가 완료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이해정·이용화·천용찬·박용정. 2018.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VIP 리포트 18-10(통권 725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홍식·강문성·김한성·송백훈·이창수. 2018.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영일. 2019.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그 특징은 무엇인가」. POSRI 이슈리포트 2019.2.14. 포스코경영연구원.
- 원지환·김민석. 2018.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국제경제리뷰 제2018-20호. 한국은행.
- 정기환, 최찬호, 고순철. 2015. 「베트남 새농촌개발(NRD) 2016-2020 정책자문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정웅. 2005. “북한의 체제변화경로에 관한 연구-중국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5(1). 한국통일전략학회.
- 정재진. 2017. 「4차산업혁명과 농업생산 혁신 전략」,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
- 정지원·윤미경·송지혜·유애라·오혜경. 2018.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성태·이현근·이수환·유정호. 2015.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창열·정한경. 2007. “수출 경쟁력 지수에 의한 EU시장에서의 한국 제조 기업의 경쟁력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한경대학교. 2014. 『2014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 농림축산물 검역 선진화』. 기획재정부.
- 한국국제협력단. 2019a. 「201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9b.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2019-2023/1,500만불) 사업기획관리(Project Management) 용역 제안요청서」.
- \_\_\_\_\_. 2019c. 「스리랑카 농산물 수출입 검역시스템 개선사업(2019-2022/600만



- 불) PMC 용역 제안요청서」.
-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사무소. 2019. 「베트남 팜빈성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인적자원 개발 예비조사 기본계획(안)」.
- 한국농어촌공사. 2019. 『내부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동향 스마트팜 확산 방안」. 주간농업농촌동향 Vol.17 (2018.4.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베트남 채소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소농의 지속가능한 생계향상 프로젝트 사업기획(안)」.
- 허장. 2014. 『“한국형 ODA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연구 : 농촌 종합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정기환. 2008.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사업 컨설팅 : 2차년도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T유통연구소. 2017. 「베트남 농식품 시장현황 및 진출확대를 위한 시사점, 농식품 & 유통 이슈 리포트. aT농식품유통교육원.
- EC21. n.d.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친환경농자재편. 시설자재편. 농기계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EC21. n.d.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시설자재편. 농기계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EC21. n.d. 농기자재별 핵심 수출대상국 시장분석 보고서(베트남). 농기계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KOPIA 베트남 센터. 2019. 「베트남 농업 및 한-베트남 농업 협력 현황」. 농촌진흥청.
- KOTRA, 2016. 「2017 베트남 진출전략」. 하노이 무역관.
- KOTRA. 2017.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Global Market Report 17-049.

## [영문자료]

- ADB. 2016. “Viet Nam, 2016-2020 Forsteriung More Inclusiv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owth”, pp.5-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onstruction Consultation JSC for Maritime Building (CMB). 2019. 『Options of Transporting Vegetables, Fruits from Southern Provinces to Cai

- Mep Thi Vai Area for Export: Final Report」.
- FAO. 2017.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for Viet Nam 2017-2021”, pp.1-10.
- Heo, Y. & N.K. Doanh. 2009. “Trade Liberalis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The World Economy』 32(6):934-964.
- IFAD. 2012.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pp.1-10.
- Kornai, Janos, Eric Maskin and Gerard Roland. 2003.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4): 1095-1136.
- Lammersen, F. and M. Roberts. 2015. “Aid for trade 10 years on: Keeping it effective”,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s, No. 1, OECD Publishing, Paris.
- Magrini, Emiliano, Pierluigi Montalbano, L. Alan Winters. 2018. Households’ vulnerability from trade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112: 46-58.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2019.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hift of Agricultural Policies since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of Viet Nam”. (본 연구 위탁연구 결과)
- OECD. 2013. “Mapping Global Value Chains.” Trade Policy Paper No. 159.
- OECD. 2016. “Aid for Trad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Strengthening Synergies”, p.24.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s No.5.
- OECD Development Centre. 2019.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9: Towards Smart Urban Transportation”. OECD.
- OECD·WTO. 2013.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3: Connecting to value chains”.
- OECD·WTO. 2019. “Aid for Trade at a Glance: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USAID. 2013.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Vietnam 2014-2019”, pp.1-42.

Vietnam Government. N.d.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eriod of 2011-2020”.

WBG. 2017.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eriod FY18-FY22, pp. 19-23.

World Bank. 2020. “Doing Business 2020”, World Bank Group.

### [일본어 자료]

農林水産省大臣官房國際部. 2019. “グローバル・フードバリューチェーン略の推進について”.

### [베트남 정부문서]

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cision No. 899/QD-TTg, 2013)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8.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18」.

Master pla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 through 2020, with a vision toward 2030 (Decision No. 124/QD-TTg, 2012.2.2.)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Vietnam. 내부자료.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8. “Viet Nam’s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신문기사]

「한류 열풍에도 한국산 소비 미풍... SNS 홍보 나서야」. 2018. 『중앙일보』. (3월 24일)

### [보도자료]

산업통상부. 2016. 「한-베트남」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보도

자료. (12월 7일)

외교부. 2019. 「제17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10월 24일)

### [발표자료]

- Dzung, Tran Viet. 2019. “Digital agriculture and aspect for future Korea-Vietnam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e sector.” PPT presentation at the Korea-Vietnam Seminar 2019 in Hanoi, Vietnam. (July 23)
- Kim, Sanghyun, Hyojung Lee & Suhwan Lee. 2019. “The Way Forward for Expanding Korea-Vietnam Cooperation in Agriculture Sector.” PPT presentation at the Korea-Vietnam Seminar 2019 in Hanoi, Vietnam. (July 23)

### [인터넷 자료]

- 고성신문 홈페이지. [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20702](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20702)(검색일: 2019.9.10.)
-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27942>(검색일: 2019.9.10.).
- 네이버 블로그, 201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ristalll&logNo=220836206046&parentCategoryNo=&categoryNo=2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검색일 2019.10.27.).
- 네이버 블로그, 2019. <https://blog.naver.com/prkoica/221492015832>(검색일: 2019.11.22).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해외정보공유서비스. 농기자재수출정보 사이트, <https://www.maps.or.kr/ameMaInfo.do/>(검색일: 2019. 08. 01).
- 농촌진흥청. <http://www.nongsaro.go.kr/portal/bsFileDownload.do?ep=a5gb/CMEYLcliUPoWw9/DZpAzn2z8@sWTCNA5pR4wDVLICqLjEinzB9HmqI9vAFQr/BD1mimyxS24DCPRsGqxQ!!>(검색일: 2019.9.9.).
- 뉴스인. <http://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03>(검색일: 2019.11.22.)

식품외식경영 홈페이지. <http://www.foodnews.news/news/article.html?no=14598>(검색일: 019.9.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91014020900030>(검색일: 2019.11.22.).

한국농어촌방송.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1> (검색일: 2019.9.11.).

한국무역신문.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no=27433&section=1&category=136>(검색일: 2019.9.11.).

<https://www.dag.vn/article/xuat-khau-nong-san-2019-lap-ky-luc-voi-nhung-quot;ngoi-saoquot;-ty-do-118-653795-2.da>.(검색일 2019.10.7.).

<https://www.kotra.or.kr/hochiminh>(접속일: 2019.8.21.).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2018to2020\\_flows\\_En.pdf](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2018to2020_flows_En.pdf). (검색일:2019. 11. 14).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no-899-qd-ttg-agricultural-restructuring-towards-raising-added-values>(검색일: 2019. 8. 20).

Kati. 농식품수출정보. 베트남 통관제도,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86>(검색일: 2019.10.21).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고용시장 현주소, 청년은 ‘실업난’·기업은 ‘고용난’,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5703>(검색일: 2019.8.19).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2018년 결산 및 2019 경제전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 (검색일 2019.10.20.~23).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우리 기업의 투자만족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54609/>(검색일: 2019.08.22).

KOTRA, <http://news.kotra.or.kr>(검색일: 2019.9.2.).

KOTRA,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및 교역동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

dataIdx=176376(검색일: 2019.12.22.).  
KOTRA, <http://www.kotra.or.kr/해외투자정보>(검색일: 2019. 8. 21).  
KOTRA, <http://www.kotra.or.kr/hochiminh>(검색일: 2019.10.25.)  
Lonely Planet, <https://www.lonelyplanet.com/maps/asia/vietnam/>(검색  
일: 2019.12.20.).  
USDA/FAS/PSD online data. 2019. <http://apps.fas.usda.gov/psdonline>(검  
색일: 2019. 7. 14).  
World Bank VN.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검색일:  
2019. 8.15.).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PS-IMS),  
<http://sps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TBT-IMS),  
<http://tbtims.wto.org/>(검색일: 2019. 10. 21).

### [Data Base]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 <https://www.gtis.com/gta/>(DB 검색일: 2019.08.14).  
FAOSTAT. 2019. DB(검색일: 2019. 10. 27).  
Global Trade Atlas. 2019. DB(검색일: 2019. 8. 24).  
ODA KOREA. 2019. <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검색일: 2019. 7. 25).  
OECD. 2015, TiVA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https://stats.oecd.org/  
index.aspx?queryid=66237](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237)(검색일: 2019. 10. 8).  
OECD 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The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9. 8.11.~17).  
UN Comtrade. 2019. DB(검색일: 2019. 8. 24).

### [인터뷰]

베트남 경제연구소(VIE) 소장 인터뷰(2019. 10. 23).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담당자 인터뷰(2019. 7. 25).  
베트남 오리온 푸드비나(OFV) 관계자 인터뷰(2018. 11. 13).

베트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부소장 인터뷰(2019. 10. 23).  
베트남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 소장 인터뷰(2019. 7. 23).  
베트남 호치민 CJ 베트남 지사 주재원 인터뷰(2019. 10. 22. 호치민).  
aT 하노이지사 지사장 인터뷰(2019. 7. 23. 하노이)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VASS) 관계 담당자 인터뷰(2019. 7. 25, 하  
노이)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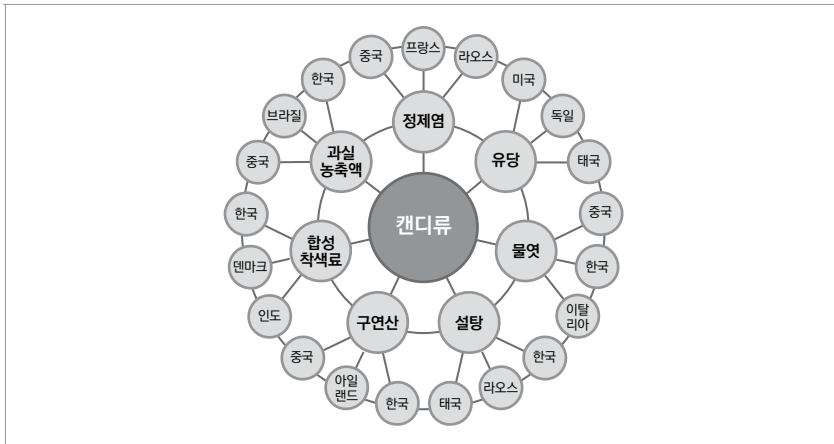


# 부록 1. GVC 참여와 역내 분업구조: 캔디류, 빙과류, 라면, 비스킷과 과자류

## 가. 캔디류

캔디류는 식물성 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양금 등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추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 주요 캔디류 제조 업체로는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오리온, 농심, 오리온스넥인터내셔널, 크라운제과 등이 있다. 캔디류의 주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당, 물엿, 설탕, 구연산, 정제염, 과실농축액, 합성착색료 등이며, 베트남 내에서 이들 주원료의 잠재적 공급 국가는 동북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인 라오스, 태국, 유럽국가인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외 미국, 인도 등이다<부도 1-1>.

부도 1-1. 베트남 내 캔디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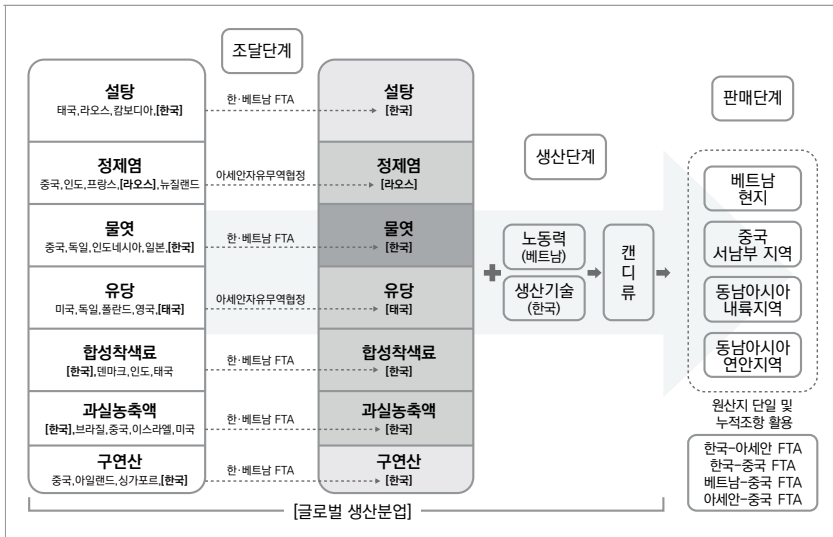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사탕류 제조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은 다음 <부도 1-2>과 같다. 이들 업체는 역내 생산 분업에 따라 주 원료인 설탕, 물엿, 합성착색료, 과실농축액, 구연산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공급받으며, 정제염, 유당 등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역내지역인 라오스, 태국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다.

주원료와 베트남의 노동력,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합되어 생산된 캔디류는 인스턴트커피와 동일하게 원산지 단일 및 누적조항에 입각하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베트남-중국 FTA, 아세안-중국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베트남 현지, 중국 서남부지역, 동남아시아 내륙지역, 동남아시아 연안지역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캔디류 판매를 통해 우리나라는 설탕, 물엿, 합성착색료, 과실농축액, 구연산 등 중간재에 대한 베트남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직간접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 1-2. GVC 활용한 캔디류의 역내분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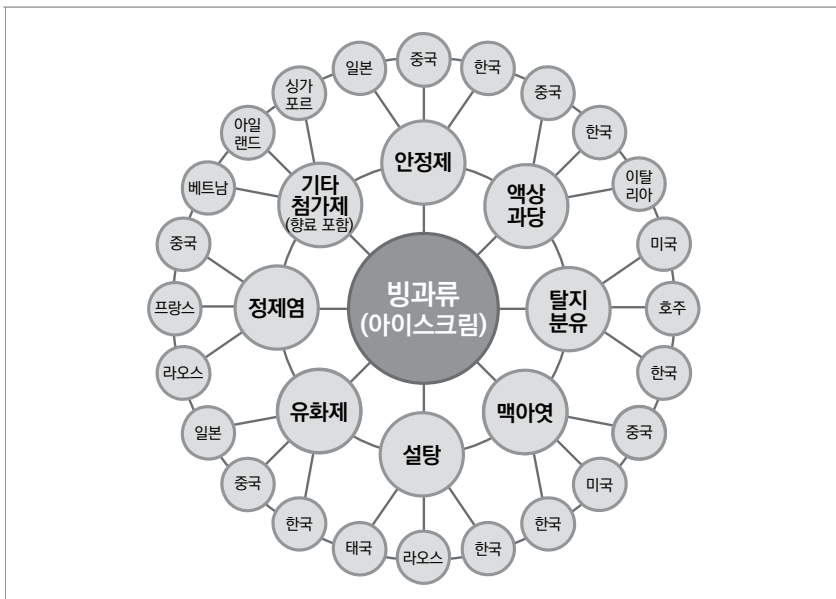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나. 빙과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빙과류는 원유, 유가공품, 먹는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을 말한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빙과류의 주원료는 탈지분유, 맥아엿, 설탕, 안정제, 액상과당, 유화제, 정제염, 향료 포함한 기타 첨가제 등이며, 빙과류 주요 제조업체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제과이다.

〈부도 1-3〉은 우리 빙과류 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했을 시 주요 제조원료의 잠재적 공급 경로를 나타내며, 주요 공급국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라오스, 호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포함된다.

부도 1-3. 베트남 내 빙과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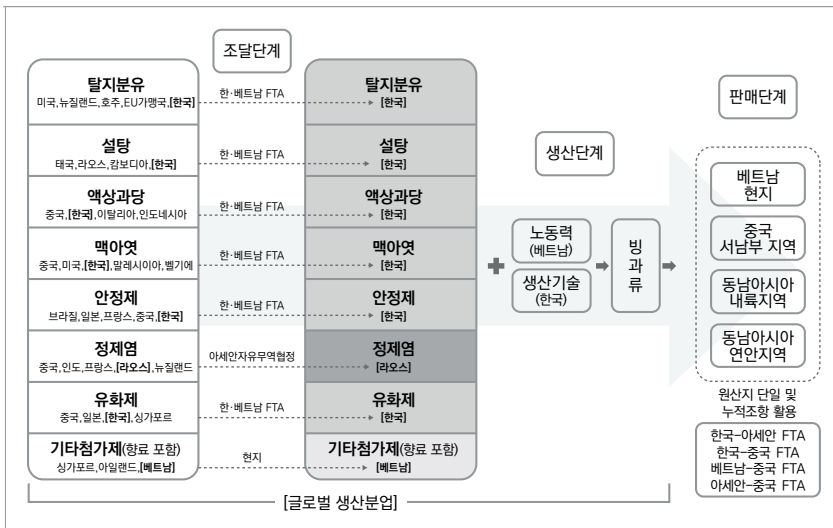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4〉는 우리나라 빙과류 제조업체가 FTA 등을 활용하여 조달비용을 경감하고자 할 경우 선택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모델이다. 역내 생산 분업 모델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빙과류 업체는 자국에서 공급 가능한 기타첨가제를 제외한 주원료인 탈지분유, 설탕, 액상과당, 맥아엿, 안정제, 유화제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며, 정제염은 베트남의 아세안 협력국인 라오스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원료와 현지 노동력, 우리 제조기술을 통해 생산한 빙과류는 마케팅 목표 지역인 베트남 현지와 동남아시아 및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판매되며, 우리나라의 탈지분유, 설탕, 액상과당, 맥아엿, 안정제, 유화제 등 빙과류 제조를 위한 원료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도 1-4. GVC 활용한 빙과류의 역내분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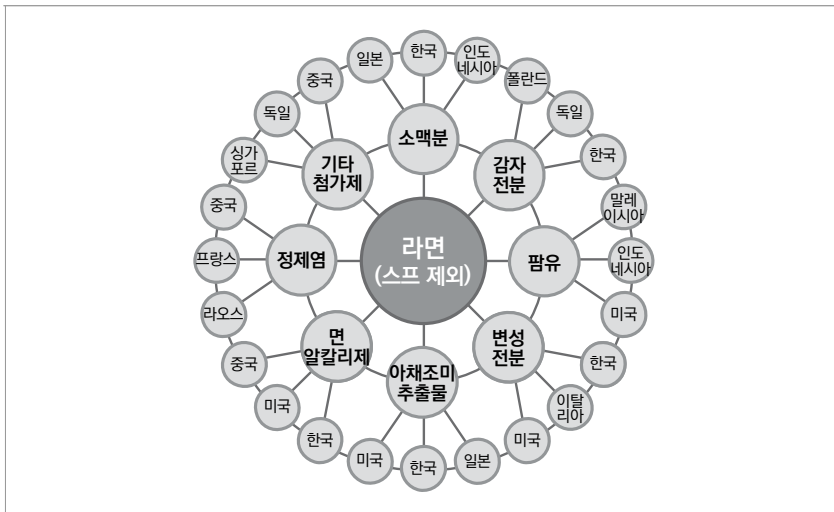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다. 라면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에서 연초류 다음으로 중요한 농식품에 해당하는 라면의 주원료는 중간재인 면과 스프류에 따르며, 본 연구에서는 면의 제조만을 고려하고 스프류<sup>158)</sup>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라면의 면의 주원료에는 밀가루 소맥분과 감자전분, 팥유, 변성전분, 야채조미추출물, 산도조절제로 작용하는 면알칼리제인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탄산수소나트륨, 인산류의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 정제염, 비타민B2 등의 기타 첨가제 등이 포함되며, 베트남 현지에서 이들 주요 제조원료의 잠재적 공급 경로는 <부도 1-5>와 같다.

부도 1-5. 베트남 내 라면(스프 제외)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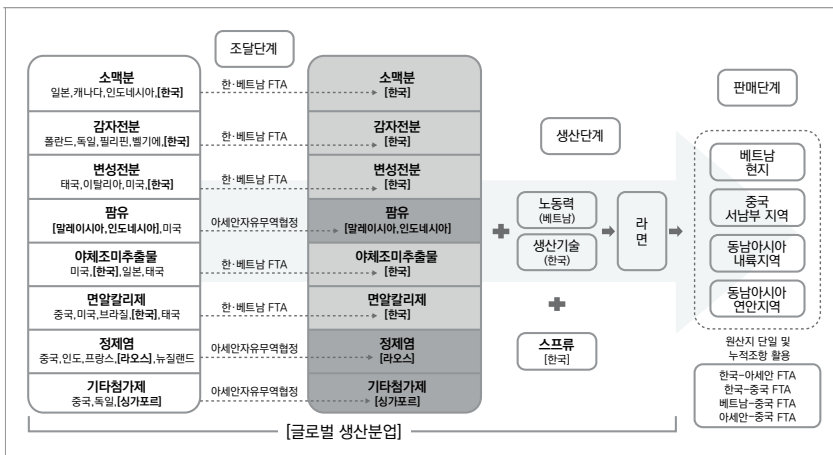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58) 스프류의 주원료는 소고기맛베이스, 정제염, 매콤양념분말, 간장양념분말, 정백당, 볶음양념분, 조미소고기분말, 간장분말, 후추가루, 조미홍고추분말,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 대두단백, 건파, 건청경채, 건표고버섯, 건당근, 건고추 등임.

〈부도 1-6〉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라면의 원료조달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분업 과정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라면 제조업체는 베트남에서 현지조달, 한-베트남 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원료 조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스프를 제외한 라면의 주원료별 공급지역을 살펴보면, 밀가루인 소맥분, 감자전분, 야채조미추출물, 변성전분, 면알칼리제는 우리나라를 통해 조달받으며, 팜유, 정제염, 기타첨가제 등은 아세안지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라면 면의 공급국별 주원료와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스프류, 베트남의 노동력, 우리나라 라면 제조업체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제조된 라면은 마케팅 목표지역인 베트남 현지, 동남아시아 내륙 및 연안지역,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판매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맥분, 감자전분, 야채조미추출물, 변성전분, 면알칼리제의 수출이 증대하고, 생산농가 및 전후방 관련 업체의 부가가치 소득은 직간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도 1-6. GVC 활용한 라면의 역내분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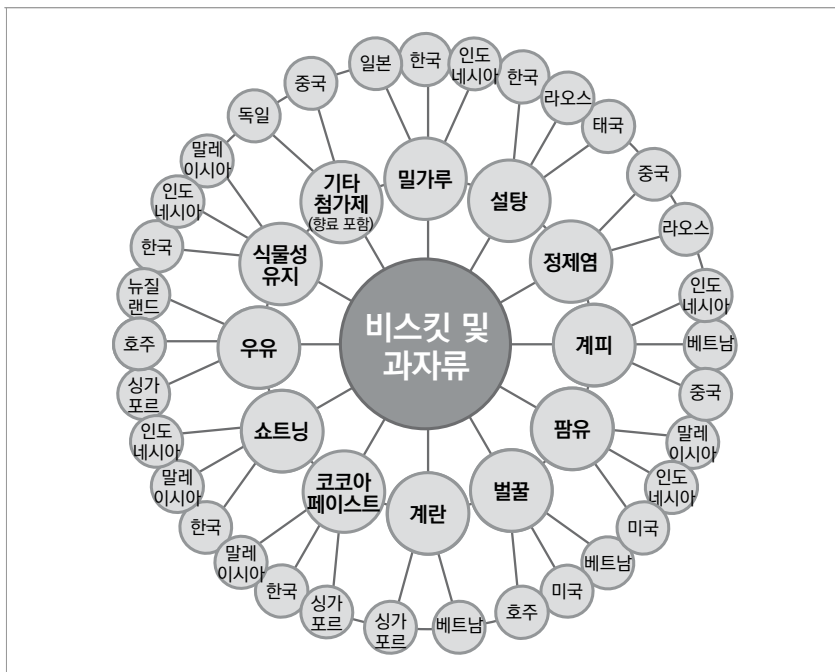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라. 비스킷 및 과자류

비스킷 및 과자류의 동남아시아 지역 및 중국 수출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기록한 상태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스킷 및 과자류 주요 제조업체는 오리온, 크라운, 농심, 롯데, 해태, 농심켈로그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의 비스킷 및 과자류 주원료는 공통적으로 밀가루, 설탕, 정제염, 계피, 팜유, 벌꿀, 계란, 코코아 페이스트, 쇼트닝, 우유, 식물성 유지, 향료를 포함한 기타 첨가제 등을 포함한다.

〈부도 1-7〉은 베트남 내에서 우리나라 진출업체들이 조달 가능한 비스킷 및 과자류 주원료의 잠재적 공급 경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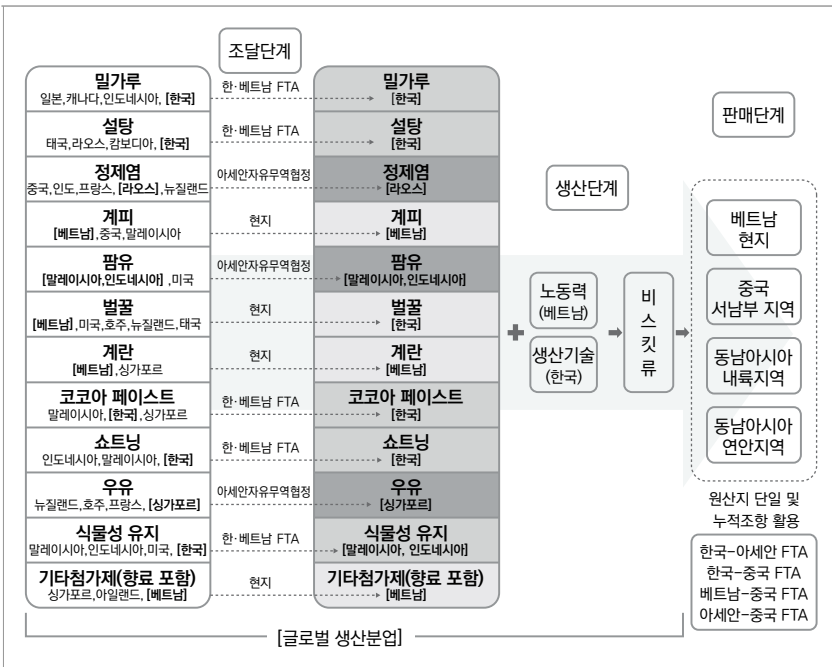
부도 1-7. 베트남 내 비스킷 및 과자류 주원료의 국가별 잠재적 공급 경로



자료: 저자 작성.

잠재적 공급 경로에 따른 비스킷 및 과자류 주원료의 공급국에는 동아시아 지역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대양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 외 미국과 독일 등이 포함된다.

부도 1-8. GVC 활용한 비스킷 및 과자류의 역내분업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비스킷 및 과자류 제조업체의 조달원가 절감을 위해 FTA를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모델은 <부도 1-8>과 같다. 제시된 모델에서 베트남 진출 업체는 역내 생산 분업에 따라 현지에서 확보 가능한 계피, 벌꿀, 계란, 향료를 포함한 기타첨가제를 제외한 설탕, 코코아 페이스트, 쇼트닝, 식물성유지는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하며, 정제염, 팜유, 우유 등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 역내



지역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생산단계에서는 주원료와 베트남의 노동력,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합되어 비스킷 및 과자류가 생산되며, 최종 제품은 원산지 단일 및 누적조항에 입각하여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베트남-중국 FTA, 아세안-중국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베트남 현지, 중국 서남부지역, 동남아시아 내륙지역, 동남아시아 연안지역으로 판매 가능하다.

베트남 지역에서 GVC를 활용한 비스킷 및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의 제조 시 필요한 원료 농식품인 설탕, 코코아 페이스트, 쇼트닝, 식물성유지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며, 제조기술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및 연관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더불어 협력국인 베트남도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계피, 벌꿀, 계란, 향료를 포함한 기타첨가제의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노동력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부록 2. 신농촌개발 프로그램의 19개 기준과 성과 지표

부표 2-1. 신농촌개발 프로그램의 19개 기준과 성과 지표

구분	기준	성과 지표
1	계획	계획 작성 및 해당 권한기관의 심사승인 여부 계획안의 공개 인프라 관리 및 주택관리 규정
2	교통	면간 도로 : AH 수준 및 2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면과 마을 도로 : A 수준 및 2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마을 내부 도로 : A 수준 및 1대 트럭(2.5톤 이하) 역도 농로 : A 수준 및 1대 트럭(10톤 이하) 역도 ※ 교통부 규정은 AH, A, B, C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각 포장을 위한 세부적인 사양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AH 수준이 가장 높음
3	관개	생산 및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관개체계 : 80% 이상의 효과, 정상적 기후에서 85%의 물 공급 및 배출, 건축물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기관의 지정과 점검활동 관개수로의 콘크리트 시설 수준 ※ 해안, 섬, 댐 설치지역, 간척 지역은 제외 ※ 관개시스템이 없는 마을 및 콘크리트 공사 대상이 아닌 지역은 달성으로 인정
4	전기	- 전기시스템 : 변압소, 송압 및 하압 전기선, 전기계량기 등 포함 - 안전한 공급 : 평일 공급 가능
5	학교	- 교육부 기준 충족 : 유치원은 레벨 1, 초등학교는 레벨 1, 중등학교는 국가기준
6	문화시설	문화회관 및 스포츠 시설 구축 문화회관 및 스포츠 시설 갖춘 마을 비율 ※ 기존 문화회관이나 소수 민족의 집이 기준을 충족하면, 마을회관으로 인정
7	시장	건설부 기준 충족 · 운영 및 관리 : - 관리팀이 있고, - 면(commune) 인민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 정확한 계량을 위한 표준저울이 1개 이상 있고, - 판매물건 및 가격 등이 게시되어야 하고, - 법률로 규정된 판매금지 물건이 없어야 함
8	우체국	최소기준의 정보통신 서비스 대리점 1곳 설치 ※ 섬의 경우, 주민 200명 이상일 때 대리점 설치 적용 가능함. 면 내 마을의 30% 이상 인터넷 인프라 설치 및 가구의 10% 이상이 인터넷 활용

부표 2-1. 계속

구분	기준	성과 지표
9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가 또는 임시 주택이 없음</li> <li>※ 임시 주택 : 5년 이하 내구성, 화재에 취약한 자재, 면적 부족 및 화장실 불비 주택</li> <li>· 건설부 기준 농촌주택 기준 충족 :</li> <li>- 면적 24㎡ 이상(화장실, 부엌 제외)</li> <li>- 10년 이상의 내구성</li> <li>- 부엌, 화장실, 전기와 식수 시설 구비</li> <li>- 민족 및 지방의 문화에 따른 건축 및 디자인</li> </ul>
10	소득	<p>1일당 연평균 소득=(총수익-생산비용)/가족 성원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수익= 농업소득+비농업소득+이전소득</li> <li>- 사회적 지원, 전기세 지원, 자산 판매, 저축은 소득에서 제외</li> </ul> <p>※ 현의 통계사무소 지침에 의해 면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현에서 검토하여 인정하여야 함</p>
11	빈곤가구	<p>농촌의 빈곤가구 기준 : 1인당 월 400,000 동(약 20\$)</p> <p>※ 현의 인민위원장이 면의 조사결과를 승인함</p>
12	노동구조	<p>정기 취업 기준 : 생산연령대의 근로자가 면에 등록하여 거주하며, 주35시간 또는 월 20일 활동하는 것</p>
13	생산조직	<p>합작사(협동조합)이 최소 1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거나, 전체의 50%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p> <p>가구의 30% 이상이 합작사 및 합작조의 회원이어야 함</p> <p>※ 협동조합의 효과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개정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li> <li>- 관개/농자재/종자/농약/판매 등에서 최소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li> <li>- 지속적인 이익을 내어야 하고,</li> <li>- 자본이 매년 3% 이상 증가하고,</li> <li>- 면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p>※ 합작조 : 관련 의정서 및 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승인된 수익 경영 사업을 수행함</p>
14	교육	<p>중등교육의 보편화 : 연간 졸업생 비율이 90% 이상(빈곤 면은 70%)이고, 15~18세 청소년의 중등학교 졸업비율이 80%(빈곤 면은 70%) 이상</p> <p>정규 훈련 농촌근로자 : 단기 및 장기 직업훈련과정을 받고, 증명서를 받은 자</p>
15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은 보건부의 기준에 맞고, 승인이 되어야 함</li> <li>- 의료보험 가입비율 = 의료보험가입자 수/면 전체 인구</li> </ul> <p>※ 의료보험은 정부 지원 보험, 의무 보험이나 임의 보험 포함</p>

부표 2-1. 계속

구분	기준	성과 지표
16	문화적 삶	<p>면내 마을 중 70%가 문화마을로 인정되고, 그 지위가 3년 유지될 때, 문화 면으로 인정</p> <p>※ 문화마을 : 범죄, 마을의 안전, 유흥 및 혐오 시설, 주민 간 불화 등을 매년 조사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문화마을로 인정함</p>
17	환경	<p>깨끗한 식수: 정수과정을 거치거나,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색무취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끓인 후 마실 수 있는 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쪽 산간 및 타이응웬(Thay Nguyen) : 상수 가정 80%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45%</li> <li>- 홍강 평야, 동남부, 구룡강 평야 : 상수 가정 90%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50%</li> <li>- 북중부 및 남중부 해안 : 상수 가정 85% 중에서 깨끗한 식수 사용 가정 50% 면의 친환경 개발</li> <li>-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영 생산업체가 없음</li> </ul> <p>※ 경영생산 업체가 생산 및 가공과정 중에 배출한 폐기물, 폐수, 약취, 매연, 소음 등이 자원환경부가 지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 공동 쓰레기장이 있고, 수거 및 처리 서비스 팀이 있음</li> <li>- 해당되는 경우, 호수는 친환경적으로 관리</li> <li>- 100%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정원이 없고, 울타리가 개선되고, 골목이 깨끗하여야 함.환경오염 활동이 없음.</li> <li>- 가정마다 목욕실, 화장실, 식수저장시설, 위생 처리된 농장 및 헛간 중 3개의 시설을 보유하여야 함.</li> <li>- 폐기물 및 폐수 수거 및 처리</li> <li>+ 각 가정에서 공기와 주변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생활 폐기물, 하수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li> <li>+ 면/마을주민 거주 지역에 공동배수 시스템 보유</li> <li>+ 면/마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동 쓰레기장에서 처리함. 공동묘지 계획이 있고, 이에 따라 관리됨.</li> <li>- 마을/현/면 클러스터별로 공동묘지 계획이 현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li> <li>- 공동묘지 세부 계획 및 관리 규정(묘지 면적과 규격, 관리자 지정)이 있어야 함.</li> <li>- 집 주변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는 면 인민위원회에서 공동묘지 매장 또는 화장을 홍보하여야 함.</li> </ul>

부표 2-1. 계속

구분	기준	성과 지표
18	정치 사회 체계	<p>다음의 4가지 수준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공무원은 100% 내무부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li> <li>+ 학력 : 평야 및 도시지역은 고교졸업, 산간 및 섬 지역은 중학교 졸업 이상</li> <li>+ 전문경력 : 업무와 관련된 전공 2년제 중급학교 졸업장</li> <li>+ 컴퓨터 수준 : A 급 이상 자격증 소지</li> <li>+ 소수민족지역 근무자: 최소한 1개의 소수민족 언어 능통</li> </ul> <p>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 후 정치이론과 국가관리 과정에 참여</li> </ul> <p>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군대장과 공안장이 전문 법률 규정에 기재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li> </ul> <p>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급 공산당은 매년 “청렴한 공산당 조직”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li> <li>+ 현 인민위원회는 “청렴한 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야 함.</li> <li>- 규정에 의한 기본 정치조직이 있음.</li> <li>- 면에 청렴한 공산당원 및 정부가 있음.</li> <li>+ 공산당, 정치사회단체(조국전선, 호치민 공산청년단, 여성연맹, 농민협회, 재향군인회)가 있음.</li> <li>- 면의 우수한 사회정치 조직이 우수 표창을 받음.</li> </ul>
19	치안 및 사회질서	<p>다음의 5개 수준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정부, 경제파괴, 불법 선교, 장기간 많은 주민의 고소활동이 없음.</li> <li>- 강도, 절도, 도박, 마약,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문화를 통제하거나 그 빈도가 감소되어야 함.</li> <li>- 주민에 의한 심각한 형사사건, 교통사고, 화재가 없음.</li> <li>- 현 인민위원회에서 안전한 정치·사회 마을로 인정됨.</li> <li>- 면 공안에 대한 우수표창 이상 수여</li> </ul>

자료: 정기환 외(2015).

### 부록 3. 국내외 對 베트남 ODA 지원 현황

부표 3-1. 국내외 對 베트남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공여국 및 국제기구	총액	농업분야	농업분야 비중
OECD 공여기관	36,432.1	2,685.9	7.4
DAC 회원국	21,424.0	894.9	4.2
호주	871.8	78.3	9
오스트리아	82.3	-	-
벨기에	194.4	8.7	4.5
캐나다	169.2	34.7	20.5
체코	3.9	-	-
덴마크	143.8	8.3	5.8
핀란드	144.2	0.3	0.2
프랑스	1,283.7	99.3	7.7
독일	2,287.3	18.5	0.8
그리스	0.2	-	-
헝가리	7.4	-	-
아일랜드	112.5	31.9	29
이탈리아	52.4	1.1	2.1
일본	12,309.2	470.0	3.8
한국	2,193.6	49.3	2.2
룩셈부르크	77.1	24.7	32
네덜란드	5.5	0.2	3.6
뉴질랜드	71.7	26.2	36.5
노르웨이	136.6	2.1	1.5
폴란드	5.3	-	-
포르투갈	0.2	-	-
슬로바키아	0.2	-	-
스페인	36.0	6.1	16.9
스웨덴	41.4	2.1	4.9
스위스	200.7	27.4	13.7

부표 3-1. 계속

공여국 및 국제기구	총액	농업분야	농업분야 비중
영국	97.5	4.5	46.2
미국	896.2	1.4	0.2
다자성 총계	14,920.4	1,750.2	11.7
EU 기관	701.3	-	-
지역개발은행	2,797.7	390.3	14
아시아개발은행	2,797.7	390.3	14
국제연합	330.5	171.0	51.7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80.4	171.0	94.7
국제노동기구(ILO)	9.8	-	-
유엔에이즈(UNAIDS)	5.8	-	-
유엔개발계획(UNDP)	61.0	-	-
유엔인구기금(UNFPA)	18.4	-	-
유엔난민기구(UHCHR)	0.8	-	-
유엔아동기금(UNICEF)	31.9	-	-
국제보건기구(WHO)	22.5	-	-
세계은행그룹(WBG)	10,119.0	1,182.9	11.7
세계은행(WB)	10,119.0	1,182.9	11.7
국제개발협회(IDA)	10,119.0	1,182.9	11.7
국제금융공사(IFC)	589.7	36.7	6.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CERF)	4.2	-	-
기후투자기금(CIF)	165.7	-	-
국제백신면역연합(GAVI)	129.2	-	-
지구환경금융(GEF)	61.4	6.0	9.8
글로벌펀드(GF)	392.4	-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4.1	-	-
녹색기후기금(GCF)	41.2	-	-
노르딕개발기금(NRF)	12.5	-	-
석유수출 국제발전기금 (OFID)	161.3	-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 부록 4. 주요 공여국별 對 베트남 농업분야 지원 현황

부표 4-1. 주요 공여국별 對 베트남 농업분야 지원 현황(2010~2017 총액)

단위: 백만 달러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미국	호주	스위스	영국
전체 ODA 지원	12,309.2	2,287.2	1,283.7	2,193.5	896.2	871.8	200.7	97.5
농업농촌분야	470.0	18.5	99.3	49.3	1.4	78.3	27.4	4.5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1.0	0.1	0.1	0.8	0.0	0.9	16.7	-
31120: 농업 개발	33.1	2.3	1.9	19.8	1.0	3.6	7.9	1.4
31130: 농지 개발	1.1	1.3	0.1	-	-	5.0	-	-
31140: 농업용수지원	400.3	-	60.6	-	-	0.3	0.1	-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	-	-	-	-	25.9	-	-
31161: 식량생산	1.0	-	24.7	1.0	-	2.4	-	-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	2.9	-	0.0	-	-
31163: 축산	3.6	0.3	0.0	1.1	-	1.0	-	-
31164: 농지제도 개혁 (경지정리 등)	-	0.2	-	-	-	-	-	-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	0.3	0.3	-	-	-	2.6	-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	0.7	-	0.3	-	-	-	-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0.3	0.6	-	0.9	0.2	0.0	-	-
31182: 농업 연구	-	1.0	11.0	0.4	0.1	28.3	-	3.1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	1.2	-	1.2	-	6.7	-	-
31192: 병충해 구제	-	0.2	0.5	1.3	-	0.0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	0.2	-	0.0	-	0.1	-	-
31194: 농업협동조합	-	0.1	0.1	0.3	-	-	-	-
31195: 축산 진료	0.4	-	0.1	1.0	0.0	1.7	-	-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9.2	10.0	0.0	18.3	-	2.3	-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 부록 5. 對 베트남 세부농업분야 지원 변화 추이 (2010~2017)

부표 5-1. 對 베트남 세부농업분야 지원 변화 추이(2010~2017)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ODA 지원	3,756.8	5,348.4	4,333.2	5,912.9	3,751.5	4,645.0	5,222.1	3,462.2
농업농촌분야	292.7	257.1	260.3	320.9	239.4	770.3	193.5	351.7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2.5	17.7	13.5	25.9	6.6	30.3	18.0	12.0
31120: 농업 개발	8.5	9.9	17.0	22.3	16.1	33.6	16.4	14.3
31130: 농지 개발	1.2	1.5	1.9	1.0	1.5	22.0	0.1	0.1
31140: 농업용수자원	135.4	172.6	179.7	213.2	165.6	317.3	95.2	230.7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26.0	0.1	0.0	0.1	..	..	..	..
31160: 식량생산	1.8	25.2	0.4	0.7	0.6	70.7	0.5	1.4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0	..	..	0.6	1.1	57.2	0.1	0.0
31163: 축산	1.2	1.1	0.8	0.6	0.4	39.9	1.3	8.4
31164: 농지제도 개혁(경지정리 등)	0.0	..	..	..	..	..	0.2	..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0.1	..	0.0	..	0.0	0.0	3.0	0.5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10.1	1.2	0.8	0.2	3.1	..	0.2	0.1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0.6	1.5	0.3	1.1	0.5	17.3	0.3	0.2
31182: 농업 연구	20.1	3.8	8.2	4.6	4.8	5.8	3.1	4.0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7.1	1.3	1.2	0.5	1.2	48.7	3.6	0.2
31192: 병충해 구제	0.0	..	0.0	0.1	0.5	1.2	4.5	0.2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4.0	0.9	1.0	6.2	2.9	1.3	8.8	0.0
31194: 농업협동조합	1.9	1.1	1.2	..	4.7	0.1	0.1	0.1
31195: 축산 진료	0.3	4.7	0.5	0.8	1.1	6.2	0.1	0.1
43040: 다부문 농촌개발	61.9	14.6	33.7	43.0	28.6	118.7	38.1	79.6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5.11. 8.17.).

## 부록 6.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ODA 사업지원 현황 (2013~2019)

부표 6-1.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ODA 사업지원 현황(2013~2019)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1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두엔광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프로젝트	2019~2023	15,000,000	농촌개발
2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홍강 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프로젝트	2019~2023	327,216	농업개발
3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	프로젝트	2018~2022	403,038	경제작물/ 수출작물
4	해양수산부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	프로젝트	2018~2022	136,895	어업 개발
5	농촌진흥청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프로젝트	2016~2024	(계속 사업)	기술협력
6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프로젝트	2016~2019	(계속 사업)	농업개발
7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2014~2018	1,030,907	농업개발
8	경상북도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프로젝트	2014~2020	24,800,000	농촌개발
9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평지성 새마을운동 사업	프로젝트	2014~2019	9,620,867	농업관련 교육/훈련
10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라오까이성 새마을운동사업	프로젝트	2014~2017	13,928,866	농업관련 교육/훈련
11	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2011~2015	2,800,000	농업 개발
12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개발 관련 NGO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2019	67,845	농업 개발
13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 지도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2019	20,066	비정규 농업훈련
14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 지도 관련 WFK-퇴직전문가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	137,471	비정규 농업훈련
15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축산, 가축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	9,103	축산
16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개발 관련 WFK-퇴직전문가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	68,735	농업 개발
17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비정규 농업훈련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59,681	비정규 농업훈련

부표 6-1. 계속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18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축산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59,681	축산
19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 개발 관련 WFK-퇴직전문가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87,425	농업 개발
20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식량생산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95,554	식량생산
21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농업관련 교육/훈련 관련 NGO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13,878	농업관련 교육/훈련
22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에 축산 관련 NGO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47,186	축산
23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파견_WFK-중장기자 문단_베트남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식량생산
24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파견_NGO봉사단_베 트남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농업협동조합
25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파견_NGO봉사단_베 트남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6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파견_해외봉사단_베 트남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비정규 농업훈련
27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파견_해외봉사단_베 트남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축산
28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3	800,000	농업 개발
29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농촌 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9	7,411	농촌개발
30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농촌 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	171,975	농촌개발
3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농촌 개발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8	40,925	농촌개발
3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농촌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300,539	농촌개발
33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농촌개발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179,020	농촌개발
34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베트남에 여업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WFK-퇴직전문가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7	87,425	여업정책 및 행정관리
35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단파견_WFK-중장기자 문단_베트남_43040_T2_N 1_M2_F0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농촌개발

부표 6-1. 계속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36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봉사단파견_해외봉사단_베 트남_43040_T26_N9_M2 1_F5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016	-	농촌개발
37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아세안 특별연수-수산 유통 및 가공역량강화	기타 기술협력	2016	-	수산물 유통지원
38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전국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	기타 기술협력	2016	-	어업 개발
39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아시아)	기타 기술협력	2014	36,811	수산물 유통지원
40	새마을운동중앙회	저개발국가 새마을교육	기타 기술협력	2012	8,580	농촌개발
41	해양수산부	연안도서국 수산 기술 및 정책 교육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9	-	어업 교육/훈련
42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글로벌 수산발전 역량강화(2018)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2019	-	어업개발
43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지역개발 역량강화(2018)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2019	-	농촌개발
44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지역개발 역량강화(2017)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2018	-	농촌개발
45	해양수산부	연안도서국 수산기술교육 및 정책연수과정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	18,178	어업 교육/훈련
46	해양수산부	연안도서국 수산기술교육 및 정책연수과정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	17,011	어업 교육/훈련
47	해양수산부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교육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6	17,030	어업 교육/훈련
48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아 개도국 식품위생 공무원 역량 강화(16-'18), 3차년도	기타 기술협력	2018	22,62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49	한국국제협력단	금융협동조합 운영 역량강화	기타 기술협력	2018	13,672	농업금융 서비스
50	한국국제협력단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16-'18), 3차년도	기타 기술협력	2018	13,164	농업관련 교육/훈련
51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태국개발청(TICA) 공동연수(1) - 농촌개발과정	기타 기술협력	2018	963	농업 개발
52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기타 기술협력	2018	38,175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53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개도국농산물안전성 관련관계관초청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8	7,839	농업관련 교육/훈련
54	농촌진흥청	해외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7	22,359	농업 개발

부표 6-1. 계속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55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전문가 양성(아시아)	기타 기술협력	2017	17,308	농업용수지원
56	한국국제협력단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	기타 기술협력	2017	12,938	농업관련 교육/훈련
57	농촌진흥청	해의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7	27,595	농업 개발
58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7	4,609	농업관련 교육/훈련
59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6	4,609	농업관련 교육/훈련
60	한국국제협력단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기타 기술협력	2016	-	축산
61	한국국제협력단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	기타 기술협력	2016	-	농업관련 교육/훈련
62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개도국안전성관련관 계관초청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6	5,226	농업관련 교육/훈련
63	농촌진흥청	해의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6	27,595	농업 개발
64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5	4,608	농업관련 교육/훈련
65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5	12,497	농업관련 교육/훈련
66	한국국제협력단	아세안 특별연수 2- 차세대 방송 콘텐츠 제작 교류	기타 기술협력	2014	14,724	농업 개발
67	한국국제협력단	발작물 생력재배 기술(아시아)	기타 기술협력	2014	29,449	경제작물/수출 작물
68	한국국제협력단	농촌개발과 협동조합 역량강화	기타 기술협력	2014	7,362	농업협동조합
69	한국국제협력단	아세안 특별연수 1-포괄적 환경 모니터링 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4	14,724	농업 개발
70	한국국제협력단	고품질 안전채소 생산기술(아시아)	기타 기술협력	2014	29,449	경제작물/수출 작물
71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미래지도자급 역량강화(새마을운동 공동연구)	기타 기술협력	2014	133,752	농업 개발
72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3	4,808	경제작물/수출 작물

부표 6-1. 계속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73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 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3~2018	263,279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4	농촌진흥청	해외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3	27,800	농업 개발
75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기타 기술협력	2012	5,271	축산
76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안전성관련 관계관 초청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2	6,635	농업관련 교육/훈련
77	농림축산식품부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	기타 기술협력	2012	11,194	농업관련 교육/훈련
78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 국제기준 (ISPM) 제정 아시아지역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2	6,286	농업관련 교육/훈련
79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기타 기술협력	2012	5,271	농업관련 교육/훈련
80	농촌진흥청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 의체 사업	기타 기술협력	2012	129,800	농업 개발
81	농림축산식품부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가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제기구(다자기 구,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6~2019	-	농업관련 서비스
82	농림축산식품부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지도 및 가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제기구(다자기 구,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6~2019	227,233	농업관련 서비스
83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능력 제고 사업	국제기구(다자기 구,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5~2018	140,702	병충해 구제
84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사업 (FAO)	국제기구(다자기 구,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4~2015	302,977	축산
85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병해충예찰조사 능력개발 사업 (FAO)	국제기구(다자기 구,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3~2016	106,042	병충해 구제

부표 6-1. 계속

자료 제출기관	사업명	원조유형	사업 기간	약정액 (달러)	사업 분야명
86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능력 제고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011~2015	151,488	축산
87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빈중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 (2012/ 6.8만불)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2011~2012	-	농업관련 교육/훈련
88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9	-	농업관련 교육/훈련
89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농축산 가공/마케팅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2018	-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90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농업생산성 역량강화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2019	-	식량생산
91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농업공학 역량강화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2020	-	농업개발
92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농업경제 역량강화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2018	-	농업개발
9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베트남)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	70,896	축산
94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역량 강화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	20,564	농업관련 교육/훈련
95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7	4,725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96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련 관계관 초청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9	-	농업관련 교육/훈련
97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8	-	농업관련 교육/훈련
98 농림축산식품부	개도국식물검역전문가초청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6~2017	24,994	농업관련 교육/훈련
99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5~2016	5,544	농업관련 교육/훈련
100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기술 연수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6	2,127	농업관련 교육/훈련
101 한국국제협력단	석사학위-지역공동체 개발 개도국 지도자 및 교수요원 양성과정(1)(16-17)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6~2017	-	농업개발
102 부산광역시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 농업 1차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15	7,527	농업 개발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및 ODA KOREA, <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검색일: 2019.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록 7. 베트남 경제체제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검토<sup>159)</sup>

### 가. 베트남 모델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체제변화(system change)를 경험한 국가들의 개혁·개방 모델은 크게 구소련·동유럽 모델, 중국·베트남 모델로 구분한다. 이 중 구소련·동유럽 모델은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변화도 이루어진 체제전환(transformation) 모델, 중국·베트남 모델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진 체제개혁(reform) 모델로 구분한다. 개혁·개방의 속도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모델은 급진주의(radicalism), 체제개혁 모델은 점진주의(gradualism)로 분류한다.

체제개혁 유형에 속하는 중국과 베트남 모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의 초기조건에 기초하여 농업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유권 전환 중심의 민영화보다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영기업을 개혁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렀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개혁의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했다는 점,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파 주도의 인적 교체가 이루어져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

159) 김석진(2008), 김근식(2010), 원지환 외(2018), 양문수(2018), 이해정 외(2018), 권율 외(2018), 오영일 외(20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부표 7-1. 체제변화의 베트남·중국·구소련 모델 비교

구분	베트남	중국	구소련
시기	1986년 12월 도이머이	1978년	1985년 5월 페레스트로이카
방식	점진주의+부분적 급진주의 (Small Bang)	철저한 점진주의	급진주의(Big Bang)
중점개혁 과제	농업개혁을 우선한 공업화	농업개혁 우선한 공업화	국영기업 전면 민영화
국영기업 개혁	대형기업 구조조정 중소형기업 민영화 병행	대형기업 구조조정 중소형기업 민영화 병행	소유권 전환 민영화
시장자유화	개혁초기부터 전면적으로 신속 추진	점진적 추진	개혁초기부터 전면적으로 신속 추진
투자재원 조달	초기 IMF 지원 적극적 FDI 유치	내부 자본축적 경제특구 FDI 유치	IMF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존
주도세력	공산당(자율적, 단, 자금유입 위해 IMF, 세계은행 등의 요구 수용)	공산당(자율적)	미국, IMF자문단(타율적)
경제상황	거시경제상황 악화 고물가(1986년 587%) 외환부족 소련의 경제원조 급감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	생산성 저하 극심한 물자 부족
정치시스템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공산당 1당 체제 붕괴 다당제 등장
기득권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자료: 오영일(2019: 2)과 원지환 외(2018: 1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중국과 베트남 모델은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가격자유화 조치이다.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결정하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가격 자유화를 중국에 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 1986년 도이머이 방침이 결정된 이후 1987~1989 동안에 전력, 수도, 교통, 통신, 철강,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을 자유화했고,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메카니즘도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했지만 1990년대 초까지 이중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중국과 베트남 모델은 포괄적으로 점진주의 유형에 속하지만 중국은 철저한 점진주의 모델, 베트남은 점진주의 모델에 부분적으로 스몰뱅(Small Bang)이 가미된 부분적 급진주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대외 개방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개혁 초기부터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조치를 실시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낮은 저축률과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급진적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국교를 수립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아시아 주변국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반면 중국은 개혁 초기 높은 저축률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원조를 통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고 대신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 나. 베트남 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검토

체제변화를 겪는 국가들이 처한 초기조건에 따라 변화(전환 또는 개혁)의 과정·결과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 경로가 아시아형인 중국, 베트남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경제구조의 초기조건이 국유화 정도가 강하고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구소련, 동유럽의 경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산업화에 투입할 농업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농업개혁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영역에서 고찰하게 되면 성과와 혼란 방지를 위해 점진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급격한 개혁·

개방이 체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 동유럽형의 체제전환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개방을 결심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정치체제의 훼손 없이 경제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베트남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형인 중국, 베트남 모델은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북한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개혁의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중국·베트남 모델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베트남 모델 중 북한의 상황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대외 개방 측면에서 북한의 초기 조건을 보면 높은 저축률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던 중국 보다는 낮은 저축률에다 높은 국가리스크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초기조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과 비교해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노정되었고, 세계적으로 경제규모나 발전 수준에서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베트남은 약소국이라는 점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여건 측면에서 북한은 베트남 상황에 보다 근접하고 개방·개방을 추진한다면 베트남 모델이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험이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 규모가 남한의 부담능력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규모 해외 자금 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북한은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세

습권력이 존재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국이 존재하고 국제금융기구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베트남 모델과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어 북한식 모델을 창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은 아시아형 모델의 경험 중 일부는 그대로 원용하고 또 일부는 북한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자체적으로 융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Korea–Vietnam Mid- and 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JANG HEO, HYOUNGJIN JEON, SANGHYUN KIM, HYOJUNG LEE,  
BYOUNG-HOON LEE, DAESEOB LEE, SUHWAN LEE, and JUNGMAN CHOI

The so-called ‘New Southward Policy’, announced in 2017 by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aspiration that the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would expand to be as much as 100 billion USD by 2020. Current level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is 68,265 million USD which is 7.2 times as that in 2009. In agricultural sector, the trade has shown annual increase of 20.6% since 2010 by reaching 1.93 billion USD in 2018. In the same year, the share of Vietnamese agricultural products is 3.5% of total agricultural imports, and 6.7% of total agricultural exports by Korea. The budget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Vietnam disbursed in 2017 was 195.45 million USD, and the amount of grant aid to Vietnam is the largest in the worl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in agricultural sector in order to keep in pace with the ever-expanding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Vietnam takes very high strategic positions in Southeast Asian region, socially and

economically. Potential of Vietnamese agriculture is also high, and, as its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is very similar with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Vietnam's agricultural development will imply a lot for them. Also, Vietnam's reformation and opening policies and experiences (Doi Moi) can provide heavy implications for exchange an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the purposes to give basic informations to deriv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for expanding and improving agricultural trade an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Vietnam, through the analyses of current status of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s and reviews of Vietnam's structural reform process and contemporary key agriculture-related policies and strategies.

Literature and reports as well as databases from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and ODA KOREA were used for the study. Research team visite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located in cities of Hanoi, Ho Chi Minh and Da Lat for data collection. A part of research results wer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July 24th, 2019 for comments.

Vietnam has achieved annual economic growth rates as high as 7% since 2000s. Agricultural sector takes 14.8% in GDP in 2017. Key products are rice, maize, cassava, vegetables, tropical fruits, tea, coffee, rubber, pepper, and cashew nuts. Exporting products are timber and timber products, aquatic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cashew nuts, rice, rubber, tea, pepper, cassava and cassava products, and so on, which are targeted to China, US, Southeast countries, Japan, and Korea.

Vietnam adopted Doi Moi in 1986 when its economic conditions had deteriorated due to economic sanctions from Western countries and conflicts with China. Major reform measures in agricultural sector were, for instance, self-responsible agricultural managemen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ing, enactment of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for guaranteeing the execution of farmers' land rights, and so on. Agricultural production started to increase stably since 1988, partly due to the measures.

Recent importan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hich aims to achieve 3,200 USD for per capita GDP by 2020. Other strategic documents, including 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ster Pla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 and Agriculture Restructuring Program, also declare the targets to achieve by 2030: annual GDP growth rate of agricultural sector to be 3~3.2%, growth rate of production amount 4~4.3%, production amount per 1 hectare of agricultural land 100~120 VND, and so on.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for 2010~2020 (NTP-NRD) applies tactics of Korean Saemaul Undong toward 9,001 communes around the country for 10 years by 2020.

After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FTA) came into effect, the amount of imports of Vietnamese agricultural products are increasing 26.6% annually. Korea exported in 2018 460 million USD, which is the fourth largest in the world.

Food and food distribution sectors are one of the most promising markets in the world. Young-aged people as well as near 100 million total population, and their income increases are potentially powerful

factors for further growth. Highly favorable trusts toward Korean brands and Korean wave (Hallyu) are opportunities, on the one hand, while high prices and too old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are threats.

The study analyzes export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four indicators after selecting main exporting products and export potential products—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and Market Share Index.

Global value chain (GVC) analyses show that both the export of final products and export of intermediary goods in agro-food sectors have rapidly increased. It is important, therefore, to link the sectors in their production phases through using Korea-Vietnam FTA and Korea-ASEAN FTA. The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in which the global chains of value addition are formed when exported agro-food products are input as intermediary goods into other country's exported products by looking at the case of instant coffee. As results, it is expected that more raw agricultural products are exported, values are added by acquiring manufacture technologies, and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industries are growing. However, it is witnessed that a various non-tariff barriers hinder increased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etween 2010 and 2017, international society offered 36,432 billion USD as ODA. Among them, agricultural ODA was 441.7 million USD which is 99.7% increase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Agricultural sector's share tripled from 4.2% in 2016 to 12.8% in 2017. Japan, Germany, Korea, US, and Australia are the countries which provided more ODA than other ones. Korea's ODA to Vietnam



between 2010 and 2017 reaches 2,193.54 million USD. Grant aid's share swelled from 8% to 17% during the same time period, however, loan is 83% in 2017 taking lion's share.

Aid for agricultural sector including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quadrupled from 1 million USD in 2010 to 4.25 million USD in 2017. The assistances were concentrated on education and training, agricult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livestock,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2019, the ODA amount to Vietnam is 170 billion KRW.

The grant aids from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ve been focused on rural development based on Saemaul Undong methods for province levels, whereas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on value chain development such as production capacity enhancement in vegetable and rice growing sectors, logistic facilities, and contract farming with private companies. Cases such as 'Seed potato production facilities and technologies' project by MAFRA, and 'Rural Saemaul Undong model' project by KOICA are excellent examples to understand differences between two organizations.

When analyzing assistance using the perspective of aid for trade (AFT), Japan takes about half of tot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reas Korea assisted about 100 million USD in 2017. It is maintained that future aids should be more invested into processed foods and storage projects for more AFT.

Korean private companies occupy the position of the largest investors since September 2015, showing 6,883 accumulated cases which is also the most in the world. In agricultural sector, maize, cassava, banana and strawberry are major products produced and

marketed by Korean companies in Vietnam, and some of them have been exported to Korea. Although some processing companies are operating in Vietnam for producing such as animal feeds, poor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make it hard to attract more investment.

Mid- to long-term agricultural strategy in the future needs to link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upport Vietnam's development strategies. Three cooperation models are provided here. First,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 weak and/or potential parts along the value chain of specific product, and to concentrate assistances on them. Second is the linkage between raw material supplying farmers and private processors. The companies would contract with farmers and purchase agricultural produces after harvest as well as providing producing technologies and inputs, whereas infrastructure such as irrigation facilities and access roads, including drying and storing facilities, are provided through the ODA projects. It will guarantee sustainable income for the contracted farmers, and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for processing. Third is the linkage through the investment i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system and supports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istribution, marketing, and export are all requiring heavy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ost saving for private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Vietnam.

This study also provided three areas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smart agriculture system. Vietnamese government already started to support smart farms and high quality, high productive enterprises through hi-tech agricultural policy. A few Korean companies have exerted their efforts to utilize Vietnam as the site to produce high technology

agricultural inputs and equipments.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itiated so-called 'Export Research Task Forch' for exporting smart farm-related industries.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r logistic bases at key places in Vietnam. It needs to support logistic infrastructure for improving inefficiency and expanding export of Korean agro-food products. Considering territorial feature of Vietnam, the study recommends to build two bases at north and south economic complexes, for example, Saigon Hi-Tech Complex.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quarantine system and capacity building of the related offic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it is expected that value added is continuously created and global value chains are extended by linking processes of production, storage, distribution, marketing and export. Korean quarantine system will be an excellent model as it had been well-developed in a relatively short time. Also, the ODA project about quarantine system improvement for Sri Lanka,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offic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can be very good cases for benchmarking.

---

## 허장(許璋)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센터장·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eojang@krei.re.kr)

저서 및 논문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공저, 2019)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 and Implications to Developing Countries”(공저, 2016,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

## 전형진(全炯振)

중국사회과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jchon@krei.re.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수입농식품 시장 조사 연구』(공저, 2015)

『중국농업동향』(공저, 2018~2019) 외

---

## 김상현(金庠鉉)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석사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부연구위원

(現, E-mail: sanghyun@krei.re.kr)

저서 및 논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공저, 2019)

『농식품 수출시장 진출여건 분석』(공저, 2019) 외

---

## 이효정(李孝貞)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원예학과 학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現, E-mail: hyojunglee@krei.re.kr)

저서 및 논문

『농림업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공저, 2019)

『KOICA 농업분야 CSV 사업기획을 위한 가치사슬분석법(Value Chain Analysis) 적용방안』(공저, 201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공저, 2015)

---

## 이병훈(李秉勳)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농경제학 박사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現, E-mail: bhleeok@kangwon.ac.kr)

### 저서 및 논문

“반(反)국가 정서가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중국과 대일본을 중심으로”(공저, 2019『농업경제』)

「한·호주/뉴질랜드/캐나다 FTA 협상결과 농업분야 영향분석」(공저, 2015) 외

---

## 이대섭(李大燮)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강원대학교 국제협력학과 교수  
(現, E-mail: ldaeoseb@kangwon.ac.kr)

### 저서 및 논문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공저, 2018)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공저, 2018)

『A Study on Measuring Contribution of an ODA Project to SDGs: the case of rural development project』(공저, 2018)

『가치사슬을 고려한 국제농업개발협력 모델 구축 연구』(공저, 2018)

---

## 이수환(李壽桓)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연구원  
(現, E-mail: suhwan8352@krei.re.kr)

### 저서 및 논문

『메가 FTA 추진 대응전략 연구』(공저, 2019)

『CPTPP 농업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공저, 2018)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공저, 2015)

---

## 최정만(崔廷滿)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 석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연구원  
(現, E-mail: cjm87@krei.re.kr)

### 저서 및 논문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공저, 2018)

『Develop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Eurasian Countries』(공저, 2018)

#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 2019년

-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이·김제국
-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운·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김범석·김나리
- 19-06 EU의 동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운정·장영은
-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구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Korea-Vietnam Mid- and 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JANG HEO, HYOUNGJIN JEON, SANGHYUN KIM, HYOJUNG LEE, BYOUNG-HOON LEE, DAESEOB LEE, SUHWAN LEE, and JUNGMAN CHOI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 고도성장을 거쳐 한-베트남의 경제 및 개발협력은 크게 늘었다. 이 연구는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베트남과의 통상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이를 뒷받침하는 ODA, 즉 개발협력 개선방안과 연계되어 통합적인 협력전략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주요한 협력 추진분야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1970년대 통일 이후 베트남의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들을 소개하고, 통상과 글로벌 가치사슬, 민간업체의 진출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동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또,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ODA 협력현황, 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이 서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협력모델, 세부 추진과제 등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ISBN 978-89-322-9010-2  
978-89-322-9000-3 (세트)

정가 10,000원